



서교연 2025-35
2025 위탁연구 보고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축에 대한 연구

연구책임자: 윤 세 병(공주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공동연구원: 강 화 정(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김 민 정(도선고등학교 역사교사)

김 형 호(배재중학교 역사교사)

연구협력관: 최 세 경(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팀의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차 례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3. 기대 효과 및 결과 활용 방안	4
4. 연구의 방법과 주요 일정	5

II. 자료센터 구축의 기초 논의

1. 역사자료란 무엇인가?	8
가. 역사자료의 정의	8
나. 역사자료의 종류	9
2. 선행연구	11
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	11
나. 국가교육과정의 요구	12
다. 자료에 기반한 주제 중심의 역사교육	14
라.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의 제안	16
마. 사회적 차원의 역사교육	18

III. 역사교육자료센터 운영 참고 사례

1. 국내	24
-------------	----

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24
나. 5·18 기념재단-교육자료	37
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41
2. 해외	45
가. Contested Histories	45
나. Facing History And Ourselves(FHAO)	52
다. 히스토리아나(Historiana)	64
3. 시사점	75
가. 국내 사이트	75
나. 해외 사이트	76
다. 주요 시사점	77

IV.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요구 분석

1. 참여자	79
2. 일시 및 장소	79
3. 조사 설계	79
4. FGI 조사 활동	80
5. 요약 및 제언	93

V.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성 및 운영의 방향

1.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지향점	95
가. 미션(Mission)	95
나. 비전 (Vision)	95
다. 핵심 가치 (Core Values)	95
2. 전략 과제 (Strategic Projects)	103
가. 공공재로서의 역사교육 자료 허브(HUB) 구축	103
나. 다원적 관점과 논쟁성을 기반한 교육자료 생산 및 공유	103

다. 디지털 기반 역사 교수·학습 지원	103
라.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현장 체험, 계기교육 연계	103
마.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사 공동체 지원	103
바. 국제 협력과 발신	103
3. 실행 로드맵(Implementation Roadmap)	104
가. 1단계: 준비 및 구축기(2025-2026)	104
나. 2단계: 도입기(2027)	104
다. 3단계: 정착기(2028)	104
4. 역사교육자료센터 사이트 구성(안)	106
가. 역할	106
나.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107
다. 구성의 고려 사항	108
라. 사이트 맵 구성(안)	110
마. 수업자료(안)-오월 일기 자료를 통한 5.18 민주화 운동의 행위 주체 이해	118
5. 역사교육자료센터 운영(안)	124
가.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	124
나. 소비형에서 참여형으로	124
다. 역사교육자료센터를 넘어 (민주)시민교육센터로	124
라. 사회적 차원의 역사교육으로 확장	124
마. 연구와 실천이 결합된 역사교육	125

VI. 결론 및 제언

VII. 참고 문헌

<부록> 역사교육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을 위한 참고 자료

표 차례

<표 I-1> 연구팀 구성 및 역할 분담	6
<표 I-2> 연구 일정 및 내용	6
<표 II-1> 역사자료의 분류	9
<표 II-2> 주제 수업 구성 방안	15
<표 III-1>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사이트 구성	26
<표 III-2> 민주화 운동 사전 사이트 구성	32
<표 III-3>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발간 교육자료 사이트 구성	36
<표 III-4> 5·18 기념재단 교육자료 사이트 구성	38
<표 III-5> 5·18 중등 인정교과서(2025년) 목차	39
<표 III-6>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사이트 구성	42
<표 III-7> Contested Histories 사이트맵 구성	46
<표 III-8> FHAO의 사이트맵 구성	53
<표 III-9> 히스토리아나 사이트맵 구성	65
<표 IV-1> FGI 참여자 구성	79
<표 IV-2> FGI 참여자용 질문지	79
<표 IV-3> 역사와 교육의 논쟁성을 살리는 학습 주제 설정의 범주	97
<표 IV-4>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성 및 운영(안)	104
<표 IV-5> 역사교육자료센터 사이트 맵 구성(안)	110

그림 차례

[그림 III-1]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화면	25
[그림 III-2]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홈페이지 화면	26
[그림 III-3]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 운동 홈페이지 화면	30
[그림 III-4] 민주화 운동 사전편찬 중장기 로드맵	32
[그림 III-5] 민주화 운동 사전 전체 보기 화면	33
[그림 III-6] 민주화 운동 사전 ‘4월혁명(4.19혁명)’ 검색 결과 화면	34
[그림 III-7]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발간 교육자료 검색 결과 화면	35
[그림 III-8] 5·18 기념재단 교육자료 게시판 화면	37
[그림 III-9] 5·18 기념재단 5·18 웹 전시 게시판 화면	41
[그림 III-10] Contested Histories 초기 화면	45
[그림 III-11] 지원되는 Resource의 종류 및 층위	50
[그림 III-12] FHAO 초기 화면	52
[그림 III-13] Historiana 초기 화면	64
[그림 V-1] 역사교육자료센터 ‘HOME’ 화면(안)	111
[그림 V-2] 역사교육자료센터 ‘비전 체계도’ 화면(안)	111
[그림 V-3] 역사교육자료센터 ‘전략 과제’ 화면(안)	112
[그림 V-4] 역사교육자료센터 ‘실행 로드맵’ 화면(안)	112
[그림 V-5] 역사교육자료센터 ‘서울 역사교육 거버넌스’ 화면(안)	113
[그림 V-6] 역사교육자료센터 ‘주제별 역사교육 자료 허브’ 화면(안)	115
[그림 V-7] 감옥에 갇힌 이소선에게 딸 전순덕이 보낸 편지	116
[그림 V-8] 오픈 아카이브 연계 수업지도안	117
[그림 V-9] 예시 수업자료 웹페이지 구성1	119
[그림 V-10] 예시 수업자료 웹페이지 구성2	120
[그림 V-11] 예시 수업자료 웹페이지 구성3(수업활동 안내)	121

연구 요약

역사 연구는 다양한 자료에 기반한다. 역사교육에서도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사료(史料)란 일반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정보, 문헌사료 또는 문서 사료를 가리킨다. 이에 반해 자료는 더 넓은 개념으로 문자가 아닌 물체나 경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한편 디지털 역사 자료는 디지털화된 텍스트, 이미지, 자료, 내러티브 및 역사적 설명과 같은 역사 자료이다. 디지털화를 통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과거의 정보에 접근하고, 기존 정보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한편으로 디지털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fake news)의 확산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광범위한 시대와 관련된 잘못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해서 역사 부정이나 역사왜곡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되도록 만들며 정치적 극단화와 민주주의 후퇴와 상관관계를 맺기도 한다.

역사교육에서 자료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축에 관한 방안을 연구 과제로 삼았다.

먼저 역사교육자료센터 국내외 운영 참고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국내 사례로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5.18 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Contested Histories, Facing History & Ourselves(FHAO), Historiana의 사이트를 살펴보았다. 이들 사이트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센터의 미션·비전·목표·역할·핵심 과제를 명료하게 정의해 방향성을 선명히 하는 가운데 내부 의사결정과 외부 협업의 기준점을 세운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료의 단순 수집을 넘어서 주제·난이도·형식에 따른 세심한 큐레이션과 다채로운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논쟁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위한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을 갖추으로써 역사수업에서 논쟁성과 다원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피드백과 업그레이드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요 사용자(교사·학생·시민)를 전제로 연구자-교사-학생 연계를 구조화하여 사이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자료 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각종 자료를 개발함과 동시에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도 병행하여 개발하고, 핵심 자료·활동·가이드를 영문으로 구성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사례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작업을 실시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초등의 의사도 수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도 섭외하였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역사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컸으며 역사교육자료센터의 방향성이 명료하였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거의 일치하였다. 그리고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선적

으로 역사교사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역할은 센터가 안착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상태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쟁성이나 다원적 관점이 확보되는 역사 수업을 위해서는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처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집적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역사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료 집적이 오히려 교사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보다는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웹상에 구축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이 적절히 사용한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은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방향성을 명료히 하여 역사교육자료센터의 미션·비전·목표·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센터의 존재 이유와 장기적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 맞는 전략적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 속에서 준비기(구축기) → 시작기(도입기) → 정착기 → 활성화기 등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콘텐츠는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세심한 큐레이션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역사교육의 핵심 가치인 다원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관리와 제공은 센터의 신뢰도 및 전문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 논쟁적이고 다원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서울교육에 맞는 형태의 지침을 도출해야 할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역사교육지원단(가칭), 역사교육위원회와 같은 공적 협의체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역사교육자료센터를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는 정기적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사교사들의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하며, 교사-연구자 간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연구자-교사-학생 간의 연계와 국제적 교류를 강화하여 공공역사·공공역사교육 생태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역사 교과서의 보완 및 한계 극복

역사 학습은 과거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역사 교과서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 풍부한 자료를 그 안에 담을 수 없다. 특히 논쟁적 주제의 자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축은 현재의 교과서를 보완하면서도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나. 코로나(COVID-19) 시대의 교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만 했다. 원격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학습 결손은 매우 컸다(사회성 발달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 외국의 경우 학습을 위한 아카이브가 설치된 경우 이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 교육자치 실현의 파일럿 연구

교육부가 국가 전체의 교육을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국가 정책의 방향성 측면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할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2019년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연구(교육자치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에서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역사교육 플랫폼의 구축을 정책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다.¹⁾

라.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상황 속에서 역사 전쟁 발생

역사 갈등이 역사전쟁(history war), 기억 전쟁(memory war), 정체성 전쟁(identity war), 상징 전쟁(symbolic war), 문화전쟁(culture war) 등으로 호명되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국가나 그렇지 않은 국가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상황임을 염

1) 방지원·윤세병 외, 『교육자치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p.126.

두에 둔다. 퇴행적 역사 인식이 민주주의의 퇴행과 연결되어 있다.

마.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역사 인식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긍정하면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한다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한 부정 그리고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과 같이 역사 부정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익 정치가 발호하는 가운데 정치적 극단화와 글로벌한 차원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바. ‘리박스쿨 사태’와 공교육의 훼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늘봄교육의 공간으로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이들이 들어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파동,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주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면 최근의 사건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²⁾ ‘리박스쿨’은 극우 네트워크의 일부가 드러난 것일 뿐이며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이다.

사.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정책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한다. 다양한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며 역사를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천 역량을 키우는 역사교육이다. 한국사 현장 체험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대사 연구를 포함하는 역사교육 선도학교도 운영한다.”라는 계획을 밝혔다.³⁾ 역사 부정(history denial), 역사 왜곡(history distortion)이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공적 역사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 공공역사(public history)의 공공성 실현

역사교육자료센터는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공공 기관이 공공 역사를 구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극적 의미에서 서울소재 학교의 역사교육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적극적으로는 서울이 로컬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폭넓은 대중과의 소통 공간을 확보하는 점도 있다. 공공 교육(public pedagogy)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2) 이명선, 「초등 방과후 자격증 미끼로 ‘땃글 공작팀’ 모집」 《뉴스타파》 2025.5.30.
<https://newstapa.org/article/AsqjB>

3) 「서울시교육감,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TV서울》, 2025.1.7.
<http://www.tvseoul.kr/mobile/article.html?no=65761>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가.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역사 지식

다른 교과도 아니고 왜 굳이 역사교육자료센터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학교 교과목 하나로서 역사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사회 정치적 이슈화하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역사교육자료센터는 1차적으로 학교 역사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지니지만, 사회 통합과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나. 역사교육 개선의 일환으로서 역사교육자료센터 설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사회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1949년 출범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도 역사교육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홈페이지에 역사교육 메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산하에 실행 조직인 유럽역사교육협회(The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인 유로클리오(Euroclio)를 설립하고, 유로클리오의 역사교육자료센터 역할을 하는 사이트인 히스토리아나(Historiana)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플랫폼의 한 형태이다.

다. 자료 기반의 역사교육 구현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료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학문이다. 자료를 기반으로 역사 학습을 전개하는 것은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다. 과거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에서는 제시된 역사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중요한 과제였다. 자료와 해석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을 접근하는 것은 왜곡된 역사 학습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더구나 탈진실 시대를 맞아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문해력(literacy)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라. 국내외 역사교육 관련 기관의 교육 자료 운영 사례 검토

국내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료 및 학습 자료 운영 방식을 검토하였다. 사료를 집적하고 보급하는 국내외연구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기관보다는 교육 기능을 함께 겸하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 작업을 전개하였다. 다양한 읽기 자료나 이미지 자료를 탑재하거나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학습지(workbook or worksheet)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업의 지침이나 안내의 성격을 갖는 권고안(recommendation)이나 안내서(guideline) 등도 조사하였다.

3. 기대 효과 및 결과 활용 방안

가. 역사 학습의 효능감(efficacy) 살리기

역사 학습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교과서가 구현하지 못하는 학교의 역사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의 억제 기능, 시민적 차원의 역사교육 플랫폼의 기능,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학습 효능감을 높이도록 한다.

나. 역사적 문해력(historical literacy) 신장

다양한 자료는 학습에 흥미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관건인 부분이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역사 지식을 접한다. 역사 지식의 진위여부를 분별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사고, 역사적 추론(historical reasoning), 민감하고 논쟁적 역사(sensitive and controversial histories)를 다루는 능력을 키운다.

다. 민주적 문화 역량(competences for democratic culture) 신장

왜곡이 없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른 인식을 인내하고 대화하는 능력이다. 올바름을 강요하기보다는 대화적 접근법(dialogic approach)을 통해 대화적 진실(dialogic truth)를 추구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릇된 사실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역사 인식의 복잡성을 인식하면서 다원적 관점(multi-perspectivity)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차이 속의 공존(포용성), 민주주의 감수성(인권, 평화, 생태환경 등) 등의 실천적 지혜를 확보한다.

라.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역사교육 프로젝트나 역사교육 권고안 생산

역사교육의 새로운 실천은 더욱 새로운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실천적 지혜를 역사교육의 권고안 형태로 도출해 역사교육의 실천적 토대를 단단하게 구축하면서 더욱 확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교육자료센터를 중심으로 일정한 주제에 대한 공동의 현장 실천이나 연구 작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그 성취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나 '서울역사교육 권고안'으로 집약해 축적한다.

마. 글로벌한 차원의 소통 공간, 역사교육의 공유지(communs)

한국의 역사교육은 영어 기반의 학술적 언어로 나라밖에 소개된 적이 없다보니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들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이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역사교육을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그리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연결망 구축의 기능을 역사교육자료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구적인 문제로서 극우 정치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파괴에 맞선 플랫폼으로서 적극적 기능의 수행 가능성 타진해 보았으면 한다.

4. 연구의 방법과 주요 일정

역사교육 관련 자료를 웹상에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국내외 여러 곳이 있다. 국내의 경우 시도교육청 별로 교육정보원이 교수-학습 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학습 관련 각종 수업 사례, 체험 학습 자료 등을 집적하여 제공하고 있다. 역사 이해에 필요한 디지털 역사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https://kdp.aks.ac.kr/>), 우리역사넷(<https://contents.history.go.kr/front>),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등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사이트에서는 각종 사진 자료, 구술 자료, 발간 자료 등을 제공한다. 공적 기관이 아닌 영역에서는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별로 교과서 이해 및 교과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역사 학습에 도움을 주는 각종 아카이브와 박물관, 기념관, 메모리얼 센터 등이 있다.

역사(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역사학습을 전개한다고 할 때 관련 사료 및 학습자료(워크시트나 학습 가이드라인 등)를 구비한 국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작업을 병행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역사 왜곡 및 부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역사교육 개선 노력 검토
- 나. 국내외 자료센터의 운영 사례의 분석 및 비교
- 다. 역사자료센터 구축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작업
- 라.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성 및 운영의 로드맵 연구

연구팀의 구성 및 역할 분담에 따른 활동은 <표 1-1>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1-1> 연구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연구자	역할	연구 분담 내용
윤세병	연구책임자	연구 기획 및 총괄, 선행 연구, 국내외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강화정	공동연구원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김민정	공동연구원	국내외 자료 조사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보고서 작성
김형호	공동연구원	국내외 자료 조사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보고서 작성

연구원 각자는 선행 연구, 국내외 자료를 온오프라인 세미나 모임에서 발제하고 검토하면서 자료 센터의 상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윤세병), 국내 사례 및 워크시트(김민정), 해외 사례(강화정), 역사자료센터 웹 페이지 구성 및 운영 로드맵(김형호)의 내용을 집중 워크숍에서 내용을 준비하고 토론 과정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이론과 국내외 사례의 검토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료센터의 상을 그려보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 일정과 해당 활동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연구 일정 및 내용

연번	일정	활동 개요	주요 활동 내용
1	3.17	역사교육 자료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 및 사례 검토 연구 작업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2	4.4	이론적 기초 논의	
3	5.5	선행 연구 논의	
4	5.21	연구팀-교육청 담당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교육청의 전체적인 연구용역 사업의 방향 공유 향후 연구 방향 및 실무에 관한 연구팀과 교육청 간의 협의
5	6.20	국내외 사례 발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사례 웹 사이트의 특징 및 시사점 토론 보고서에 실을 사례 논의
6	7.4	자료센터 구축에 관한 발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 사이트 구성을 위한 다양한 사례 참조
7	7.28	중간 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결과 발표 평가위원들의 질의와 연구팀 응답
8	7.31	중간 보고회 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보고회에서 제기되었던 요구 사항의 반영을 위한 토론
9	8.9	워크시트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시트 사례 비교 워크시트 샘플 개발

10	8.21	현장 교사 FGI(Focus Group Interview)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지향점 및 활용 가능성 제고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 의견 수렴 •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성 및 운영의 유의 사항에 관한 논의
11	9.2	최종 보고서 초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논의 및 피드백
12	9.8	최종 보고서 초안 2차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내용 검토 및 보완
13	9.15	결론 및 제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내용 검토 및 보완
14	9.24	최종 보고회	

Ⅱ. 자료센터 구축의 기초 논의

1. 역사자료란 무엇인가?

가. 역사자료의 정의

사료(史料)란 일반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정보, 문헌사료 또는 문서 사료를 가리킨다. 혹은 문서라고 할 수 없는 단편적인 문자 표현을 고려한다면, 문자 자료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에 반해 자료는 더 넓은 개념으로, 문자가 아닌 물체나 경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비문헌 자료, 비문자 자료를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 사료와 자료를 합쳐 역사자료로 부르기로 한다. 역사를 연구하고 생각하기 위한 재료이다. 이 연구는 역사 자료가 매우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그래서 역사교육의 장이 매우 확장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역사 연구가 확대되면서 연구의 실마리로서의 역사 자료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가 정치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역사 자료와 서민의 일상생활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 자료는 크게 다르다. 문서 종류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도구, 혹은 낙서까지 포함한 도상(圖像) 자료 등 비문헌 자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비슷한 분야의 문제를 조사할 때에도 관점이나 접근 방식에 따라 사료 활용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정치 제도나 정책 결정을 다룰 때에도 법령집이나 의회 문서가 주로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가의 일기나 서한, 메모 등이 오히려 중시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어떤 제도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연구하려면, 법령집이나 의회 문서는 거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제도의 변천을 연대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제도가 실체가 아니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항상 다층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생각해야 하며, 이에 부응하여 사료의 검토 역시 신중함이 요구된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 사료란 무엇보다도 그 실마리이다. 역사 서술과 문학 작품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역사 문학이나 역사 소설이라는 분야도 존재한다. 확실히 뛰어난 문학 작품은 독자를 생생한 과거의 세계로 이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역사학과 문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서술의 성질뿐만 아니라 사료와의 관계에도 관여하고 있다. 즉 문학에서는, 설령 그것이 역사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사료에는 등장하지 않는, 즉 실존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나 사건을 작가가 생각해내어 삽입하는 것은 작가의 자유이다. 의도적으로 허구를 삽입함으로써 오히려 시대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학의 경우,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상의 존재를 삽입해서는 안 되며, 존재의 확증이 없는 것은 추정이란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서술, 자신의 논의를 성립시키고 있는 사료가 허구가 아니라 실재해야 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추론

을 하거나, 추리해 보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기보다는, 정보원으로서의 사료에는 항상 한계가 있으며, 게다가 그 취급에는 해석이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이상,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역사상을 그리는 것도 어렵다.

자신의 논증 근거를 명시하거나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료는 실마리이면서 동시에 증거이기도 하다. 각각의 사료에 대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증은 항상 필요하다. 각각의 질문을 풀기에 적합한 사료인지에 대한 가늠도 필요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조문서도 왜 그런 위조문서가 작성되고 전해졌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한 이상, 경우에 따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료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 무엇을 묻는가,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사료가 적합한가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나. 역사자료의 종류

<표 II -1> 역사자료의 분류

역사 자료	자연 ·자연물	우주·지구·대기·해양·지형·기후·생물·비생물			非문헌 자료		
	자연·자연물+인간 행위의 행위가 가해진 것		환경·풍토·인간·가축·농작물·미생물				
	인간의 행위가 가해진 것	물건으로서 있는 것	경관·풍경	도시, 취락, 삼림, 산야, 해변, 호소, 농지, 목장			
			건축물	항만, 도로, 공항, 교량, 운하, 성벽, 사찰, 서원, 가옥			
			용구 ·기기	생산용구		석기, 농구, 공구, 기계	
				운반·이동 용구		수레, 마구, 배, 자동차, 비행기, 열차	
				생활 용구		의류, 식료, 집기, 가구	
				전쟁 도구		칼, 활, 투석기, 화포, 탄환, 폭탄, 각종 병기	
	통신 기기	전화, 무선, TV, 컴퓨터					
	인간의 의도·의식을 드러내는 것	형체가 없는 것	음성사료	음악, 가요, 레코드, 테이프, CD			
기억			듣기(구술)				
의식·관념			국가, 사회, 조직				
전승자료			풍속, 관습, 행사, 예술, 예능, 기술,				
언어·용어			지명, 인명, 성씨				
형체가 있는 것	화상·영상· 도상사료	회화·조각·사진·회도·지도·도면·영화·비디오		準문헌 자료			
		문자 사료	전적·문서·비문·기록·서한·장부		문헌 자료		

다양한 역사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 제시한 도표는 한 가지 방안이다.⁴⁾

역사 자료는 크게 나누어, 인간이 어떤 행위를 가한 결과로 만들어져 남겨진 것과 그렇지 않은 자연과 관련된 것으로 양분된다. 자연이 왜 역사 자료에 포함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무대가 된 장소의 지형이나 기후 같은 자연 지리적 조건, 생물로서의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생태학적 조건 등은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이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이들에 관한 정보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문헌이나 지도나 도상, 혹은 건축에 사용된 목재 등의 남겨진 물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인간이 자연 조건에 작용한 결과로 남겨진 경관 혹은 풍경은 자연과 인간 행위의 양측이 관여하는 경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관으로 보이는 논밭에, 청동기 시대농경지의 이랑 유구가 드러나거나, 유럽의 경우라면 고대 로마 시대의 토지 구분의 흔적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혹은 특이한 토양의 용기 형태로부터 과거의 고분이나 성곽의 존재가 밝혀지는 것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사료의 분류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생각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법은 문헌사료와 비문헌 자료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혹은 문자 자료와 비문자 자료로 표현하는 편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오랜 역사학에서는 '史'라는 문자(「史」는 또한 「문서」를 의미하기도 함)가 시사하듯, 사료란 무엇보다 문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역사학에서의 질문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질문 방식이 변함에 따라 사료 역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왔음을 표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역사학 연구의 질문뿐만 아니라, 현재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의 결과로 문헌과 비문헌이라는 이분법으로도 해결되지 않게 되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매체 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사물 역시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사물도 역사를 말해준다. 사물이 말하는 역사라고 해도,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물체로서의 사물이 역사를 읽어내는 실마리가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도시 내부의 건축물이나 공간 배치, 거리 구조, 혹은 도시 성벽의 형태 등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물건'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이상, 거기서 역사적 변천을 읽어 내거나 지배자의 정치적 의도, 종교관 등에 접근하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식민 도시는 직교하는 축선을 중심으로 한 바둑판 모양의 거리 구조를 특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후세에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는 후대의 경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장안(長安) 등 중국 도성의 예도 그러하다.

도구나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다. 각 시대마다, 각 사회가, 혹은 각 사회 계층이 어떤 도구나 기기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는 사람들의 활동 가능성과 한계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실

4) 福井憲彦, 『歴史學入門 新版』, 岩波書店, 2019, p.17.

마리이다. 현재의 인터넷 같은 통신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보 교환에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가전제품 등도 마찬가지다.

물건 자체가 그것들을 생산하는 체계나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들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의 체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총출동하여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수리 시설 같은 존재는, 오히려 지역 사회 관계의 양상을 탐구하는 실마리가 된다. 더 직접적으로 농업 생산과 농기구, 해상 교역과 선박, 산업화와 기계 같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물건이 역사를 묻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이자 증거로서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

수공업이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기계류를 보존하려는 산업고고학, 나아가 그것들을 원래 환경에서 작동시켜 전승하려는 생태박물관(eco-museum) 기획 등은 모두 사물이 역사를 말할 수 있다는 인식과 연결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역사 자료는 디지털화된 텍스트, 이미지, 자료, 내러티브 및 역사적 설명과 같은 역사 자료이다. 디지털화를 통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과거의 정보에 접근하고, 기존 정보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 이 정보와의 새로운 관계, 과거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보다 복잡한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자료는 과거를 조사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디지털 자료가 교육 전반, 특히 역사교육에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아직 개발 및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한편으로 디지털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fake news)의 확산은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광범위한 시대와 관련된 잘못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 대한 적대적인 견해와 관련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유형의 학습을 최적화하고 역사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보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2. 선행 연구

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경험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2014 서울형 토론 모형』(2014)을 개발했다. 2019년 말에는 3종의 자료, 즉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역사, 여성, 노동, 생태환경 등의 규범을 다룬 『국제기준과 함께 생각해 보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학교에서 민감하고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원칙과 사례를 논의한 유럽평의회 저작물을 번역한 『논쟁 문제 가르치기』, 서울의 여러 급별의 학교 그리고 다양한 교과에서 일궈낸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를 담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집』를 발간

해 ‘2020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료집’이란 이름으로 서울시교육청 블로그를 통해 보급하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에도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역지사지형 공존형 토론 수업』(2023)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역사교육자료센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성과물도 탑재함으로써 참고 체계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제도적 기반 위에서 민주시민교육 실시함으로써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제8331호, 2022. 1. 6. 시행, 제9505호, 2025. 3. 24. 일부개정, 2025. 3. 27. 시행)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제5조)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를 학습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제9098호, 2024. 1. 11. 일부개정, 시행)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다.

2025 서울교육 주요업무(정책기획관-10304, 2024. 12. 30.)와 관련해 “다양한 역사자료를 기반으로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며 역사를 통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천 역량을 키우는 역사교육”을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역사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료 축적 및 공유를 위한 역사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역사교육 전문성 제고 및 정책연구 실시를 위해 역사교육자문단의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2025 역사·통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민주시민교육과-2236, 2025. 2. 19.)에서 역사교육자료센터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으로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한 내실화 기반 모색,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수업 활용 지원, 교사, 학생 등 현장의 역사교육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교육 자료 축적 및 공유, 역사자료심의기구 구성·운영을 통한 탑재 자료 선정 및 공유, 향후 전국 시·도교육청의 역사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광복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등 다양한 역사관련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협업 추진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 국가교육과정의 요구

공식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기본 설계도는 교육과정이고, 가장 상위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구축하려고 하는 역사교육자료센터의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식을 환기해 보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문제 인식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문제 인식

1.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을 통해 탐구 능력을 기르고 역사 지식을 형성하며,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인식하고 타자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설정하였다.

2. 성취 기준

- 탐구 단원 등장, ‘역사학습의 기초’
- [9역01-01] 역사와 역사 탐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역사 학습의 목적을 다각도로 탐색한다.
- [9역01-02]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통해 역사 탐구 방법을 익힌다.

3. 교수학습의 방향

- 과목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역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역사 탐구 능력을 기르고,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가 역사 탐구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여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연관 짓거나,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적성과 진로, 역사 인식과 문화 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요소 : 시민 참여, 인권, 다양성 등에 대한 역사적 사례 탐구 필요, 평화적 문제 해결 사례와 다양성 존중의 태도 함양

5. 생태 전환교육 관련 요소 : 개발독재, 환경 파괴와 같은 주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접근법이 요구됨.

역사교육자료센터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참고할 만한 요소들이 적지 않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진행될 교육과정 개정에서 현재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문제 인식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나 교육청 단위에서 현장의 원활한 교수학습을 위해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그 성과를 교육과정 삼입하여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센터가 선순환의 관계를 가지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역사교육자료센터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한 역사교육 권고안도 교육과정에 반영해 역사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역사교육의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다.

다. 자료에 기반한 주제 중심의 역사교육

연대기에 기초한 통사 위주의 학습은 사실 지식의 암기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역사 학습은 학생들로부터 기피를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수업이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되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다. 그 대안으로서 연대기적 흐름을 존중하되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서 서술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제 중심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본다고 할 때, 기존의 틀을 깨보려는 시도가 이미 이뤄진 적이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시절 한 출판사가 사료집 형태로 구성된 사료 탐구형 『한국근현대사』를 출간하였다.⁵⁾ 주제 중심의 구성이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교과서 서사를 파괴하고 과격적으로 탐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탐구를 지향한다고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교과서 개발자와 출판사 그리고 검정에 참여했던 이들 모두 큰 결심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채택률은 낮았지만 의미있는 시도로 기록될 것이다. 이후에는 역사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 상황을 전제로 차시를 계산해 단원을 구성하고 주제를 배치한 교과서도 등장하였다.⁶⁾ 기존의 관성화된 교과서 구성 방식이 오랫동안 굳어져 내려오는 상황에서 현실의 학교 수업을 고려하여 주제의식을 담아 보려는 진일보한 시도였다.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으로는 <표 4>의 구성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⁷⁾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사실 지식의 효율적 주입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 의식을 살리되, 학생들을 학습의 중심에 세우고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탐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탐구는 학생들의 현재적 삶과 연관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실천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논쟁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역사가 해석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논쟁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대개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더불어 사는 과정에서 논쟁적 문제를 다루고 서로 다른 생각을 표출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할 수 있다.

정치적 극단화가 나타나는 배경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소통하고 대화하기보다는 자기가 관계를 맺고 있는 혹은 자기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동조 집단 내에서의 사일로에 갇혀 생각을 공유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진 상황이 있다. 동조 집단의 강한 유대는 반대로 경계선 밖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적대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교차하는 것은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훈련에 중요한 부분

5) 한철호 외,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7.

6) 이인석 외,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0; 왕현중 외, 『한국사』, 두산동아, 2014.

7) 방지원·윤세병 외, 『교육자치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pp.70-71.

이다.

그래서 탐구는 말 잘하는 학생 혹은 토론에서 승리하는 학생이 아니라 타자의 다른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해결점을 찾아 나서는 자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며 사회적 실천의 영역까지 손이 닿는 수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주제를 중심으로 탐구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원적 시각을 확보하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사안을 다룰 수 있다. 여기서 가치는 영웅화하거나 낭만화한 측면을 상대화하거나,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역사 기억을 음지에서 양지로 소환하여 기존의 주류 기억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럴수록 논쟁성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지금까지의 문제인식을 반영하여 자료를 구성하거나 자료를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 -2> 주제 수업 구성 방안

주제		
이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진술한다. 각 주제를 3~5시간 수업 가능한 형태로 제안한다. 해당 주제 아래 이뤄져야 할 교육활동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교육과정은 탐구와 실천을 위한 학습 경험의 총체로서 교육과정을 진술한다.		
필수 요소	내용	
(1)	글로벌-지역-국가-지방	국가 서사를 상대화할 경우 글로벌·지역·국가·지방 차원, 자율적 시민 사회의 존재 차원, 다원적 행위자 혹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찾아 진술한다.
(2)	시민 형성	배제적 국민-주체적 국민 사이, 시민, 시민 사회의 조직·사상·제도·운동을 아우른다.
(3)	행위자 관점	구조와 구별되는 행위자의 관점에 천착한다. 이때 행위자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 기구일 수도 있다. 민주화를 능동적 행위자의 선택이 이룬 결과로서 역사를 이해한다.
(4)	논쟁성	복수의 역사, 역사의 다원성을 드러낼 수 있는 논쟁적 요소를 주제 속에서 찾아본다. 더불어 논쟁을 위한 논증 과정에서 학습자가 읽고 쓰고 말하는 과정을 함께 고려한다.
(5)	기억을 둘러싼 투쟁	기억과 기념을 둘러싼 투쟁, 기억의 정치, 공공 기억 문제와 관련지어 접근한다.

기존의 교과서 구성을 보면 일단 국가 중심의 정치사가 나오고 사회, 경제, 문화 영역의 역사를 대개 국가사의 맥락에 귀속시키거나 혹은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맥락 없이 배우고 통사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이러한 구성 방식을 지양하고 주제라는 말에 담긴 문제 인식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안해 본다.

설정된 주제를 가지고 3~5차시 수업을 한다면 어떤 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교사-학생, 학생-학생이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해 볼 수 있을까 디자인해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제라고 하면 통사(연대기)는 버리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역사 속의 변화나 지속성을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 흐름을 의식하되 시민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주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라.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의 제안

역사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집적한 허브로, 교사와 학생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관한 방안이 교육자치 시대를 대비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도 있다. 지역단위 교육과정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관련 플랫폼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⁸⁾ 교육과정 플랫폼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의 토대가 된다. 교사별로 자기 교육과정을 가지는 경험은 국가교육과정의 분권화 과정이자 그 자체로 민주화의 반영이다. 교사의 자기 교육과정 구현은 2000년 초반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일어난 배움책 갖기 운동이 하나의 사례이다. 다만 교과서를 대체한 학습지나 배움책을 넘어서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수업을 구성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웹상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플랫폼은 지속적인 축적과 관리가 가능하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쉽게 다양한 자료의 탑재와 링크를 구축할 수 있고, 지역 차원의 자료실, 학생 혹은 교사용 자료실을 구축할 수 있다. 교육과정 플랫폼의 제작과 운영은 링크, 태그(라벨), 아이콘 기능이 활용하되 국가, 지역, 교가 함께 만드는 상호 소통 가능한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 제공 방식은 단순 집적이 아닌 워크숍, 참여형 수업을 염두에 두며 상시 업데이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유럽역사교육자연합(유로클리오)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웹상 플랫폼인 <히스토리아나(Historiana)>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역사교육 개선 활동이 진화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형태라 볼 수 있다(자세한 것은 III의 내용 참조). 유로클리오는 강연이나 워크숍을 통해 역사교육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정책 권고안을 도출함으로써 유럽의 역사교육에 대한 논의 수준을 높여왔다. 역사교육에서 다원적 관점의 개념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왔고 역사교육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90년 유럽평의회는 유럽 교육발전 및 연구 기관 컨소시엄(CIDREE)을 위해 유럽 각국의 역사교육과정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약 50개 교육 체계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 20년간 유럽에서 역사 교육의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많은 학교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이 개발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내용 학습을 넘지 못

8) 방지원·윤세병 외, 『교육자치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역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p.126.

했기 때문이다.

이때 작성된 보고서는 유럽평의회와 협력해 역사교육의 우수 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NGO) 설립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1991년 12월 유럽평의회는 브뤼헤에서 '새로운 유럽에서의 역사학습과 교육'을 주제로 유럽 전역의 역사교사들을 초청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참석자 중 많은 이들이 역사 교육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협력하고 다른 동료들과 협력할 준비를 했다. 1년 후 유럽평의회와 네덜란드 역사교사협의회는 다른 나라의 역사교사 협의회 대표 약 30-40명을 스트라스부르로 초청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그들은 유럽의 역사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래서 1993년 네덜란드 역사교사 협의회 주도로 네덜란드의 리우와르덴에서 약 14개 유럽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유로클리오의 창립 회의였다.

새롭게 결성된 유로클리오는 세 가지 주요 사업을 전개했다. 첫째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의 프로그램으로 붕괴된 소련 지역에서 전 소련 공화국의 역사교육자 및 교육과정 관리자와의 협력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역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적·해석적 능력을 키우는 것, 옛 역사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적 내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역사교육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유로클리오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평의회는 회의와 워크숍을 주최할 수는 있었지만 경험이 풍부한 역사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했다. 이 시기에 유로클리오가 급속히 성장했다. 2000-2001년까지 참가 단체 수는 76개로 증가했다. 유로클리오가 주최한 세션들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유로클리오가 구성한 여러 국가에 걸친 팀이 개발한 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1990년대 후반 유로클리오와 유럽평의회가 함께 작업한 동유럽 지원 사업이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고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평화협정과 함께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유럽평의회는 새로운 국가들에서 계획된 역사교육 개혁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다. 유로클리오는 유럽평의회 지원에 이 지역에서 많은 역사교육 워크숍을 조직하고 공동의 교재를 만들었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는 유럽평의회 프로그램인 '20세기 유럽 역사교육 및 연구'였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출판물을 포함해 『20세기 유럽 역사교육 핸드북』을 출간했으며, 유로클리오는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사 적극적으로 워크숍을 조직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나온 주요 저서로는 『20세기 유럽 역사 교육』(2001), 『역사 교육에서의 다원적 관점: 교사 가이드』(2003), 『유럽 역사 교차로: 유럽 역사 5대 전환점의 다원적 관점 + CD-ROM』(2006),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관 안내서』(2009) 등의 출판물이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다. 이 중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몇 가지 연도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자료 CD-ROM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에 역사교육 자료를 보급할 수 방법을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럽 전역에서 수집한 다양한 문헌 및 시각 자료를 CD-ROM에

수록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완료했을 때, 유로클리오는 새로운 기술에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웹사이트에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이었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할 수 있으며 유럽 지역 역사교육자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자 능동적인 학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히스토리어나 웹사이트(Ⅲ의 내용 참조)가 탄생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로클리오의 국제 역사교육자 팀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주제별 사례(워크시트) 개발했으며, 히스토리애나의 기반이 되는 주제별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2014년부터 유럽 역사의 주요 사건으로 꼽히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히스토리애나 모듈을 개발했으며, 주제와 내용을 확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히스토리애나와 같은 사례로서 ‘역사와 우리 자신에 직면하기(Facing History and Ourselves, 이하 FHAO)’가 있다(Ⅲ의 내용 참조). FHAO는 197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브루클린에서 사회과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출발한 비영리 재단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북아일랜드, 남아공, 멕시코, 콜롬비아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홀로코스트에 초점을 맞추되 제노사이드, 인권 침해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역사와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도덕적 문제를 연결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균형 잡힌 수업을 위해 지적 엄격함, 정서적 참여, 윤리적 성찰을 강조한다.⁹⁾

마. 사회적 차원의 역사교육

역사 지식의 광범위한 사회적 유통. 역사 지식은 학교 교실이나 전문 역사서에 갇혀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통된다.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역사교육이 좁게는 학교 안에서 역사 교과를 교육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학교 밖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 지식이 유통되고 역사 학습이 이뤄진다. 역사교육을 논의할 때 사회적 성격을 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적 차원의 역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의식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자료센터 역시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는 국민국가의 성립과 함께 등장하는 공교육 체제 속에서 주요 교과의 하나로 존재해 왔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학교 교과목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집단정체성을 강화하는 기제로서도 작동해 왔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목적으로 역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 기울여온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적 차원에서 역사교육 개선 사업의 기원은 적어도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며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¹⁰⁾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1회 국제 평화회의에서

9) Teaching Strategy-Head, Heart, Conscience, FHAO, 2021년 8월 31일. <https://www.facinghistory.org/resource-library/head-heart-conscience>

10) 역사교육 개선 활동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교과서 및 교구 개발 안내서(A Handbook for the Improvement of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s as Aids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많은 평화주의자들과 국제주의자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교과서를 성토했다. 많은 지면이 할애된 전쟁 관련 서술을 대폭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회의에서 평화교육이 하나의 주제로 거의 매해 열렸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잠정 중단되었다. 전쟁 전후의 교과서들은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겼다. 가령 프랑스와 독일의 교과서는 각각 독일인을 돼지머리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하고 프랑스인을 원숭이로 묘사하기도 하였다.¹¹⁾ 그러나 전쟁은 오히려 전쟁 발생의 한 원인이 국가 간의 불이해와 증오에 기인하며 그것은 학교 교과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교과서 개선 운동은 이전보다 지역적으로 더 확산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에스파냐, 네덜란드, 폴란드, 일본 등 여러 지역의 교사 단체와 역사학자 단체들이 증오심을 유발하는 교과서 문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령 프랑스 교원노조는 “증오심을 가르치는 모든 책들을 불살라 버리자”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교원노조는 국제연맹에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여 적개심을 조장하는 교과서를 배격하고 국제적인 역사 교과서의 편찬을 요구하였다.¹²⁾ 국제연맹의 설립으로 교과서 개선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국제연맹의 산하 기구인 지적 협력 국제위원회(ICIC)는 수년 간 여러 나라의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에스파냐의 대표 카자레스는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의 개선을 ICIC의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의 이름을 딴 카자레스 결의안은 1926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표현들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었다.¹³⁾ 카자레스 결의안 이후 역사 교과서 개정 논의는 지속되었고 1937년에는 ‘역사교육에 관한 선언’이 발표되었다.¹⁴⁾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국제 사회의 역사 교과서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이러한 활동의 토대 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교과서 개선 활동이 재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교과서 개선 활동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유네스코와 유럽 평의회였다. 1945년 11월에 창설된 유네스코는 처음부터 ‘국제이해교육’을 내걸고 교과서 개

Paris, UNESCO, 1949, pp.10-15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 안내서는 국제이해교육 교재의 개발에 필요한 일련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고전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교과서 개선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건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김승렬 · 이용재, 『함께 쓰는 역사: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 교과서 개선 활동』, 동북아역사재단, 2008, p.88.

11) 오토-에른스트 쉬테코프 저, 김승렬 역, 『미래를 건설하는 역사교육: 1945-1965 유럽 역사 교과서 개선활동』, 역사비평사, 2003, p.142.

12) 곤도 다카히로 저, 박경희 역, 『역사 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p.20.

13) *A Handbook for the Improvement of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s as Aids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aris, UNESCO, 1949, pp.156-160.

14) 팔크 핑엘 저, 한운석 역, 『교과서 연구와 수정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2010, pp.28-29.

선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유럽평의회는 각료 위원회는 유네스코와 공조하면서 교과서의 유럽 부분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역사 교과서 관련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 교과서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1953년부터 1990년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열렸다.¹⁵⁾

제1차: 역사교육에서의 유럽 이념(독일 칼프, 1953)

제2차: 중세(노르웨이 오슬로, 1954)

제3차: 16세기(이탈리아 로마, 1955)

제4차: 17~18세기(프랑스 르와이요몽, 1956)

제5차: 1789~1871년(네덜란드 쉐베닝겐, 1957)

제6차: 1870~1950년(터키 이스탄불과 앙카라, 1958)

제7차: 유럽의 학교 역사교과서 속 종교(벨기에 루뱅, 1972)

제8차: 1945년 이후 유럽의 중등학교 역사·지리·공민 교육용 자료 협력(독일 브라운슈바이크, 1979)

제9차: 역사와 사회과 - 교과서 분석 방법(독일 브라운슈바이크, 1990)

교과서 개선 논의는 초기부터 게오르크 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가 유럽평의회와 중요한 파트너였다.¹⁰⁾ 유럽 평의회는 역사 교과서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의 첫 단추도 실은 에케르트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역사교원노동조합의 핵심인물이었던 칼 디트리히 에르트만, 펠릭스 메쉴슈미트와 함께 에케르트가 유럽 평의회를 설득하면서 제1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국제 역사 교과서 대화의 경험이 풍부한 노르웨이의 호콘 비간데르가 의장으로 선출되고 프랑스의 에두아르 브뤼레이, 영국의 에드워드 단스, 독일의 에케르트가 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권고안을 작성할 위원에 선출되었다. 이들은 칼프 회의뿐만 아니라 제2차~제6차의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들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유네스코의 국제 역사 교과서 대화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들이 탁자에 둘러 앉아 공개 대화로 각국의 교육활동과 서로의 견해를 비교하고 토론한 칼프 회의의 형식은 이후 진행될 회의의 틀이 되었다. 학교 현장의 교사와 역사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지각 변동은 유럽 평의회와 역사교육 논의에도 변화를 주었다. 유럽 평의회와 동유럽 국가 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더 넓

15) 유럽 평의회는 역사 교과서 개선 활동에 관한 1953년부터 1990년까지의 국제학술대회의 결과는 권고안의 형태로 정리되었고, *Against bias and prejudice: The Council of Europe's work on history teaching and history textbook*,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1995에 수록되어 있다. ‘편견과 선입견에 맞서’라는 책자의 제목이 교과서 개선 사업의 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진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의 논의가 시작되었다.¹⁶⁾ 1989년 9월 22일의 논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있던 동부와 중부 유럽의 역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축으로 유럽 평의회 활동이 이동하였다. 이전에 쌓아 놓은 역사교육 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유럽(New Europe)’차원의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존 서유럽 국가들이 역사교육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련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유럽의 역사교육(벨기에 브뤼헤, 1991)
- 변동하는 국경과 관련한 1815년 이후 역사의 학습(네덜란드 레이와르덴, 1993)
- 역사교육과 유럽 의식(그리스 델피, 1994.5.11~14)
- 유럽의 역사·민주적 가치·관용: 민주주의 이행기 국가들의 경험(불가리아 소피아, 1994.10.19~22)
- 민주주의 이행기 유럽 국가들의 학교 역사교육 개혁(오스트리아 그라츠, 1994.11.27~12.1)
- 역사교육과 신뢰 형성: 중부·동부 유럽의 경우(러시아 스몰렌스크, 1995. 4.26~28)
- 상호 이해와 유럽사 교육: 도전, 난관 그리고 접근법(체코 프라하, 1995. 10.24~28)
- 민주주의 이행기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학교 역사 교과서의 준비와 발행(폴란드 바르샤바, 1996)

1991년의 브뤼헤 회의는 ‘새로운 유럽’의 역사교육에 관한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거의 모든 유럽 국가의 역사학자, 역사교사를 비롯한 역사교육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50여 개 국가의 교육과정, 교수요목을 비롯한 역사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역사와 역사교육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각국의 상황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논의와 협력 작업의 초석이 되었다. 헬싱키 회의에서 제시된 25개 주제에 대한 보충이 있었고 유럽 공동 교과서의 발간에 지지를 표명하였다.¹⁷⁾ 역사교사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는 유럽평의회의 권고에 따라 이듬해에는 유럽역사교육자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 Euroclio)가 발족하였다.

한편 구 유고연방 지역의 유혈 사태는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상당히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란 인식 속에 유럽 평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 회의가 1993년도에 열렸

16) Recommendation 1111(1989) on The European dimension of education

17) 프레데리크 들루슈 편, 윤승준 역, 『새 유럽의 역사』, 까치, 2002를 말한다. 1992년에 발간되었으며 유럽평의회가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교과서’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각 국가에서 쓰이는 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교과서 보충 도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어로 처음 출간된 이후 독일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도 번역·출판되었다.

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환기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유럽 사회가 영토 욕심, 공격적 민족주의,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등으로 파괴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일탈로 구 유고연방 지역의 사람들이 증오와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분쟁을 끝내고 함께 새로운 유럽 건설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가 내의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racism), 외국인 혐오(xenophobia), 앵골레랑스(intolerance)에 맞서 싸운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 유럽 평의회의 협력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역사교육이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에 기여하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국가, 종교, 사상 간의 긍정적인 상호 영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역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역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유럽 평의회는 기존의 성과를 종합하면서 역사교육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규범으로서의 권고안을 만들었다. 1996년 권고안과 2001년 권고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¹⁸⁾

1996년 권고안인 ‘유럽의 역사와 역사교육’(부록 참조)은 역사교육이 전반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려는 첫 시도로 볼 수 있다.¹⁹⁾ 총 16개항으로 일반적 원칙(1~13항)과 실행 방안(14~16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과 학습 방법을 경험함으로써 편견과 왜곡을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사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역사학자와 역사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과 혁신적인 수업 방법 개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 작업, 학교 안팎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설치나 활동이 언급되어 있다. 기존의 논의 사항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빠진 영역에 대한 보강도 이루어졌다. 가령 유럽 평의회가 관심을 기울여 왔던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소수자(minorities)의 역사와 문화를 역사교육의 중요 내용으로 선정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약자로서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거의 없었는데, “여성이 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적절히 이루어져 한다.”(14항 ii)라고 명시함으로써 여성사가 강조되었다.

2001년 권고안인 ‘21세기 유럽의 역사교육’(부록 참조)은 1996년 권고안의 내용을 범주화하고 보다 심화시킴으로써 현재로서는 가장 체계화된 권고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21세기 역사교육의 목표, ② 역사의 오용, ③ 유럽적 차원의 역사교육, ④ 교수요목 내용, ⑤ 학습 방법, ⑥ 수업과 기억, ⑦ 신규 및 경력 교사 연수, ⑧ 정보·통신 기술.²⁰⁾ 흥미로운 부분은 ‘역사의 오용’을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 개선 활동부터 일관된 유럽 평의회 역사교육의 우선적 과제는 편견과 선입관의 극복이

18) Vienna Declaration(Vienna, 9 October 1993). 1995년에는 빈 선언과 관련된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Recommendation 1275(1995) on The fight against racism, xenophobia, anti-Semitism and intolerance

19) Recommendation 1283 (1996) on History and the learning of history in Europe

20) Recommendation 15(2001) on History teaching in twenty-first century Europe.

었다. 그것을 평화로운 공동체인 유럽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 선전과 이데올로기 조작을 위해 역사교육에서 자행되는 역사적 사실의 은폐나 변조 등 7가지로 역사의 오용을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⑤에 역사적 오용에 대한 비판적 학습이나 ⑥에 홀로코스트나 인종 청소를 일으킨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발 방지의 내용을 넣음으로써 역사의 오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진술한 권고안 외에도 보완적 성격의 권고안, 국경을 넘어선 역사 대화에 필요한 권고안 등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²¹⁾

21) Recommendation 1346(1997) on Human rights education; Recommendation 20(1997) on Hate speech; Recommendation 1396(1999) on Religion and democracy; Recommendation 13(2000) on European policy on access to archives; Recommendation 1(2000) on Fostering transfrontier co-operation between territorial communities or authorities in the cultural field; Recommendation 24(2000) on Development of European Stud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Recommendation 170(2005) on Intercultural and inter-faith dialogue: initiativ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horities; Recommendation 1751(2006) on Cultural diversity of the North Caucasus; Recommendation 1804(2007) on State, religion, secularity and human rights; Recommendation 1880(2009) on History teaching in conflict an post-conflict areas.

Ⅲ. 역사교육자료센터 운영 참고 사례

1. 국내

역사 학습을 위한 플랫폼 형태의 국내 사이트는 시도교육청 산하의 교육 연구 정보원이 운영하는 교수 학습 센터나 교과서를 출판하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역사교육 플랫폼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례가 없다 보니 이에 대한 연구도 빈약하다.

아쉬운 상황이지만 민주화운동 관련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참고해 볼 만하다. 이들 기관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자료로 전환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사이트를 통해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 기념관 및 민주화 운동 기념 공원 운영, 민주화 운동 기념·교류 사업, 민주주의 교육, 자료 수집 및 관리, 학술 연구, 국제협력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²²⁾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소속의 자료관은 동법 제6조 2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에 근거하여 구축되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문서, 사진, 영상, 박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료를 수집하고,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는 수집형 메뉴 스크립트 기록관이다. 자료관은 자체 개발한 사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기록을 정리, 등록, 기술하여 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DB를 구축하였다.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으며 약 23만 건을 하나의 DB로 모았고, 이는 ‘민주화운동 사료 DB’가 되었다. 이 DB를 활용하여 자료관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시작했다.²³⁾

22)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설립 목적 <https://www.kdemo.or.kr/board/intro/vision.do>

23) 노명환,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5·18 민주화 운동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52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오픈 아카이브, 민주화운동 사전, 발간 교육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림 III -1]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화면

1) 오픈 아카이브(OPEN ARCHIVES)²⁴⁾

가) 운영 주체

오픈 아카이브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자료전산화 브랜드이다.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아카이브는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법 제6조 2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에 근거하여 한국 민주화 운동 사료를 수집, 정리, 보존한다. 아카이브는 민주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 사료를 사회로 다시 돌려주어 민주화 운동 이후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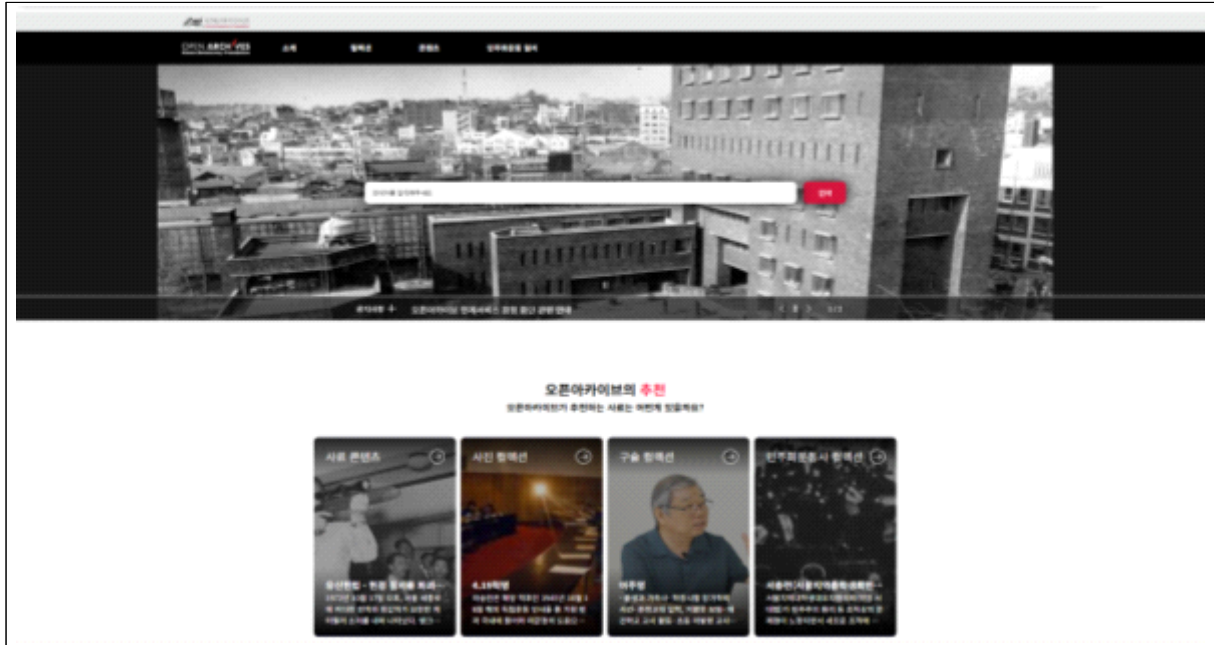
나) 연혁

2011년부터 능동적으로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 아카이브(OPEN ARCHIVES)’를 구축했으며, 기존 DB와의 연동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역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해당 아카이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디지털 원본이나 콘텐츠 등을 확인하고 검색하는 방식이다.²⁶⁾

24) <https://archives.kdemo.or.kr/main>

25)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2013.05.22.][법률 제11781호, 2013.05.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02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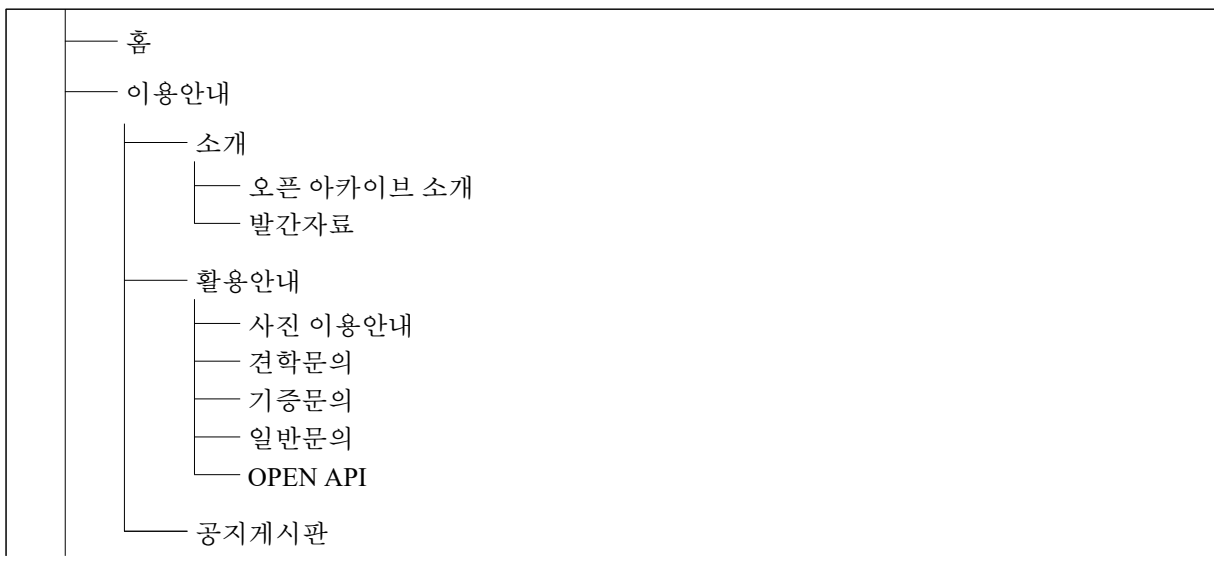
- 2011년 : 특정 운영체제나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시작한 프로젝트
- 2015년 : 기록정보를 조직하는 도구로서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집중
- 2021년 : 이용자 친화형 아카이브를 목표로 검색기능과 디자인 개선, 이용자 효율적 기록 탐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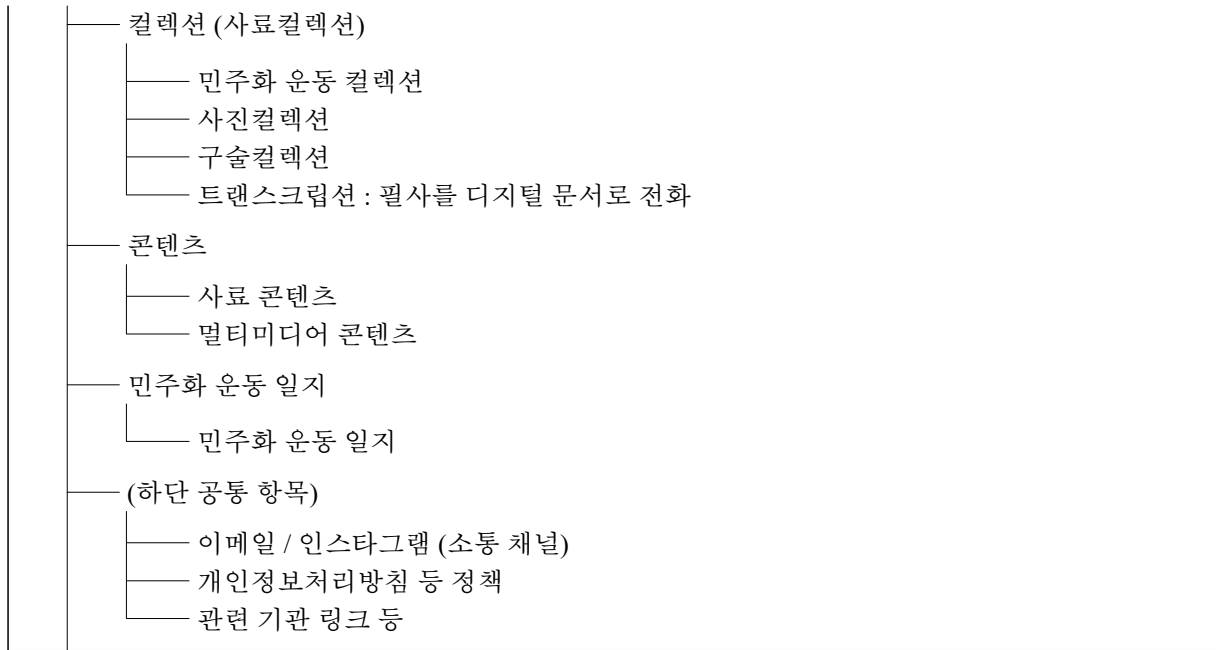
[그림 Ⅲ-2]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홈페이지 화면

다) 사이트 구성

<표 Ⅲ-1>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사이트 구성



26) 노명환, 위의 글, p.53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사이트는 첫 화면의 상단에 4개의 영역(소개, 컬렉션, 콘텐츠, 민주화 운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 (1) 소개는 오픈 아카이브 전체를 대표하여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는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발간자료를 소개하고, 사진 활용(저작권, 사용 절차, 비용, 포맷 등)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안내한다. 사료관 방문 및 견학 절차, 자료를 기증하고 싶은 개인이나 기관이 어떻게 연락해야 하며 어떤 조건인지 안내한다.
- (2) 컬렉션은 사료 컬렉션으로 민주화 운동, 사진, 구술, 트랜스크립션 등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 (3) 콘텐츠는 사료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 (4) 민주화 운동 일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민주화 운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연대기로 정리한 기록으로 민주화 운동의 주요 사건, 시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라) 사이트 구성 논리 및 특징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가장 특징적인 메뉴는 컬렉션과 콘텐츠이다.

- (1) 컬렉션(사료 컬렉션): 주요 주제별로 내용 설명과 관련 사료를 자료 유형에 따라 제공하

고 있어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때 유용하다.

- (가) 민주화 운동 컬렉션: 민주화 운동 관련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류된 자료들을 보여 준다. 연대기별로도 분류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검색하기 쉽고 시기별 수업 설계에 유용하다.
- (나) 사진 컬렉션: 사진으로 남겨진 민주화 운동의 장면들을 모아둔 컬렉션으로 주제별, 연대기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생산자·기증자·생산 일자 등 메타데이터를 제공해 자료 비판 학습에 적합하나, 일부 사진 설명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다) 구술 컬렉션: 주제별(시대별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 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가족운동, 재야운동, 해외 민주 인사 등)로 인터뷰나 구술 증언 형태의 자료. 운동 참가자, 목격자 등이 말한 내용을 녹음·전사한 자료가 영상으로 제공된다. 구술자의 이력과 구술 내용을 요약한 설명도 제공한다. 시대별·운동별로 정리된 증언 자료를 통해 현장성 있는 목소리를 접할 수 있으며, 영상 제공과 구술자 이력 설명은 학생 이해도를 높인다.
- (라) 트랜스크립션: 필사(전사)된 자료의 디지털 문서화. 손으로 쓰인 문서나 구술 등을 텍스트로 옮겨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한 메뉴이다. 원 자료를 디지털 문서로 옮겨 활용 범위를 넓혔으나, 분류·검색 체계가 부족해 특정 주제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콘텐츠: 유형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자료를 포함하여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 자체가 하나의 수업자료로 기능한다.

- (가) 자료 콘텐츠: 시간적 흐름과 주제별 탐구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단순 사건 나열을 넘어 증언·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어 학생들의 감성적 몰입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한다.
 - 민주화 운동 이야기: 월 단위로 자료 콘텐츠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서, 시간순 흐름과 특정 시기 중심 탐구가 가능하다.
 - 자료 이야기: 민주화 운동 관련 다양한 주제(1987년 명동성당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 - 명동성당 농성지 지 글 필사본, 80년 5월 광주를 기록한 월요모임의 사실보고서(Fact Sheet) #59,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사회 참여적 예술가의 기억, 아이들의 시로 보는 탄광촌, 민가협 활동을 기억하다, “사실을 바로 알자-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의 진상” 등)를 이야기 형식과 기록 중심으로 풀어낸 자료를 모아놓았다.
 - 역사 이야기: 인물 중심, 지역 중심, 사건 중심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단순한 연표가 아니라, 이야기와 증언 형식으로 풀어서, 사용자(학생 포함)에게 감성적, 비판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지역과 인물의 시각을 포함하고 있어서, 운동이 지역마다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개인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비교 탐구가 가능하다.
- (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상, 카드 뉴스,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선

호와 학습양식에 맞춘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시청각 중심 학습에 효과적이며, 수업 도입이나 발표 활동에 활용도가 높다.

마) 총평

-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는 사진·구술·영상 등 가치 있는 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료 유형별 분석 기법이 별도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교사나 학습자가 자료를 해석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일부 메뉴는 자료가 주제별·연대별로 정리되어있지 않거나 검색 및 필터 기능이 부족하여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콘텐츠가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되어있어 그 자체로 수업 이야기식으로 활용하기 좋지만, 설명식 전달이 대부분이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탐구 질문 형식의 서술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은 과거에 개발된 * 「사료로 보는 민주화 운동」 사이트 (<https://archives.kdemo.or.kr/display2/>)에서 제공했다. 사료 제시와 함께 학습 질문과 활동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묶음 자료를 한글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어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사이트는 오픈 아카이브 소개 페이지에 레거시 서비스로 작게 노출되어 있어, 교사들이 직관적으로 자료를 찾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사료로 보는 민주화 운동²⁷⁾

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사료를 활용하여 현장의 역사 교사와 함께 제작한 역사교육용 콘텐츠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9개 주제 즉,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960, 4·19혁명>, <1964, 한일회담 반대운동>, <1970, 전태일>, <1972-1979, 유신 반대운동>, <1979, 부마항쟁>, <1980, 5·18 민주화 운동>, <1987, 6월 민주항쟁>, <통일>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역사적 평가를 쉽게 내릴 수 없는 한국 현대사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였던 민주화 운동의 주요 사건을 발생 시기별로 다루고 있으며 역사 수업 시간이나 수행평가 및 자율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주제는 주제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사진과 음성 및 자막을 담은 플래시 동영상도 도입 부분에 배치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을 한다. 플래시 동영상 아래에는 4~7개의 소주제가 있어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에 맞는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문서, 사진, 영상, 신문 기사 등의 다양한 1차 사료로 구성하여 관련 주제에 관한 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사료를 통해 주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기능을 제공하고 사료 읽기 도우미를 제공하여 원문이 한문일 경우 한글로 해석하여 읽기 쉽도록 하였으며 사진 원본 보기는 편집되기 전 사진의 원본을 확대하여 크게 볼 수 있도록 하여 생산자, 생산 일자, 형태, 기증자 등 사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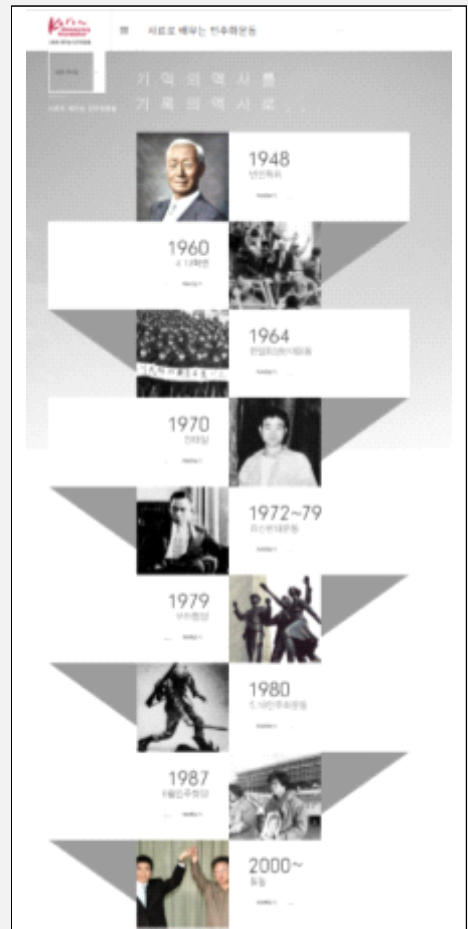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아카이브의 생생함을 전달하면서도 학습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된 학습 도구가 생각 나누기와 생각 상자이다. 생각 상자는 학습할 주제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하면 언제든지 클릭하여 열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여 메모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찾아보기는 주제와 관련된 도서, 영상, 관련 사이트 등을 소개하여 학습자가 관련 주제에 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학습지는 콘텐츠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게 하여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하거나 학생들의 심화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생각 나누기는 제시한 자료를 읽고 쟁점이 되는 문제를 제시하면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을 써서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댓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그림 Ⅲ-3]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 운동 홈페이지 화면

위 사이트의 장점은

- 9개 대주제가 시간대별로 배열되어 단원-차시-활동 설계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다.
- 1차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문서·사진·영상·신문)되어 있다. 각 소주제 페이지에 원문과 맥락 설명이 함께 있어 증거 기반 수업에 적합하다.
- 읽기 장벽을 낮추는 보조 장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료에 읽기 도우미(어려운 용어 풀이 / 원문 해석)가 붙어, 이질적인 텍스트(한자·옛 표기)도 수업 적용이 수월하다.
- 출처 검증과 정보윤리 교육에 유리하다. 사진 원본 보기·큰 이미지 보기로 메타데이터(생산자·일자·형태 등)를 함께 보여주어 사료의 신뢰도·진본성 토의를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다.
- 탐구·토의 활동의 발화점을 제공한다. 생각 나누기 문항이 페이지 곳곳에 삽입되어 주장-근거-반론 구조로 토론·논증 글쓰기 유도에 적합하다.

- 심화학습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찾아보기’가 도서·자료를 큐레이션 해 후속 탐구와 개별 프로젝트 설계가 쉽다.
- 형성평가·수행평가 연계도 가능하다. 일부 페이지에 연습문제 형태가 포함되어 과제 설계(사료 해석·사실-해석 구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소주제에 대한 사료 학습 후 간단한 질문을 통하여 사고력 신장을 유도하는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의 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많은 점²⁹⁾은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민주화 운동 사전³⁰⁾

가) 운영 주체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는 민주화 운동 사전 편찬위원회³¹⁾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사전』 편찬 요강³²⁾에 따라 편찬은 사전편찬위원회의 학술적 집단 토의로 편찬 범위와 기준³³⁾을 확정(민주화 운동 정의, 다루는 시기 1960년 4월 혁명~1993년 문민정부 이전, 시대 표기는 ‘○○○ 정권기’)한 뒤 사건을 기초 단위로 한 계층 구조(상위사건-하위사건-연관·배경,-단체)로 항목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물은 독립 항목이 아니라 사건·단체 맥락에서 서술하며, 1차 자료와 학술연구를 근거로 최소 각주 형식으로 인용한다. 실제 제작 공정은 집필 항목 선정 → 집필자 선정 → 원고 집필 → 감수 → 수정·재집필 → 검수 → 교열·윤문 → 웹 편집 → 웹사전 등재의 순서를 따른다.

나) 연혁

민주화 운동 사전편찬은 4월 혁명~1960년대, 1970년대 유신 이전, 유신체제기~전두환 정권기, 6월항쟁 이후~문민정부 이전까지를 구분하여 2~3년 주기로 원고를 구축하는 10년 계획(2019년~2028년)의 중장기 로드맵을 갖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계자료와 민주화 운동 용어사전, 웹사전 시스템 고도화까지 포함하여 장기적 발전 계획을 마련했으며, 원고 감수·수정·재집필·교열·윤문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27) <https://archives.kdemo.or.kr/display2/>

28) 신예진,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효용성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p.44-45.

29) 신예진, 위의 글, p.53.

30) <https://dict.kdemo.or.kr/>

31) <https://dict.kdemo.or.kr/introduction/committee/>

32) <https://dict.kdemo.or.kr/introduction/syllabus/>

33) <https://dict.kdemo.or.kr/introduction/guideline/>



[그림 Ⅲ-4] 민주화 운동 사전편찬 중장기 로드맵

다) 사이트 구성

<표 Ⅲ-2> 민주화 운동 사전 사이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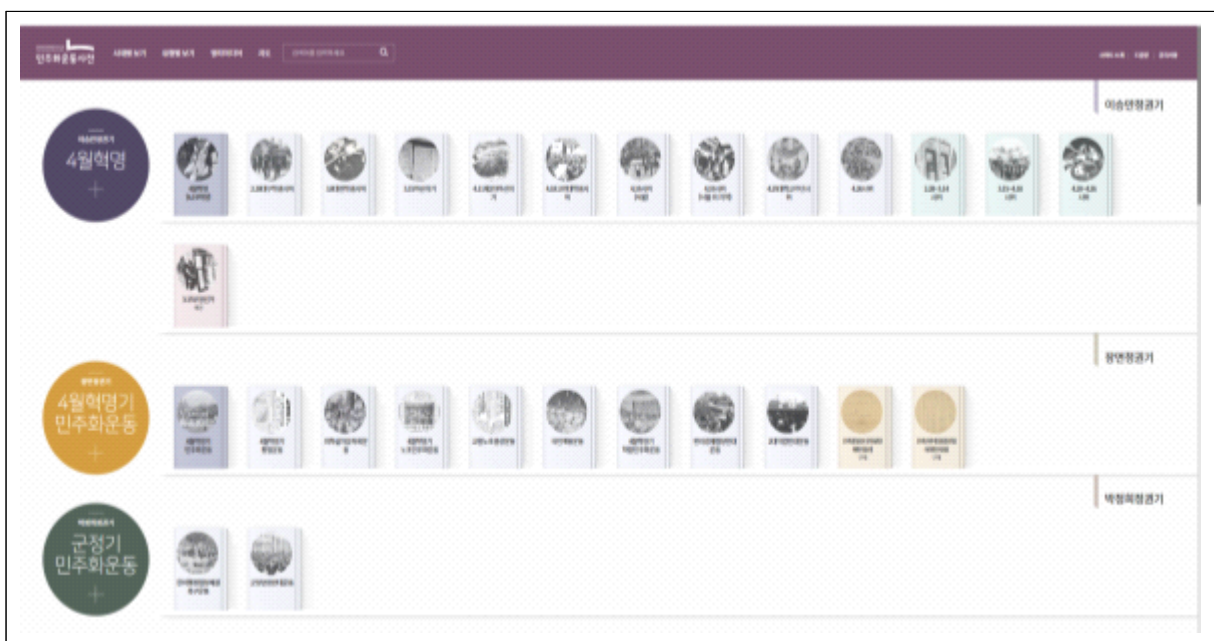
—	홈
—	시대별 보기
—	이승만 정권기 - 총 14건
—	장면 정권기 - 총 11건
—	박정희 정권기 - 총 62건
—	유형별 보기
—	사건 - 총 77건
—	단체 - 총 10건
—	멀티미디어
—	사건 - 총 686건
—	동영상 - 총 97건
—	지도 서비스
—	사이트 소개
—	사전편찬위원회 현황
—	사전편찬 요강
—	원고 집필 기준

(1) 시대별 보기: 민주화 운동을 정권기별로 분류하며, 현재 이승만 정권기 14건, 장면 정권기 11건, 박정희 정권기 62건의 항목이 등재되어 있다.

(2) 유형별 보기: 항목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사건 77건, 단체 10건을 제공한다.

- (3) 멀티미디어: 사전 항목과 연계된 시각 자료를 사진 729건, 동영상 97건 규모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원자료 중심의 학습·연구 활용을 지원한다.
- (4) 지도 서비스: 사건·지역·시대별 필터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시공간적 맥락을 시각적으로 탐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5) 사이트 소개: 사전편찬위원회 현황, 사전편찬 요강, 원고 집필 기준 등 편찬 체계와 집필 원칙이 제시되어 콘텐츠의 학술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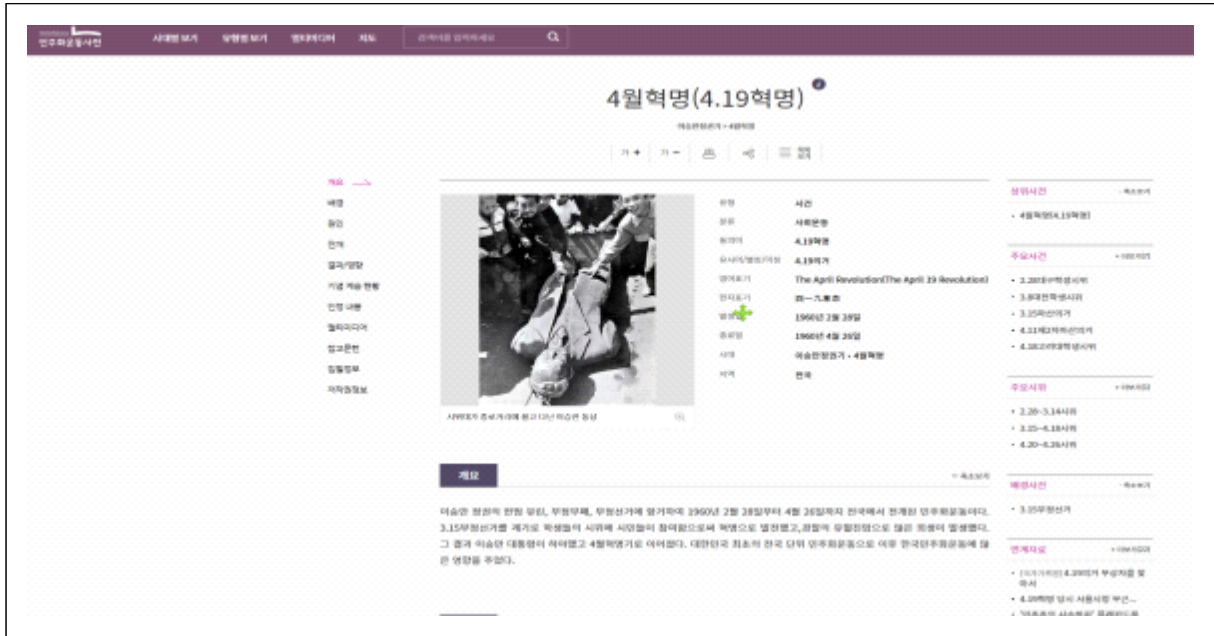
라) 사이트 구성 논리 및 특징



[그림 Ⅲ-5] 민주화 운동 사전 전체 보기 화면

- 가장 특징적인 메뉴는 시대별 보기와 유형별 보기이다. 둘 다 자료 검색 방식의 차이일뿐 주제별 동일한 페이지로 안내한다. 정권별로 시대를 구분해 사건을 표준 메타데이터와 관계 링크로 엮고, 개요-배경-원인-전개의 서술 블록으로 읽히게 만든 학술 사전형 정보 구조이다.
- 사건 중심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편찬 원칙이 ‘시대(정권기) → 시기 → 상위사건 → (하위)사건’ 순으로 짜여 있고, 항목 화면에도 상위사건, 주요사건, 주요 시위, 배경 사건이 관련 링크로 노출된다.
 -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항목 상단에 유형, 분류, 동의어·이칭, 영문·한자 표기, 발생·종료일, 시대, 지역 등 공통 필드가 고정 배치되어 비교·검색에 유리하다.
 - 단락형 서술 체계를 보여준다. 본문은 집필 기준에 따라 개요 → 배경 → 원인 → 전개(결과·영향 등)로 전개되어 사건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연계·증거 중심 설계이다. 각 항목은 ‘연계영역(인물·단체·사건 링크)·자료연계(출처·URL·유형·설명)·참고 문헌’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수업이나 연구에서 원자료로 곧장 접근하게 한다.



[그림 Ⅲ-6] 민주화 운동 사진 ‘4월혁명(4.19혁명)’ 검색 결과 화면

다)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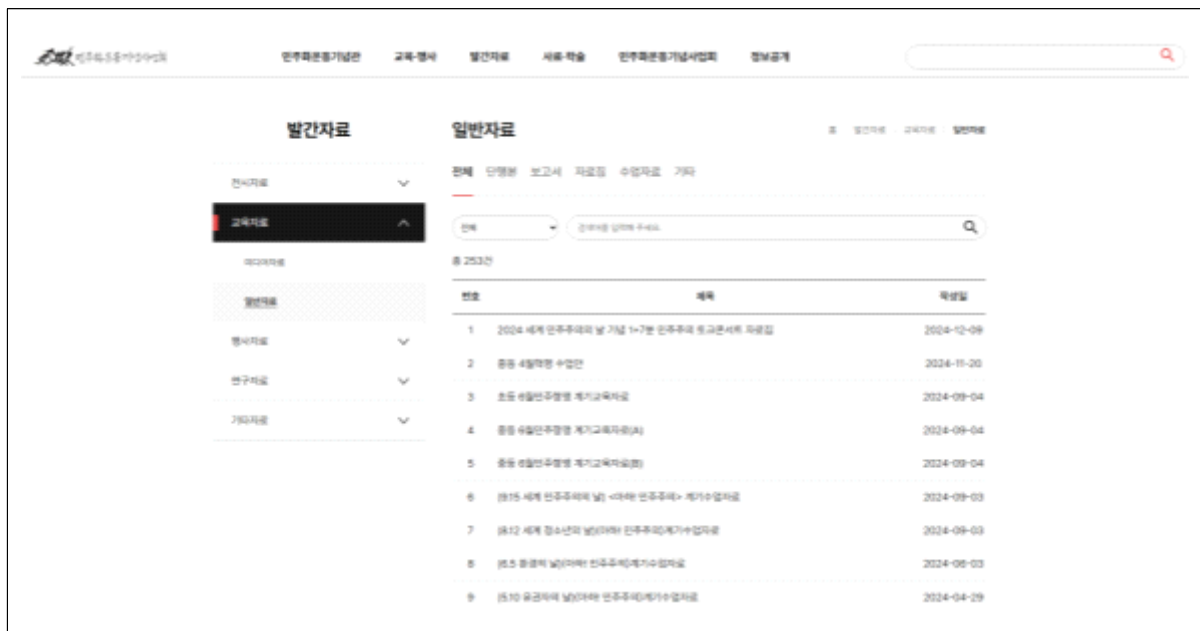
- 운영 면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집필-감수-교열-등재에 이르는 표준 프로세스와 메타데이터(유형, 이칭, 발생·종료일, 지역 등)를 명문화해 신뢰성을 담보한다. 온라인 역사 교육 자료센터 역시 이러한 편찬 과정의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필자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와 감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단기간의 성과 중심이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 속에서 천천히 구축·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제공되는 자료가 단순 나열이 아닌, 체계성과 공신력을 갖춘 교육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위키·영상 플랫폼 등 출처가 불명확한 매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에서, 수업과 과제에 활용할 학술적 증거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 정권기→시기→사건으로 이어지는 시간순 배열을 전면에 내세워,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시대별·사건별 흐름으로 학습·탐색하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런 연대기적 구조는 교사·학생 모두에게 동선이 직관적이며, 동일 사건 군을 빠르게 비교·검토하게 만든다. 다만 현재 민주화 운동 사전은 구축 단계로, 시대 분류가 이승만·장면·박정희 정권기에 한정되어 제공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관련 현대사 구간(1960~1993)을 일관된 맥락으로 학습하기 위한 주제와 사건 검색은 중장기 로드맵 완료 시점인 2028년까지 대기가 불가피하다.

- 콘텐츠 측면에서는 각 항목이 연계자료(사진·영상 등 원 자료)로 오픈 아카이브 원문과 연결되고, 상단 멀티미디어 메뉴를 통해 현재 사진, 동영상을 한 번에 탐색할 수 있어 근거 중심 학습과 정보 출처 검증 교육에 유리하다. 또한 지도 서비스가 사건의 시·공간 맥락화를 지원해 현장성 있는 이해를 돕는다.
- 다만, 본질이 학술 사전형 서술인 만큼, 학습자가 읽기 쉬운 텍스트로 가독성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각 항목 상단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3~5문장)을 기본 제공하고, 본문 용어에는 즉시 펼침형 용어 풀이를 일괄 적용하며, 사건별 미니 타임라인 카드와 탐구 질문 1개를 고정 제공하면, 중·고등학생의 학습 진입 장벽을 더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학술적 신뢰성(운영 주체·편찬 기준·메타데이터 표준화)을 해치지 않으면서, 교실 활용 가능성과 학생 독해 경험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이다.

3) 발간 교육자료

가) 운영 주체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가 개발한 교육자료를 모아놓은 게시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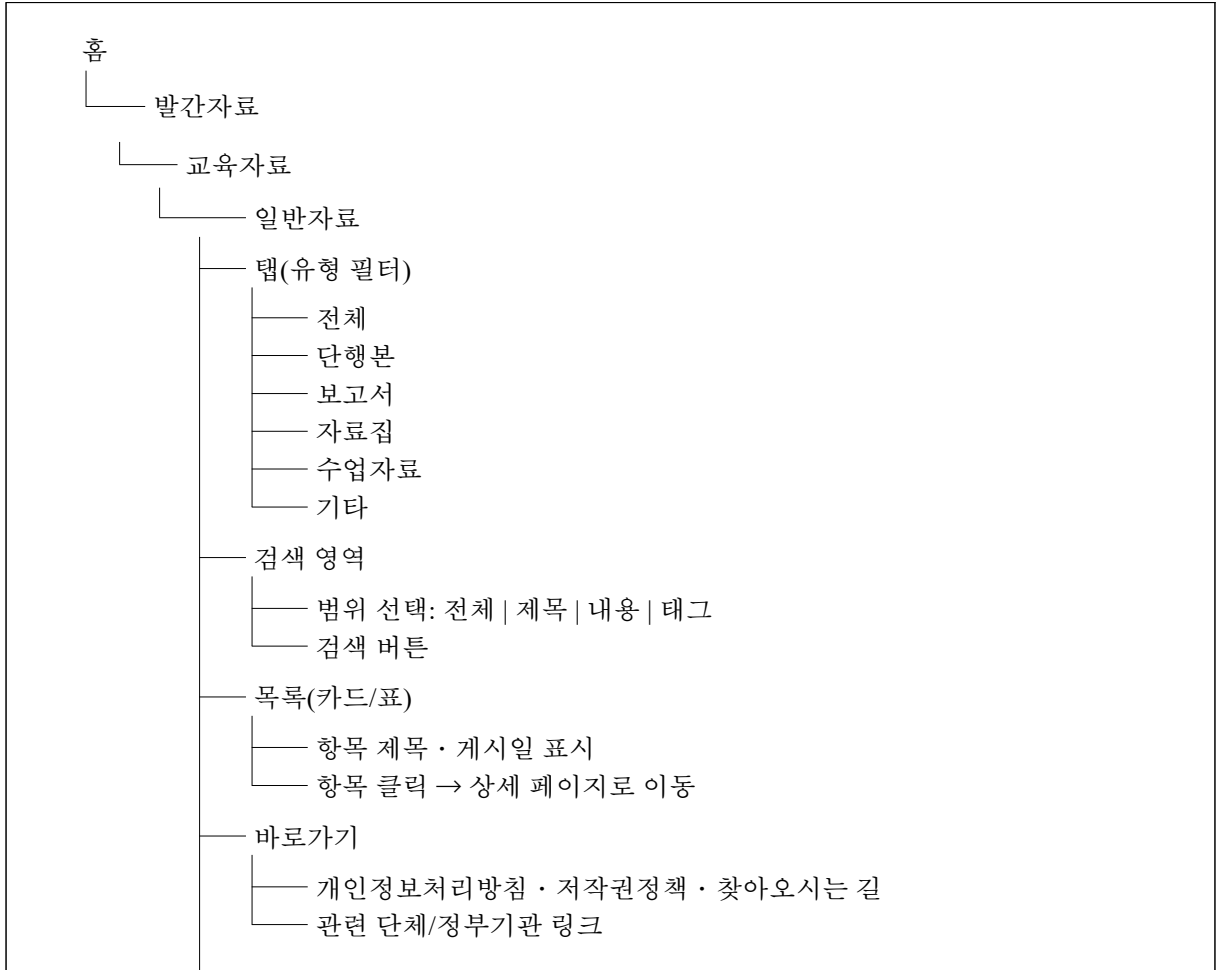
[그림 Ⅲ-7]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발간 교육자료 검색 결과 화면

나) 연혁

2013년부터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교육자료가 253건 탑재되어 있다.

다) 사이트 구성

<표 III-3>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발간 교육자료 사이트 구성



라) 사이트 구성 논리 및 특징

- 유형 기반 분류·검색을 제공한다. 목록 상단 탭을 단행본·보고서·자료집·수업자료·기타로 나누고, 제목·내용·태그로 검색하도록 설계되어 교사가 수업 목적에 맞춰 빠르게 필터링 할 수 있다. 단 여러 교육자료가 카테고리별로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 수업자료와 자료집 카테고리에 나누어 검색된다.
- 4월 혁명, 계기 교육(환경의날, 유권자의 날, 세계 청소년의 날, 세계 민주주의 날) 수업자료 외에도 민주주의 수업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를 초·중·고로 나누어 주제별로 제공하고 있다. 6월 민주항쟁 계기 교육자료 역시 초등과 중등으로 계열성 있게 개발되어 탑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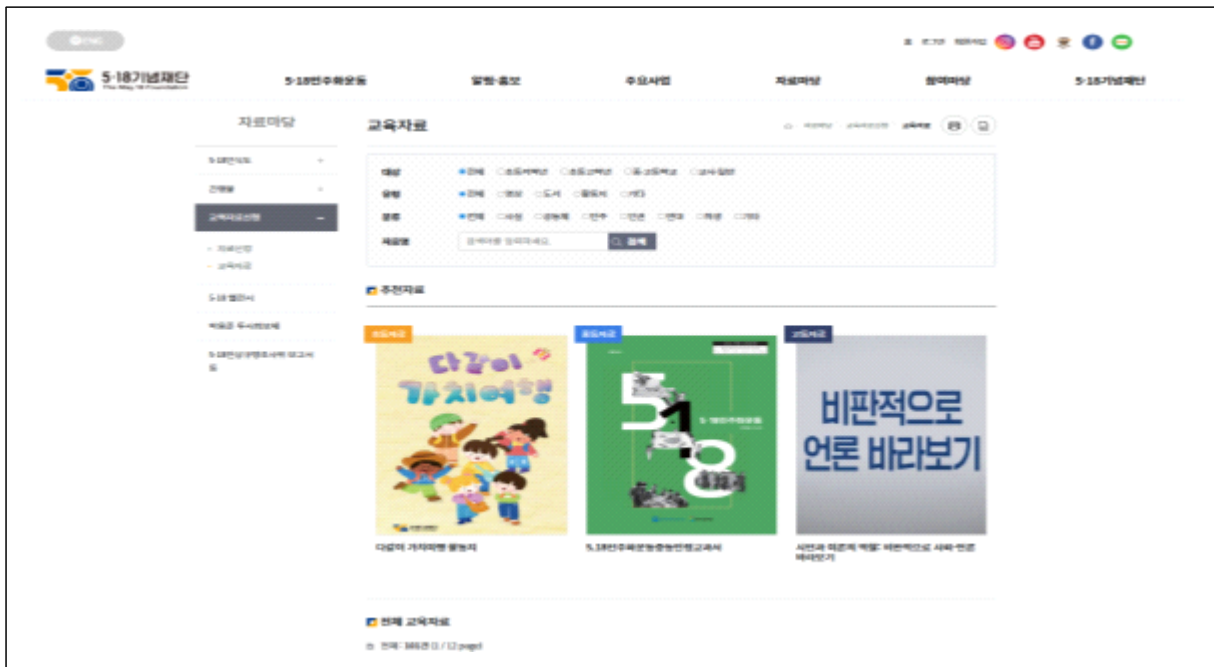
마) 총평

-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역사 교사가 참여하여 제작한 계기 수업용 패키지 자료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목록 페이지에서 중등 4·19혁명 수업안, 초등·중등 6월 민주항쟁 계기 교육자료 등 학습지·활동지·수업안(PPT·PDF)이 일괄 제공되어 수업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수업 준비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계기 교육(기념일)자료의 폭이 넓다. 유권자의 날(5.10), 세계 청소년의 날(8.12), 세계 민주주의의 날(9.15) 등 날짜 기반의 수업자료가 별도로 올라와 있어 학사 일정에 맞춰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 학교급 계열성을 의식해 동일 주제를 초, 중, 고 수준으로 변환한 자료를 제공한다(예: 6월 민주항쟁 초등·중등 세트, 4·19혁명 중등 수업안). 학년 적합도 판단과 차시 조정이 수월하다.
- 자료 분류·탐색 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교사가 원하는 항목을 곧바로 찾기 어렵다. 현재 목록은 유형(단행본·보고서·자료집·수업자료·기타) 중심이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분류(학교급·차시·계기 교육일·주제 키워드·평가유형)가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결과 목록을 전부 훑어보게 되는 탐색 피로가 발생한다.
- 완성형 워크시트는 형식이 안정되고 배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작자의 수업 의도와 흐름(목표-핵심 질문-활동-평가)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교사가 자신의 수업 의도나 학급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기가 어렵다. 일부만 발췌해 사용하면 기존 수업 맥락과 어긋날 수 있으며, 구조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 수정하려면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더 든다.

나. 5·18 기념재단-교육자료



[그림 Ⅲ-8] 5·18 기념재단 교육자료 게시판 화면

1) 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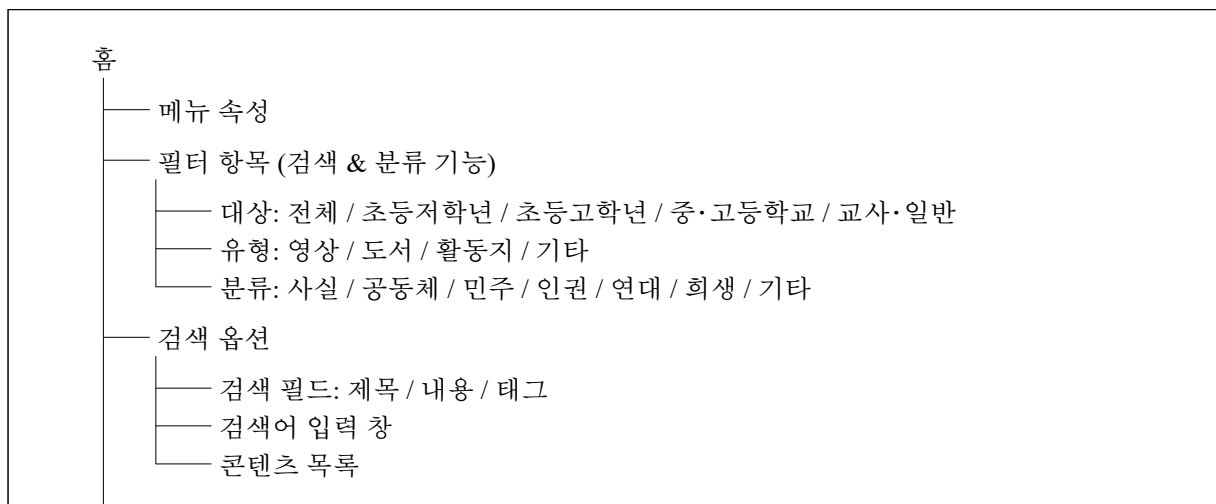
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 운동의 위대한 민주 정신과 숭고한 대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8월 30일, 뜻을 같이하는 광주 시민, 해외동포를 포함한 온 국민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 소중한 정성이 모여 설립되었다.

2) 연혁(교육사업 중심)

- 1994년: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재단 설립됨.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교육사업, 학술 문화사업 등이 설립 취지에 포함됨.
- 2004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5·18 아카데미 개설
- 2005년: “광주 민주, 인권, 평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자료와 교육 활동가 양성 등 교육 사업이 본격화됨.
- 2008년 5·18 인정교과서 발간(초등, 중등)
- 2010년 광주광역시 초, 중, 고등학교 5·18 인정교과서 보급
- 2013년 경기도 중, 고등학교 5·18 인정교과서 보급
- 2017년 5월 교육원칙 홈페이지 배포
- 2019년 청소년 도서 『5월 18일 믿음』(창비) 발간

3) 사이트 구성

<표 III-4> 5·18 기념재단 교육자료 사이트 구성



4) 사이트 구성 논리 및 특징

- 5·18기념재단 사이트의 ‘교육자료’는 현장(교사, 학생, 일반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주된 목적은 자료의 접근성 및 선택성 향상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교육 수준·대상·관심 분야에 맞는 자료를 쉽게 탐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다양한 필터(filter)와 검색(search)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료를 효과적으로 좁혀 볼 수 있다.
- 콘텐츠가 업데이트 또는 구성될 때 ‘대상’과 ‘유형’ 필터에 맞춰 분류됨으로써 다양성과 포괄성 확보된다.
- 검색되는 자료 외에 추천 자료 등의 분류가 있어, 방문자에게 먼저 보여줄 가치가 있는 자료 제공한다.
- 활용도 높은 교육자료(학습지, 사진 전시 꾸러미)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한 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 인정교과서 및 학습지를 기준으로 초·중등 사용자를 구분하고, 이에 맞춰 계열성 있게 개발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탑재하였다.
- 2025년 중등 인정교과서와 관련 동영상 강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며, 주제를 질문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이나 왜곡과 가짜뉴스 대응처럼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안과 논쟁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과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토론과 성찰로 나아가게 하며, 역사교육의 현실성과 시의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표 III-5> 5·18 중등 인정교과서(2025년) 목차

- | |
|--|
| 008 P · 01.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어떠했나요? |
| 014 P · 02. 1980년 봄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018 P · 03. 5·18 민주화 운동은 왜 일어났나요? |
| 024 P · 04. 5·18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
| 034 P · 05.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만 일어났나요? |
| 042 P · 06. 당시 언론들은 5·18을 어떻게 보도했나요? |
| 048 P · 07. 10대 청소년도 시위에 참여했을까요? |
| 054 P · 08. 5·18 당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
| 060 P · 09. 외국인 기자들이 본 5·18은 어땠나요? |
| 064 P · 10. 시민과 계엄군의 피해자 범위와 책임 기준은 없었나요? |
| 070 P · 11. 시민들은 왜 무기를 들었을까요? |
| 076 P · 12. ‘북한군’은 왜 왜곡된 상상을 지속하는 소재가 되었을까요? |

080 P · 13. ‘님을 위한 행진곡’은 어떻게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나요?

086 P · 14. ‘광주사태’는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 되었나요?

094 P · 15.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100 P · 16.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106 P · 17. 왜곡과 가짜뉴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12 P · 18.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118 P · 19. 5·18 관련자들이 왜 해외로 증언을 계속했을까요?

124 P · 20. 5·18 기록물은 어떻게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나요?

128 P · 21. 5·18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134 P · 22. 5·18 연구, 어떻게 계승할까요?

140 P · 부록 1. 사진으로 보는 5·18민주화 운동

부록 2. 친구들과 함께 가는 5·18학습지

5) 총평

- 현재 5·18 교육의 기본이 되는 오월 교육원칙이 교육자료 중 하나로만 포함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다. 이를 전체 교육자료를 포괄하는 상위 카테고리로 재편성하여, 모든 이용자가 교육자료에 접근하기 전에 이 원칙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필터 기능은 조합 시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대상·유형·분류 항목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실·공동체·민주·인권·연대·희생·기타’와 같은 분류 기준은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지역성, 시대별, 역사적 사건별과 같은 세부 주제를 추가하고,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설계한다면 보다 정밀한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 자료 내용의 일부(예: 요약, 목차)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하고, 검색 필터 기능을 활용해 탐색할 수 있게 하면 자료 선택에 큰 도움이 된다.
- 2025 중등 인정교과서의 질문과 연계된 자료는 텍스트에 그치지 않고 사진·영상·구술 자료·웹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풍부한 사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사를 위한 수업 활용 가이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질문 중심 학습이 현장 수업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홈페이지의 웹 전시 기능을 활용하여 예술 교과와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5·18 교육이 사회·역사 교과를 넘어 문화·예술 교육으로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III -9] 5·18 기념재단 5·18 웹 전시 게시판 화면

- 5·18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일기, 취재기록, 사진, 영상들과 참여자들의 구술 증언 등의 자료들이 공공저작물의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이러한 자료의 소장처에 대한 안내나 자료 활용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홈페이지 내에서도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홍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이 필요하다.³⁴⁾

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약칭 부마 민주재단, 영문 명칭 BUMA1979)³⁵⁾

1) 운영 주체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약칭 부마 민주재단, 영문 명칭 BUMA1979)은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 재단이다. 2018년에 설립하여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료를 발굴·정리하고, 연구 또는 기록 작업 수행.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는 학술 사료 사업, 항쟁의 의미를 학교, 일반 시민에게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교육자료 개발, 현장 체험, 학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34) 강남진, 「역사 교사가 구성하는 5·18 교육과정 -교육자료 생산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49호, 2024,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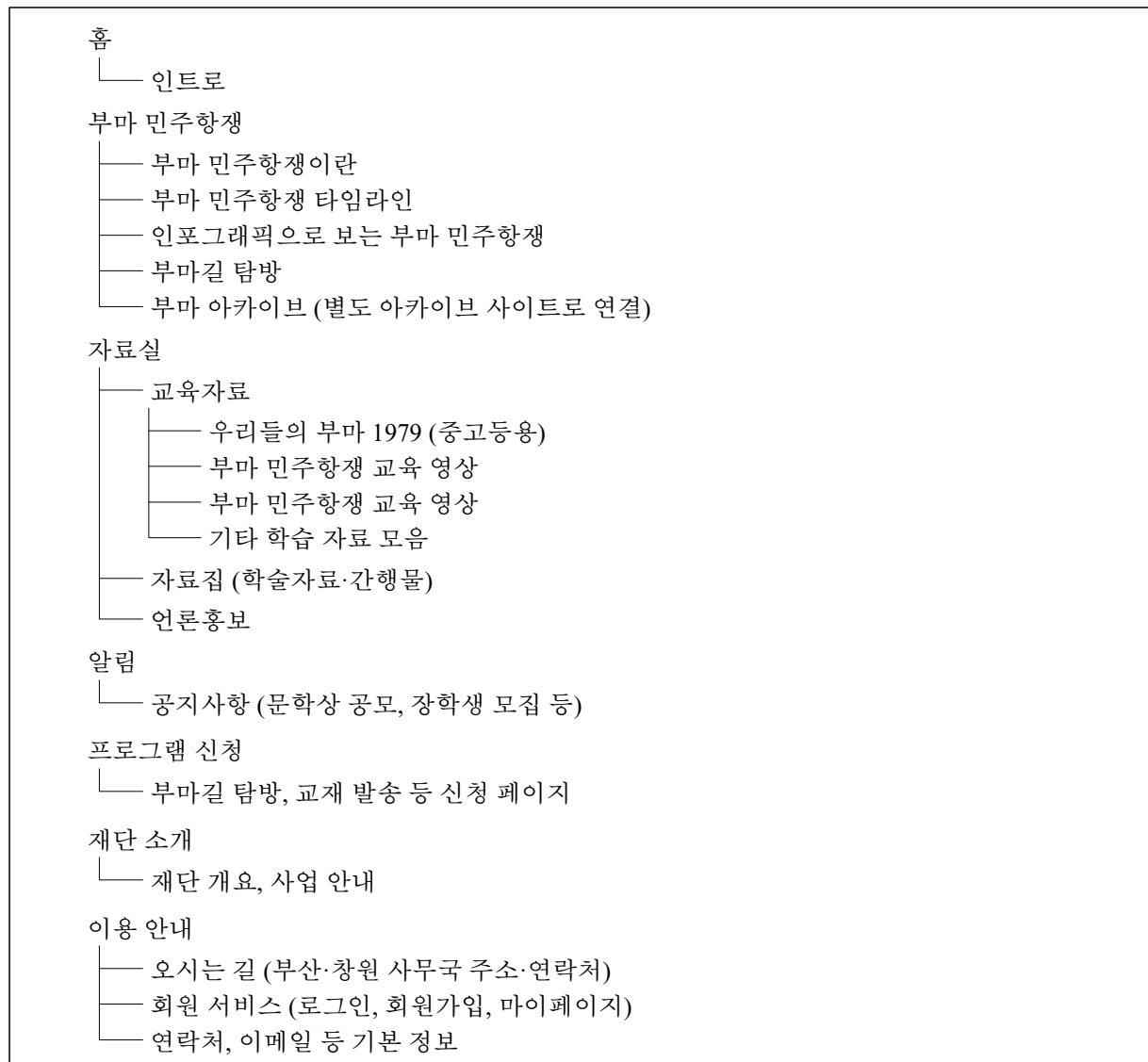
35) http://buma1979.or.kr/?page_id=33637

2) 연혁(교육사업 중심)

- 2018년 : 8월 22일 설립. 설립 당시 발표된 비전 중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을 기본 사명으로 명시됨.
- 2020년 : 부마 해설 강사 양성 과정 실시 -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 항쟁지 답사, 탐방 시나리오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함.
- 2021년 : 부마 민주 캠프 운영 -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 체험 중심.
- 2022년 : <1979 부마 민주항쟁 역사신문 만들기>, <부마길 현장 탐방_부산> 등, 학생·시민 대상 체험 및 창작 방식 교육 개발.

3) 사이트 구성

<표 III-6>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사이트 구성



4) 사이트 구성 논리 및 특징

-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마 민주항쟁이란 → 타임라인 → 인포그래픽 → 부마길 탐방 → 부마 아카이브’로 이어지는 흐름은 사건의 개념 이해 → 역사적 전개 → 시각적 자료 → 현장 탐방 →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단계적 구조를 가진다.
- 홈페이지와 아카이브를 이원화해, 일반 안내와 전문 자료 열람을 구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부마 아카이브는 사료 중심의 4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부마일지(시간)-부마를 보다(시각)-부마를 말하다(구술)-부마를 읽다(문헌)’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항쟁의 전개를 시간·시각·구술·문헌이라는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부마일지 : 부마 민주항쟁의 시간대별 사건 전개를 일지 형식으로 제공한다.
 - 부마를 보다 : 사진·영상 중심의 시각 자료 제공한다.
 - 부마를 말하다 : 관련자 구술 기록과 인터뷰 콘텐츠이다.
 - 부마를 읽다 : 문헌, 신문 기사 등 텍스트 사료를 집합하였다.
 - 항쟁 이야기 : 항쟁 관련 서사와 배경 설명을 제공한다.
 - 필터 된 자료 외에 ‘추천 자료’ 등의 분류가 있어, 방문자에게 우선 보여줄 가치가 있는 자료 제공한다.
- 홈페이지에는 교사·학생이 수업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탑재하고 있다.
- ‘교육자료’ 메뉴가 따로 있어 교재·영상·워크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부마 민주항쟁 교육자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의 부마 1979(중·고등학생용)』

삽화와 사진 자료 중심의 스토리텔링 구성하였으며, 단락마다 탐구 질문을 배치해 사고 확장 유도한다. 박정희 장기집권, 유신헌법, 지역 경제 불황, 시민 저항 등 항쟁의 맥락을 주제별로 제시한다.

활동 요소는 <역사하기>라는 사료 분석·토론·추론 중심 활동이 있으며 후속 활동으로 역사 신문 만들기, SNS 공유, 카드 뉴스 제작 등 학생 참여형 산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논쟁적 질문을 포함한 활동(예:“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들의 부마 1979(초등용 그림책)』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그림책 형식이다. 사건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시각 자료 중심 전개하였다. 복잡한 정치·사회 맥락보다는 자유·저항·연대의 기본 가치를 간단히 전

달한다.

『부마 민주 로드(마산편·부산편)』

답사 워크북 형식으로 현장학습용 지도와 질문이 포함되었다. 온라인 영상 자료(최태성 강의 등)와 연계하여 현장·디지털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현장 탐방과 기록 활동을 결합하여 학생들이 직접 견고 보고 기록하는 체험형 활동지이다.

『영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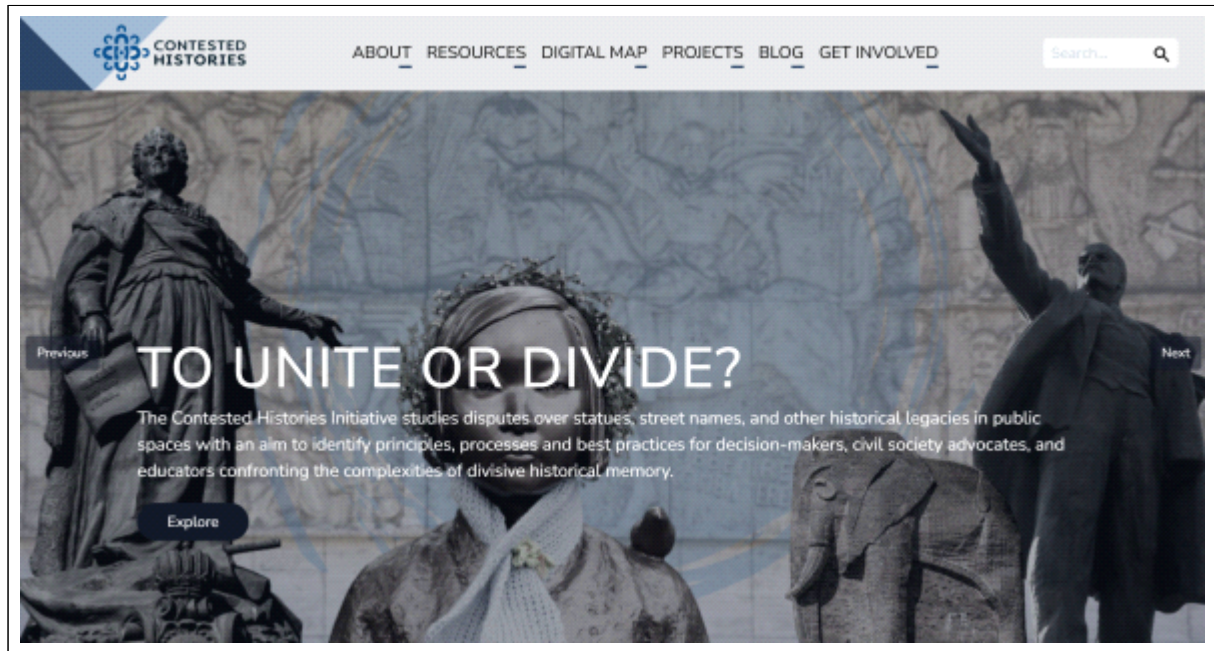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쉽고 친근한 형식으로 부마 민주항쟁을 설명한다. 10분 내외의 짧은 길이로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인다. 복잡한 민주화 운동의 맥락을 초등, 중등 학습자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설한다. 교실 도입용 자료로 적합하다.

5) 총평

- 부마 민주항쟁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부마일지, 사진·여대생 일기(부마를 보다), 10분 내외의 구술 자료(부마를 말하다), 기사·문헌 사료(부마를 읽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사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활동하기’ 과제나 탐구 과정을 수행할 때 아카이브 자료를 직접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 부마 민주항쟁 교육자료는 스토리텔링과 삽화, 사료를 활용한 탐구 질문, 체험형 활동, 디지털 자료 연계 등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초등·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자료 제공과 현장 탐방형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고려한 구성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된 활용을 위해 부마 민주화 운동 등 역사 주제와 관련된 탐구 질문만 모아놓고, 학년별 위계에 따라 제시한다면 교사들이 수업 설계에 활용하기 쉬울 것이다. ‘부마 민주 로드’는 기존 활동지와 자료를 단순 보관하는 것을 넘어 체험 학습(교육 여행)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조성하여 현장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2. 해외

가. Contested Histories³⁶⁾



[그림 III -10] Contested Histories 초기 화면

1) 운영 주체

유럽역사교육자협의회, 역사 정의와 화해 연구소(Institute for Historical Justice and Reconciliation, IHJR)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공공 공간에서의 논쟁적인 역사(Contested Histories in Public Spaces) 프로젝트를 웹상에 구현한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 공간에서 조각상, 기념물, 기념관, 도로명, 건물, 그리고 기타 역사적 유산의 물리적 표현에 대한 논쟁을 조사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유용한 자료를 공공 공간에서의 논쟁적인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 정책 입안자, 의사 결정권자, 교육자, 언론인, 학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세계 각자의 사례연구가 카탈로그 형식으로 개발되었다. 연구 결과에는 정책 권고, 교육 자료, 그리고 발표된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 집행부(European Commission) 일부 지원을 받는다.

2)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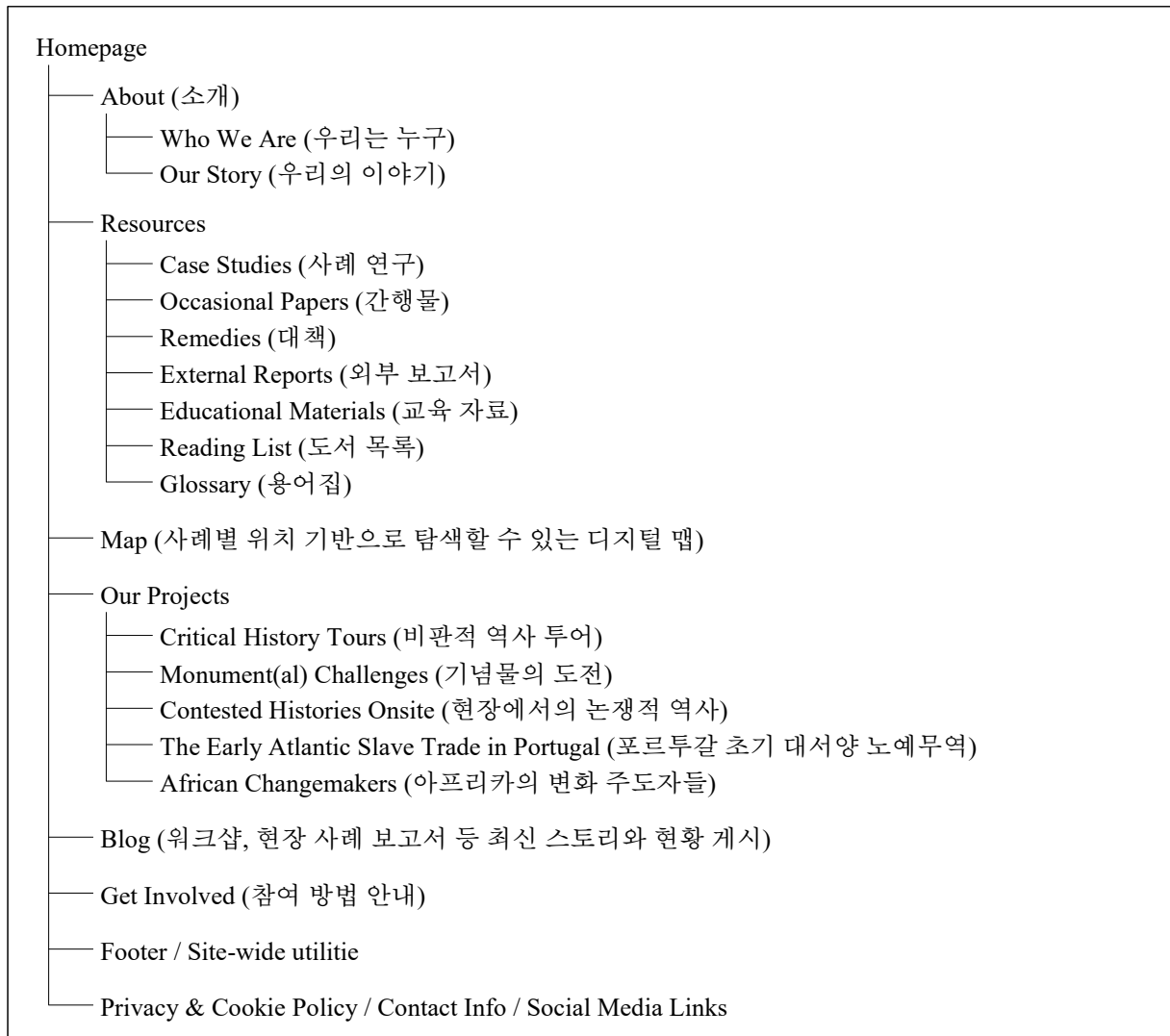
- 2016년 - 역사 정의와 화해 연구소(HJR)가 유로클리오 사무실로 이전

36) <https://contestedhistories.org>

- 2017년 -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 문제를 다룰 플랫폼에 대한 논의 시작
- 2021년 - 논쟁적 역사 교육 태스크포스 첫번째 회의
- 2021년 - 현장의 경합하는 역사들(Contested Histories Onsite) 프로젝트 시작
- 2022년 - 아프리카 변화의 주도자들(African Changemakers) 프로젝트 시작
- 2022년 - 포르투갈 초기 대서양 노예무역 논란 관련한 디지털 아카이브 촬영 시작
- 2023년 - 기념물의 도전(Monument(al) Challenges) 프로젝트 시작
- 2024년 - 비판적 역사 투어(African Changemakers) 프로젝트 시작

3) 사이트 구성

<표 III -7> Contested Histories 사이트맵 구성



Contested Histories 사이트는 첫 화면의 상단에 6개의 영역(About/ Resources / Digital Map / Projects / Blog / Get Involved)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 About은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기본 설명을 제공한다.

나) Resources는 다양한 학술 및 교육 자료를 모아둔 메뉴이다.

다) Map는 Digital Map으로 600여 사례를 위치 기반으로 탐색한다.

라) Our Projects는 공공 공간에서의 논쟁적인 역사(Contested Histories in Public Spaces)의 하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결과물을 공유한다.

마) 블로그는 워크샵, 현장 사례 보고서 등 최신 스토리와 현황을 게시한다.

바) Get Involved는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4) 사이트 구성 논리 및 특징

Contested Histories 사이트에서 특징적인 메뉴는 “Resources”와 “Our Projects”이다.

가) Resources

(1) Resources의 내용 구성

Resources는 자료 기반 역사교육 사이트의 특성이 가장 잘 집약된 메뉴이다. 이곳에는 역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1차·2차 사료뿐 아니라, 구체적 맥락을 제시하는 사례 연구, 정기 간행물, 권위 있는 보고서, 논쟁적 역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교육 자료, 도서 목록, 용어집 등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제공된다.

- Case Studies (사례 연구) - 식민주의, 노예제, 인종차별, 파시즘, 반유대주의, 공산주의, 권위주의, 성폭력 등 다양한 역사적 유산의 문제를 사례별로 소개. 사례연구는 역사적 배경, 분쟁의 역사, 의사 결정 과정 및 사용된 구체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현재 100건 넘는 연구 사례가 집적

- Occasional Papers (간행물)

- **Remedies (대책)**

- 1) 재의미화: 플래카드(현수막) 붙이기, 예술적 개입, 대립되는 기념물 세우기

- 2) 제거: 이전하기, 삭제하기

- 3) (새롭게) 명명하기: 이름 바꾸기

- External Reports (외부 보고서): 권위 있는 기구의 보고서 다수 수록

- 불안한 동상 받침대(네덜란드 논쟁적 기념물 위원회, 2023)
- 반역사적 범죄 (FIDH, 2023)
- 기념의 역사적 불평등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서(영연방 전쟁 묘지 위원회, 2021)
-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전략 계획 및 작업 프로그램(UNGEGN, 2021)
- 세실 로즈 기념관 문제 관련 옥스퍼드대학교 오리엘 칼리지의 위원회 조사 보고서(오리엘 칼리지 조사위원회, 2021)
- LA 시장실 시민 기억 실무 그룹 보고서 및 권고안(로스앤젤레스 시장실 시민 기억 실무 그룹, 2021)
- 자결권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핸드북(유엔 및 리히텐슈타인 자결 연구소 주재 리히텐슈타인 공국 상임대표부, 2021)
- 균형을 제대로 맞추는가?: 경찰이 시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한 조사(영국 경찰 및 소방 구조 서비스 감독관, 2021)
- 식민주의와 현재 내셔널 트러스트가 관리하는 자산 간의 연관성에 대한 중간보고서: 역사적 노예제와의 연계 포함(National Trust, 2020)
- 홀로코스트 추모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지역의 기억과 교육에 대한 개요(OSCE, 2020)
- 영국 역사 속의 인종, 민족 및 평등: 변화를 위한 보고서 및 자료 (Royal Historical Society, 2018)
- 일본군 성노예 문제(‘위안부’문제)(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WAM, 2018)
- 기억의 장소 해석(국제 양심 유적지 연합 ICSC, 2018)
- 뉴욕시에 보고하다(도시 예술, 기념물 및 표지판에 관한 시장 자문위원회, 2018)
- 개명 원칙 수립 위원회 보고서(개명 원칙 수립 위원회, 2016)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지역의 홀로코스트 추모일: 정부 차원의 좋은 실천 사례에 대한 개요(OSCE, 2012)
- 다양한 사회의 통합에 관한 류블라나 지침(OSCE 소수민족 고등판무관, 2012)
- 역사 화해와 장기 갈등(유럽-대서양 안보 이니셔티브 EASI, 2012)
- Palazzo degli Uffici Finanziari 외관 변형(불차노-보젠 자치주 의회, 2011)
- 유럽 전체주의 정권이 저지른 범죄의 기억(유럽 위원회가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2010)
- 기념과 민주주의: 국가 정책 및 시민 활동(Sebastian Brett, Louis Bickford, Liz Ševčenko, Marcela Rios, 2007)

· Educational Materials (교육 자료)

- 제2차 세계대전 기념물을 활용한 역사교육-교육 안내(기억과 마주하기, 2023)

- CARGO 이동 교실 이니셔티브(CARGO Movement, 2021)
- 역사를 연결하다(Bridging Histories, 2021)
- 자료를 배우다(블랙 커리큘럼, 2021)
- 기념 관행을 사용하여 역사가 구성된 서사라는 것을 가르치기(이븐스 재단, 2021)
- 사회 공간의 변화: 공평한 협력을 위한 툴킷(버지니아대학교 참여 및 협상 연구소, 2021)
- 교육과정의 탈식민화를 위한 자료(웨스트민스터대학교 교육 및 교수 혁신 센터, 2021)
- 1619 프로젝트 교육과정(폴리처 센터, 2021)
- 영국 흑인 역사 가르치기-교사 연수 가이드(퓨처 플랜, 2021)
- 교육자를 위한 자료 및 교육 전략(Facing History And Ourselves, 2021)
- 식민주의와 젠더 및 성적 지향의 교차점(Diversify Our Narrative, 2021)
- 제2차 세계대전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Diversify Our Narrative, 2021)
- DMU 툴킷 탈식민화 (DMU의 탈식민화, 2021)
- 교육과정 툴킷의 탈식민화(University of Westminster Blogs, 2021)
- 고통받는 곳에서 안도감을 찾다: 현장 및 장소 기반 기억 교육(Again Never Again, 2020)
- 수업 계획(아메리카 선주민 역사를 교육하기, 2019)
- 땅-교육 안내(Native Land, 2019)
- 선주민 동맹 툴킷-동맹 안내(몬트리올 도시 선주민 사회 전략 네트워크, 2019)
- 프로그램 및 모듈 담당자를 위한 교수-학습 툴킷(런던대학교 SOAS의 SOAS 탈식민화, 2018)
- 교사를 위한 유럽 문화유산 툴킷-10~15세 학생용(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8)
- 디지털 시민교육 툴킷(청소년 및 참여 정치에 관한 MacArthur 연구 네트워크, 2018)
-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 브로셔(유네스코, 2013)
- 초등학생의 언어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용 사회정의 교육과정 설계의 6가지 요소(Bree Picower, 2012)
- 방글라데시 이야기-중학교(Key Stage 3) 교육 자료(Anusree Biswas, 2010)
- 진(Zinn) 교육 프로젝트 (학교 재고 및 변화를 위한 교육, 2008)
- 학생의 손안에 있는 세계 유산-교사용 교육 자료 키트(유네스코, 2002)

- Reading List (읽을거리 목록)
- Glossary (용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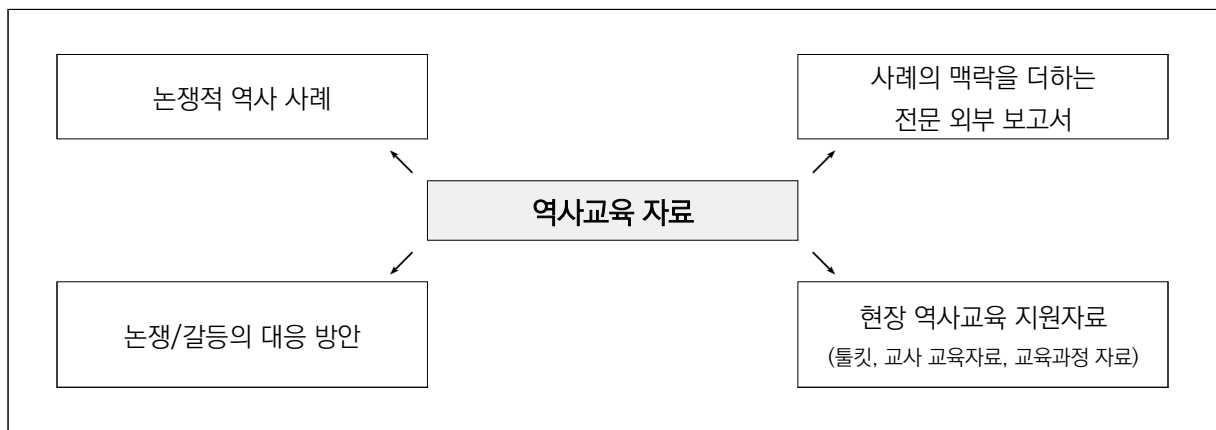
(2) Resources의 특징

-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사례 연구

Resources 중에서 특별히 사례 연구의 경우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 뿐 아니라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기억과 기념을 둘러싼 갈등 장면을 정리하였다. 현재 100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의 목록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 다양한 층위의 역사교육 지원 자료

Resources를 지원하는 자료들은 현장 역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풍부한 사례 연구가 논쟁적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사례의 맥락을 더하는 외부 보고서가 따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논쟁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 역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자료로서 툃킷, 교사교육 자료, 교육과정 자료들이 주제별로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



[그림 III -11] 지원되는 Resource의 종류 및 층위

나) Our Projects

(1) Our Projects의 내용 구성

· 비관적 역사 투어(Critical History Tours)

유럽 전역에서 성공적인 비평 역사 도보 투어를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 설계된 역동적인 다자간 협력 사업이다.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현대 사회의 역사적 논쟁과 관련된 긴장감을 다루며, 특히 갈등이 잦은 도시 지역의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논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본 프로젝트는 공공 역사, 유산, 그리고 관광의 교차점에 위치한 개입으로서 도보 투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이러한 긴장감을 건설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 기념물의 도전(Monument(al) Challenges)

유럽 전역의 교육자들이 역사교육에서 직면하는 몇 가지 과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교사들이 교실에서 식민지 시대와 노예제도를 포함한 민감하고 복잡한 역사를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자료와 교육 자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장에서의 논쟁적 역사(Contested Histories Onsite)

폴란드,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스페인(바르샤바 봉기 박물관, 탈린의 청동 병사 동상, 불차노의 무솔리니 부조, 그리고 프랑코의 옛 무덤이었던 마드리드의 전사자 계곡)의 투어. 이 투어는 전문가와의 프로젝트 회의와 함께 진행되어 대화와 시민 참여를 증진하는 투어를 위한 툴킷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르투갈의 초기 대서양 노예무역(The Early Atlantic Slave Trade in Portugal)

포르투갈 초기 대서양 노예무역의 논란이 되는 유산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현대 포르투갈에서 노예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억이 구체화 된 장소들을 특별히 다루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이러한 개입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식민주의와 노예제의 유산에 대한 논쟁을 더욱 풍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아프리카 변화의 주도자들(African Changemakers)

이 프로젝트는 첫째, 아프리카 전역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홀로코스트와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에 대한 더 광범위한 사례 연구 자료 센터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둘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자들을 전 세계 동료들과 연결하여 인권 교육의 세계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적 과거를 활용하여 더욱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국제적 논의에 아프리카 사례 연구와 학습을 통합한다.

(2) Our Projects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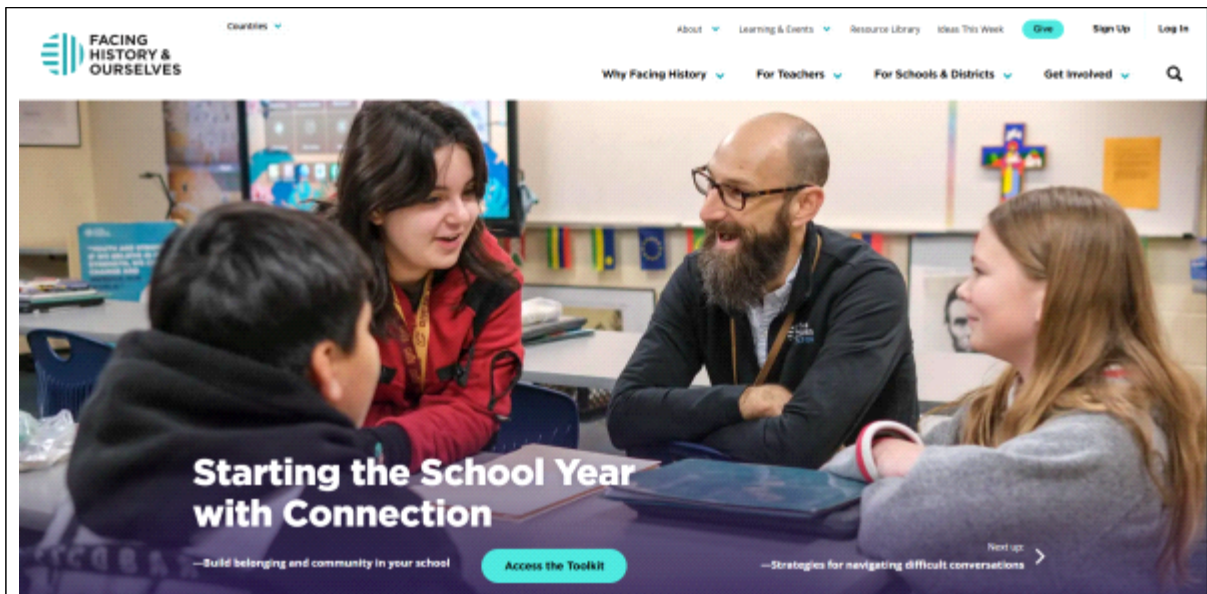
“공공 공간에서의 논쟁적인 역사(Contested Histories in Public Spaces)”로 통칭되는 프로젝트들의 하위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집적한 메뉴이다. Our Projects는 Contested Histories 사이트의 가장 특징적 메뉴이다. 연구팀은 시기별로 비판적 역사 투어, 기념물의 도전, 현장에서의 논쟁적 역사, 포르투갈의 초기 대서양 노예무역, 아프리카 변화의 주도자들 - 총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Our Projects는 주제별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수록하고 있다.

논쟁적인 역사와 관련한 유럽 각국의 다양한 장소, 기념물, 주제 등을 중심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개별 프로젝트의 ①목적, ②툴킷, ③웨비나 녹화물을 수록하였다. Contested Histories는 온라인에 구현된 사이트이지만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실제적 연구와 활동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다. 특별히 웨비나 녹화본은 교사들 대상의 강의로 교사 연수(교사교육)를 담당하고 있다.

5) 총평

- 논쟁적인 역사와 이를 역사교육의 맥락에서 해결하려는 선명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한 자료를 집적한 역사교육 자료센터이다.
- 사이트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식민주의, 노예제, 인종주의 등의 논쟁적인 사안들로 해당 주제가 여러 국가, 지역, 장소에서 어떤 주체 간의 갈등과 경합 속에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접근하고 있다.
- 유럽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연차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갱신하며 새로운 결과물을 정리하고 발표하는데 이는 자기 실천의 과정으로 명명할 수 있다.
- 전문적인 자료들이 형태별, 내용별(주제별)로 간단명료하게 구축되어 있다.
- 다만,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역할을 개별 수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경우, 프로젝트 중심의 자료 지원이 효율적인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나. Facing History And Ourselves(FHAO)³⁷⁾



[그림 III -12] FHAO 초기 화면

1) 운영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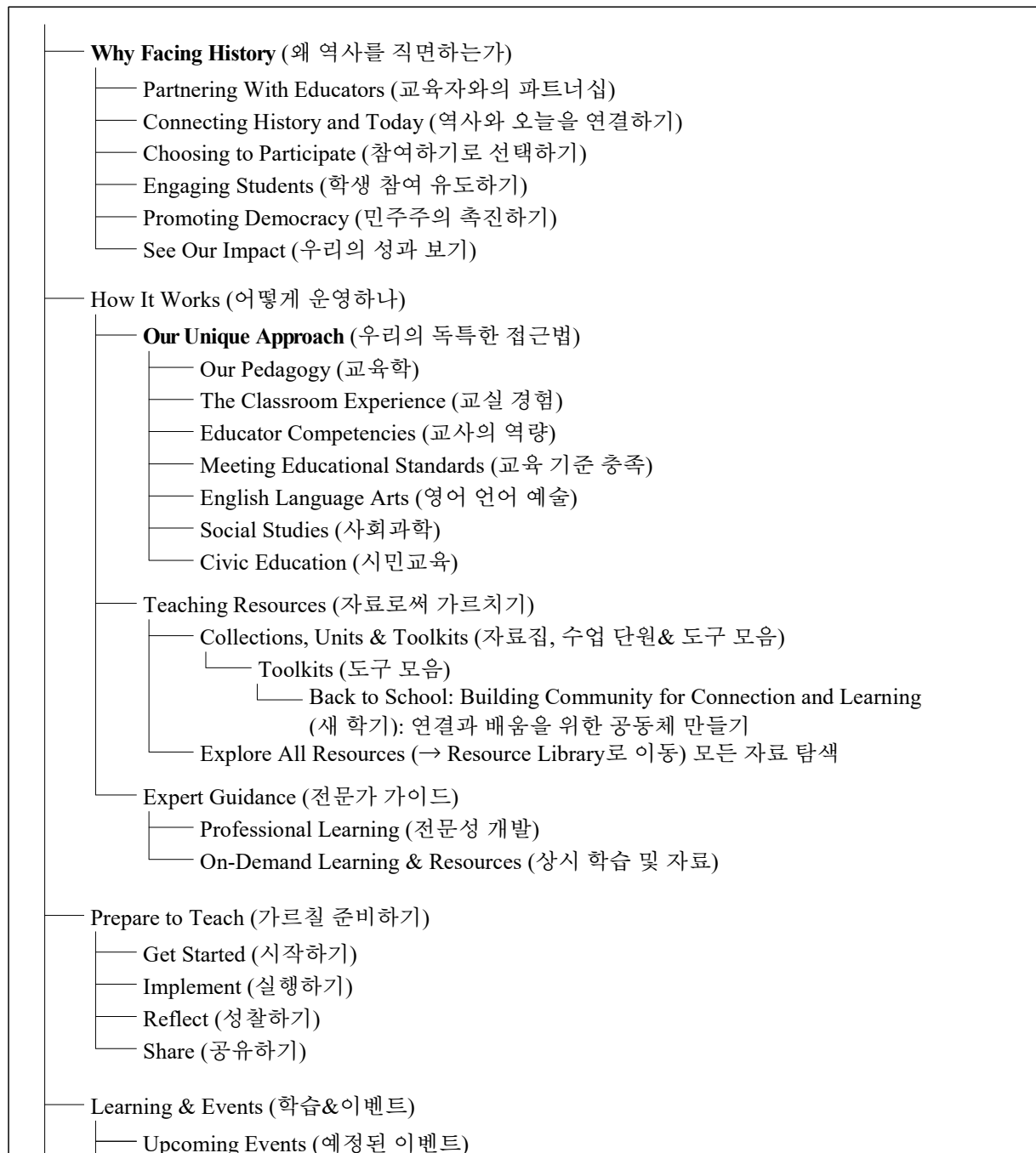
197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록라인에서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 역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편견과 증오에 맞서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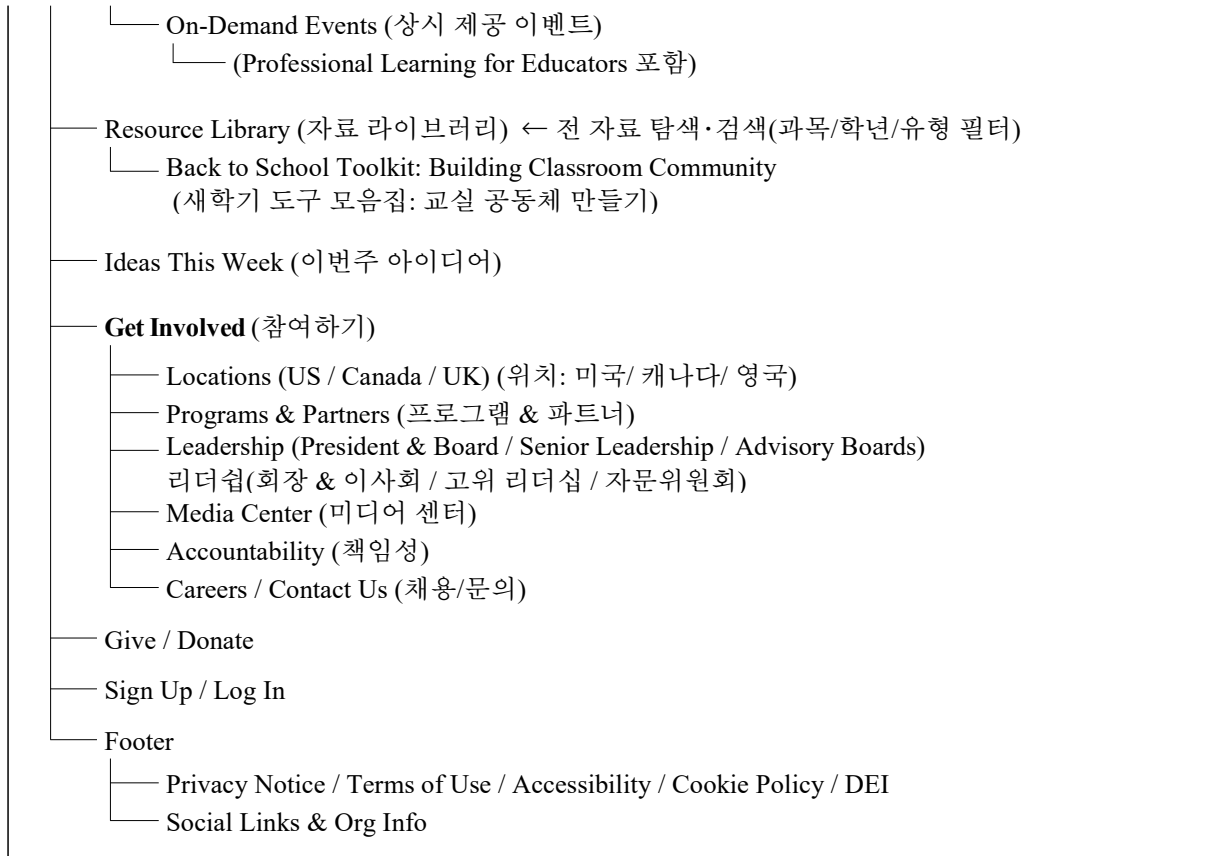
37) <https://www.facinghistory.org/>

2) 사이트 구성

FHAO는 첫 화면에 노출된 주요 메뉴 4가지는 ① Why Facing History, ② For Teachers, ③ For Schools & Districts, ④ Get Involved이다. 그러나 실제 사이트 맵에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분류법이 존재한다. 사이트 맵의 대분류는 ①Why Facing History, ②How It Works, ③Prepare to Teach, ④Learning & Events, ⑤Resource Library, ⑥Ideas This Week, ⑦Get Involved, ⑧그 외 이다.

<표 III-8> FHAO의 사이트맵 구성





3) 사이트 구성 논리 및 특징

FHAO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메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면 아래와 같다.

가) 왜 역사를 직면하는가?(Why Facing History)

해당 영역은 FHAO 사이트 설립의 목적과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1) ‘역사와 오늘을 연결’한다는 목표 설정

FHAO 사이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를 직면(Facing History)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중요한 순간들을 살펴보고 과거의 선택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숙고할 수 있게 한다. 역사는 필연이 아니라 행위자의 선택이 만든 결과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와 함께 ‘현재’의 시사에도 관심을 갖게 하며, 학생들이 시사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구와 자료를 제공한다.

(2) 학생 참여 및 민주주의의 증진 강조

FHAO 사이트는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기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역사에 직면하는 경험 속에서 동료와 시민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고 여긴다. 역사를 직면하며 분석하는 경험이 학생들의 관용을 장려하고 편견에 대한 위험성을 키울 여지가 크다고 본다. 교실에서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지하는 시민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이다.

1. 교육자들과 함께하기

2. 역사와 오늘을 연결하다

- 1) 홀로코스트와 인간 행위 컬렉션
- 2) 재건 시대와 민주주의의 취약성 컬렉션
- 3) 미국 역사교육과정 컬렉션: 민주주의와 자유

3. 참여하기: 업스탠더(Upstander)

4. 학생 참여하기

(원칙)

- 학생들 스스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한다.
- 학생들은 상호 존중과 포용 속에서 다양한 관점의 견해를 듣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커리큘럼은 학생의 삶과 관련 있는 학습에 집중하며, 교실에서 위험을 감수하도록 장려한다.
- 학생들은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개발하는 동시에 도전적인 내용과 씨름하게 한다.
- 학생들은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민주 사회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배운다.

5. 민주주의 증진

- 1) 민주주의의 검토
- 2)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장려하다
 - (1) 미니 레슨: 미국 민주주의의 희망과 취약성
 - (2) 컬렉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6. 우리의 영향력을 확인하세요.

나) 우리의 독특한 접근법(Our Unique Approach)

(1) 교육의 삼각형 강조

Our Pedagogy는 FHAO의 교육적 지향과 가치를 담은 3가지 요소(지적 엄격함, 정서적 참여, 윤리적 성찰)를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는 동안 발생하는 도덕적 질문과 딜레마를 성찰하고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우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간 행동을 탐구하는 과정을 안내하며,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도록 한

다. 인간으로서의 복잡성을 탐구함으로써 배려심과 호기심이 풍부한 청소년들이 용감하고 참여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2) 다양한 융합 교육의 가능성

역사와 관련한 주제 자료가 많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과목 혹은 학문과 연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크게 3가지 영역인 영어·언어·교육(English, Language, Arts), 사회과(Social Studies),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을 포함한다.

·영어·언어·교육(English, Language, Arts, ELA)

- 문해력 개발과 사회정서적 학습, 그리고 시민교육의 실천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ELA의 지향

1. 학생들이 읽는 이야기의 범위를 다양화한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나도록 해야 한다.
2. 청소년기의 윤리적, 사회적, 정서적 고민에 뿌리를 둔 활동을 구성한다.
3. 학생들이 문학을 역사, 현대 세계, 자신의 삶과 연결해 보도록 한다.
4. 학생들은 다양한 양식과 장르의 텍스트를 접하며 텍스트와 자신, 텍스트와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와 세상을 연결하게 한다.
5. 학생의 목소리와 주체성을 우선시한다.

- 컬렉션: 1) 국경과 소속감

2) 복잡한 세상에서의 성인식

·사회과(Social Studies) / 역사를 직시하며 사회 과목을 가르치다

- 제공자료

1. 수업 계획, C3 스타일의 탐구, 단원, 기본 자료, 역사, 시민, 정부, 인문학을 위한 교수 전략
2. 국가사회연구위원회(NCSS) 표준, 사회 연구에서의 탐구 기반 학습을 위한 C3 프레임 워크, 사회 연구 공통 핵심 표준에 맞춰 설계된 연구 기반 교육 자료
3. 사회 연구 교육자를 전문성 개발 기반

- 사회과 학습 목표

1. 정체성, 소속감, 소속감의 복잡성을 탐구한다.
2. 비판적이고 윤리적 관점에서 역사와 오늘날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3. 정보에 기반한 시민 참여 역량을 개발한다.

- 추천 자료 (컬렉션)

1. 홀로코스트와 인간 행동

2. 재건 시대와 민주주의의 취약성
3. 시민적 담론 촉진: 다양한 민주주의에서의 어려운 교실 대화
4. 반유대주의 자료 모음
5. 리틀록 유닛

– 사회 연구 전문가 학습

1. 홀로코스트와 인간 행동 2025년 여름 온라인 강좌
2. 민주주의와 자유 교육 세미나
3. 리틀록 워크숍에서의 선택: 시민권 운동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

• **시민교육(Civic Education)**

- 시민교육의 접근 방법

1. 탐구: 역사를 마주한 학생들의 목소리와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들이 시민적 행위와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2. 학습: 역사와 현재 사건, 시민 참여의 복잡성을 탐구·분석·토론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시민적 지식과 이해력을 키운다.
3. 참여: Facing History는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활용해 학생들이 정보에 근거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관점을 공유하고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추천 자료

1.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 평가
2. 시민적 담론 촉진: 다양한 민주주의에서의 어려운 교실 대화
3. 정치적 양극화 활동
4. 민주주의와 시사
5. 반성에서 실행으로: 참여 선택 툴킷

– 시민교육 전문가 학습

(교사 연수 자료)

1. 양극화된 시대의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한 교육
2. 도전적인 시대에 학생들의 시민적 상상력 개발
3. 시민교육을 위한 전문적 학습

다) 교육 자료(Teaching Resources)

(1) 시사 교육 자료의 강조

교육 자료의 하위 메뉴로써 시사 교육(Teaching Current Events)를 둔 점도 특징적이다. 시사 교육은 학생들이 현재 사건과 사회적 쟁점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민주주의와

선거, 인권, 이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뉴스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적 담론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 참여와 변화를 위한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결국 시사 교육은 학생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 시사 교육

1. 왜 시사를 가르쳐야 할까?

- 현재 사건, 과거와 현재의 딜레마, 문학과 현대 세계의 연결을 토론하며 사회와 더 깊이 소통한다.
-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의견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사실과 증거를 평가해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심화한다.
- 오늘날 나타나는 편견과 증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맞서는 바람직한 모델을 탐구한다.
- 일상생활과 뉴스 소비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전략을 기른다.

2. 시사를 활용한 교육 방법

(관련 자료)

: 시사 톨킷, 시사를 활용한 자기 주도 워크숍 교육, 시사 교육, 시민적 담론 촉진, 폭력의 여파 속에서의 교육, 건강한 뉴스 습관 만들기, 머리 심장 양심,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

3.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자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미국 민주주의 희망과 취약성, 새로운 세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등장하다, 미국의 투표권,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대법원·신뢰·정치적 당파성

4.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권

(관련 자료)

: 교실에서의 생성 AI 윤리, 생성적 AI 콘텐츠 탐색 학습, 온라인 증오 표현이 현실 세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영향력 유명한 그리고 온라인 증오의 위험성, 소셜 미디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팩트 체커처럼 뉴스를 읽는 방법

5. 시민권 및 인권

(관련 자료)

: 뉴스 속 인권, 대량 학살이란 무엇인가, 반유대주의와 그 영향, 이슬람 혐오증이란 무엇인가?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표적화, 경찰 활동과 인종적 불의의 유산, 증오 범

죄와 그 영향에 대한 교육, 증오 범죄란 무엇이고 증오 범죄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시민 참여 및 변화 만들기

(관련 자료)

: 예술 상상력 그리고 인종적 정의를 향한 탐구, 고난과 희망(아만다 고먼의 시), 젊은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다. 위기 시대의 공동선

7. 이민 및 난민

(관련 자료) 사람들은 왜 이주하는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교육, 이민자 구급에 대한 다양한 관점, 미국-멕시코 국경의 아이티 이주민들)

(2) 미국 역사 교육과정(US History Curriculum) 컬렉션

제공된 교육 자료를 통해 미국 역사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정체성·민주주의·자유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단순한 연대기적 지식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툴킷, 유닛, 탐구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교사의 수업 준비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방법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미국 역사 속 민주주의와 자유를 탐구하다

1. 기초 과정(정체성 탐구 및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 자료)

(관련 자료)

- 1) (툴킷) 학교로 돌아가기
- 2) (유닛) 나의 이야기: 미국에서의 정체성 탐구
- 3) (탐구)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며: 미국 역사 탐구

2. 보충 커리큘럼: 유연한 미국사 단원 및 탐구

(관련 자료)

- 1) (탐구) 우리 국민: 미국 건국의 교육 확장
- 2) (유닛) 재건 시대 3주 과정
- 3) (탐구) 엔젤 아일랜드 이민국: 미국 역사 속 국경과 소속감 탐험
- 4) (유닛) 전 세계가 보고 싶었던 에밋 틸 살인 사건
- 5) (탐구)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수감: 미국 역사 탐구
- 6) (유닛) 리틀록 유닛의 선택

3. 최종 캡스톤 프로젝트(교사를 위한 가이드 및 툴킷)

(관련 자료)

- (미니 유닛) 민주주의와 자유: 미국 역사 캡스톤 프로젝트

(3) 교수 전략(Teaching Strategies)

교육 자료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안내한다. 학생들이 텍스트와 자신, 세계를 연결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하도록 돕는 다양한 교수법을 제공하는 메뉴이다. 정체성 차트, 협약, 저널 등은 자기 성찰과 포용적 교실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소크라테스 세미나, 피쉬 볼 토론, 빅 페이지 등은 협력적이고 비판적인 담론을 촉진한다. 갤러리 워크, 퍼즐 활동, KWL 차트 등은 참여 중심 학습을 활성화하고 학습 과정을 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식 습득을 넘어 민주적 소통과 공동체적 책임을 배울 수 있다.

주요 교육 전략 (교수 전략 안내)

1. 텍스트-텍스트, 텍스트-자신, 텍스트-세계
2. 정체성 차트
3. 퇴장 티켓
4. 소크라테스 세미나
5. KWL 차트
6. 상호존중과 포용의 교실 마련을 위한 협약
7. 교실에서의 저널
8. 갤러리 워크
9. 퍼즐- 커뮤니티 개발과 지식 개발
10. 머리, 심장, 양심
11. 피쉬볼 토론 전략
12. 빅페이지-조용한 대화 구축
13. 마지막 말은 나를 위해 남겨주세요
14. 보고, 생각하고, 의문을 갖다
15. 랩어라운드

라) 가르칠 준비하기(Prepare to Teach)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주요 메뉴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시작 화면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클릭하고 만나게 되는 메뉴이다. 교사의 가르침을 지원하기 위한 메뉴로 실제적 효용성을 갖는다. 수업 실현의 과정을 시작(Get Started) - 실현(Implement) - 성찰(Reflect) - 공유(Share)의 4단계로 단순하게 요약화하면서 FHAO의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단계: 시작하다

1. 기초를 놓다
·동영상 1. 존 아마에키가 현재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다

- 동영상 2. 커리큘럼 계획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
- 가이드 3. 시민적 담론 촉진: 다양한 민주주의에서의 어려운 교실 대화

2. 공평한 학습 환경 조성하기

- 1) (전문적 학습) 학생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와 주체성을 구축하기
- 2) (툴킷) 학교로 돌아가기: 연결과 학습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 3) (미니 레슨) 학생들과 함께 교실을 공동 설계하기

3. 교육 실습 구축하기

- 1) (전문적인 학습) 효과적인 교육 전략
- 2) (가이드) 첫 수업 학생들과 약속 만들기
- 3) (비디오 및 가이드) 교실에서 탐구 문화 지원하기

2단계: 실현하다

1. 모든 교육자를 위해
(툴킷) 학교로 돌아가기: 연결과 학습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2. 영어 언어 예술
 - 1) (가이드) ELA 유닛 계획 가이드
 - 2) (수집) 앵무새 가르치기.
 - 3) (텍스트 세트)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3. 역사 및 사회연구
 - 1) 재건 시대 3주 과정
 - 2) 엔젤 아일랜드 이민국: 미국 역사 속 국경과 소속감 탐험
4. 사회과 및 시민교육
- 미니 레슨: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 평가)
5. 자문
 - 1) (수집) 커뮤니티 문제: 역사와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 자문 접근 방식
 - 2) (수집) 개장 및 폐장 루틴 수립
 - 3) (전문적인 학습) 학교에서의 정의, 형평성, 시민적 권한을 위해 일하기: 클린트 스미스와의 대화

3단계: 반성하다

1. 목적의식 있는 반성
2. 교실에서 시작하기
 - 1) 활동: 속도를 늦춰 주세요.
 - 2) (뉴스에서) 교육적 형평성을 위한 필수 교사 습관

4단계: 공유하다

1. 역사에 맞서며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세요.
2. 이번 주 아이디어 공유 (Teaching Resources로 연결)
3. 컬렉션, 툴킷, 단원, 수업 등을 공유하세요.
4. 다른 사람들을 전문가 학습에 초대하세요.

마) 그 외

FHAO에서 개발된 자료 중 홀로코스트와 인간 행동 사례 컬렉션은 사이트 내의 다양한 툴킷과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이를 모아 하나의 텍스트로 묶어 역사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특별히 해당 컬렉션의 자료 접근 및 활용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홀로코스트와 인간 행동

1. 이 컬렉션에 관해

1) 학습 목표 : 논증적 에세이를 작성한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심층 연구를 이끄는 기본 자료 비디오 및 독서 자료를 탐색한다. 우리와 그들의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결과를 인식한다. 나치당이 집권하고 대량 학살을 저지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

2) 범위와 순서

- 이 여정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 신념, 태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 이어서 학생들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례를 탐구하며, 이러한 인간 행동의 패턴이 과거에 개인이 불의와 대량 학살에 직면했을 때 내린 선택(참여, 방관, 저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역사가 오늘날의 세상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 지 성찰하고, 더 인간적이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우리의 범위와 순서는 학생들의 역사적 이해, 비판적 사고, 공감, 사회정서적 학습을 증진한다.

3) 추가 맥락 및 배경

4) 교수 노트: 관련 지침 안내

- 교수 노트 1: 홀로코스트와 인간 행동 활용
- 교수 노트 2: 감정적으로 도전적인 콘텐츠 가르치기

·교수 노트 3: 성찰적인 교실 커뮤니티 육성

5) 자료 탐색 (12개) - 인쇄본의 목차

- ①개인과 사회, ②우리와 그들, ③세계대전: 선택과 결과,
- ④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의 취약성, ⑤국가 사회주의 혁명,
- ⑥국가 공동체의 적응과 동의, ⑦공개적인 공격과 세계의 반응,
- ⑧인종과 공간을 위한 전쟁, ⑨홀로코스트, ⑩심판과 정의, ⑪유산과 기억
- ⑫참여 선택, ⑬홀로코스트와 인간 행동에 대한 권장 자료

6) 추가 자료를 통해 주제 이해를 심화

- 전시 북아프리카의 홀로코스트와 유대인 공동체
- 나치 통치 하의 게이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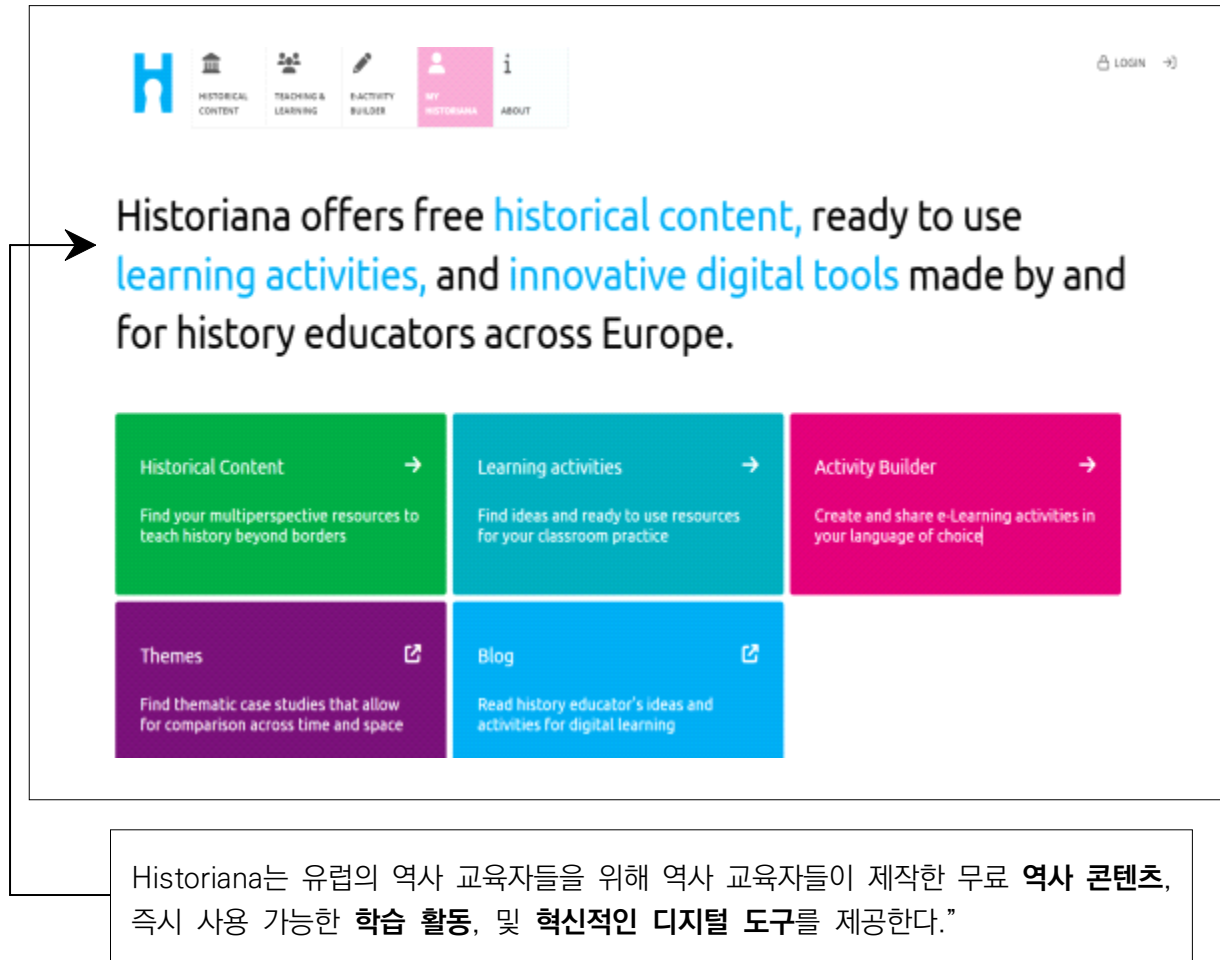
7) 연동된 자료들

- 생존자와 증인: 영상 증언
- 영상 구술을 통한 교육
- 파르티잔을 탐험하세요.

4) 총평

- FHAO는 사이트 명칭인 ‘역사와 우리 자신을 마주하기’에서 드러나듯, 역사를 개인의 삶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타인의 역사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을 오늘날의 윤리적 선택과 연결하도록 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 자료 제시는 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방식을 취한다. ①교육적 맥락을 안내하고, ②역사 교육 자료를 제시한 뒤, ③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 자료까지 제공하여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자료 분류는 단순한 내용 지식 중심이 아니라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주제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화면에 동일한 자료가 반복 노출되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 FHAO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자료를 꾸준히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교육 자료의 주제별 구성 논리(Scope & Sequence)는 개인 → 역사 사례 → 오늘의 적용 순서로 이어지며, 학생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문제와 역사를 연결해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을 지닌다.

다. 히스토리아나(Historiana)³⁸⁾



[그림 III-13] Historiana 초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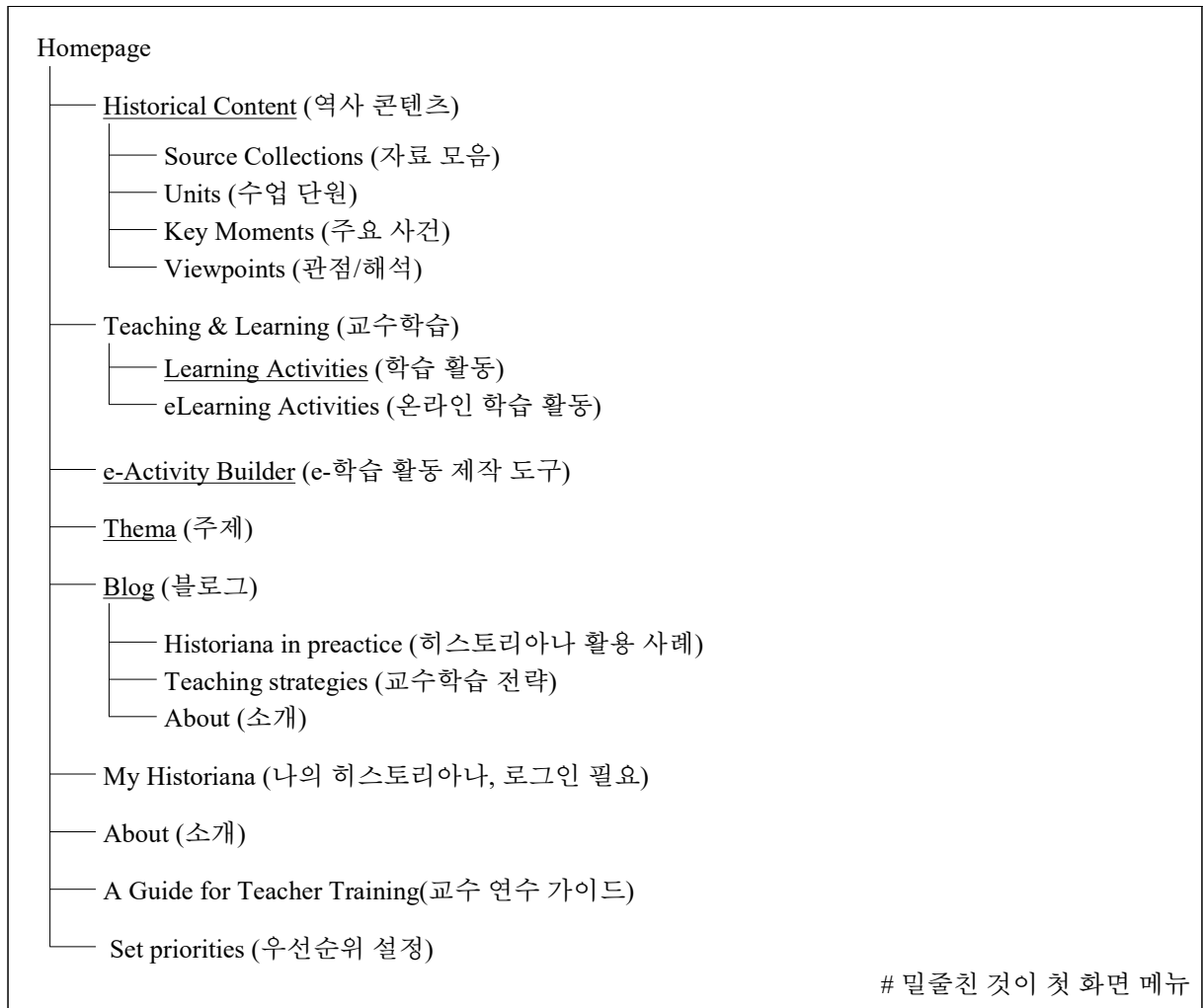
1) 운영 주체

히스토리아나는 유로클리오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디지털 역사교육 플랫폼이다. 개발 과정에서 Europeana(유럽 디지털 문화유산 네트워크)와의 협력도 포함되며,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플랫폼 개발과 콘텐츠 제작은 Historical Content 팀, Teaching and Learning 팀, 그리고 Concept, Development and Design 팀이 함께 수행하며, 이들은 유로클리오 산하에서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기획·제작·유지 보수한다. 유네스코, 유럽 위원회 등과도 연계를 맺고 있으며 강사, 역사학자, 교사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며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38) <https://historiana.eu/>

2) 사이트 구성

<표 III -9> 히스토리아나 사이트맵 구성



3) 사이트 구성 논리 및 특징

가) 역사 콘텐츠 (Historical Content)

(1) 역사 콘텐츠의 층위별 배열

해당 사이트는 역사 자료가 아니라 역사 콘텐츠의 맥락에서 관련 내용을 분류하였다. 5개의 항목 - 중요한 순간들, 서사, 사료 컬렉션, 단위, 관점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중요한 순간들’은 전쟁과 같은 결정적 사건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며, ‘서사’는 주제별로 짧은 단락과 시각 자료를 통해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케 한다. ‘사료 컬렉션’은 동시대인의 기록과 자료를 묶어 원천적 이해를 돕고, ‘단위’는 교실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학습 모듈을 제공한다. 또한 ‘관점(viewpoints)’은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여 역사적 다원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화한다. 이러한 분류는 역사교육을 맥락적·비판적·참여적 학습 경험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2) 역사 콘텐츠의 구성

1. 중요한 순간들(key moment)

-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을 다룬다.
-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전체 서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예시) World War 1의 경우

- 전쟁 이전의 세계 (The World Before the War)
- 전쟁으로의 추락 (The Descent Into War)
- 전쟁의 시작 (The War Begins)
- 전쟁의 주요 순간들 (Key Moments in the War)
- 전쟁의 전개 방식 (How the War was Fought)
- 전쟁의 체험 (Experiencing the War)
- 전쟁의 여파 (The Aftermath of the War)
- 전쟁의 기억 (Remembering the War)

2. 서사(narratives)

- 주제별로 비교적 긴 글을 제공한다. 하지만, 단락이 짧게 나누어져 있고, 시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 웹상에서 읽기 어렵지 않다.
- 서사의 글들은 <시작-요약-읽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 서사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 유럽의 경험: 불평등, 유럽의 아이디어, 시위와 사회 운동, 국경과 이주, 유럽의 타자들, 인구 통계적 변화, 가정과 가족, 인종 간 관계, 과학과 기술 변화, 교육과 지식, 사회 공학과 복지, 환경 이해 및 제어, 국가 건설과 민족주의, 제국과 식민주의, 혁명과 내전, 평화와 갈등, 기업가, 회사 및 시장, 부의 분배, 생산과 소비, 노동과 강제 노동, 유산과 기억, 종교, 실험과 아방가르드, 이념, 스포츠와 레저,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중심과 주변, 세대와 생애주기
- 유럽과 세계: 유럽인의 미국 이민, 사회와 팬데믹: 인종차별, 인종 불평등과 팬데믹
- 역사교육과 시민성: 질문의 기술, 민주적 문화를 위한 역량 프레임, 역사교육에서의 다원적 관점

3. 자료 컬렉션(source collections)

- 주제에 해당하는 자료의 모음
- (예시) 동시대인의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Contemporaries' view of Napoleon

This source collection will introduce and explain contemporaries views of Napoleon, including views from his associates and/or advisors and from his critics. Napoleon's influence was far-reaching and here opinions from France, Britain, USA, Russia, Prussia and Austria will be gathered. This source collection will help pupils to compare and contrast these differing perspectives on Napoleon.

This source collection was made by Francesca Rabitti, Grace Sohota and Vera Westerheijden as part of the Europeana DS44 project. The collection makes use of sources from Europeana Collection.



마담 드 스탈(1766-1817)은 역사가이자 작가로, 그녀의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의 지지자였지만, 로베스피에르 시대에 프랑스를 떠나 로베스피에르의 죽음 이후 파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나폴레옹이 장군이었을 때 이 말을 했지만, 그가 제1 총재가 되고 이후 황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 제국 기간 동안 그의 가장 큰 비판자 중 한 명이 되었으며, 1804년에 10년간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료 설명)**

“(보나파르트) 그는 인간을 행동이나 물건으로 여기지, 동료 창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다. 그에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며, 다른 모든 존재는 숫자일 뿐이다. 그의 의지는 이기적인 계산에 방해받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체스 선수이며, 인간 종족은 그가 체크메이트를 제안하는 상대이다...” 마담 드 스탈, 1818 **(사료 원문)**

출처: 마담 드 스탈: F. 제라르의 원본 그림에서, 파리의 M. 드 브로글리 소장, 프랑수아 제라르, 1853,

• 종류

- (고대와 중세 유럽): 그리스/로마의 발명이 유럽인의 삶의 발전 미친 영향, 볼로냐와 중세 대학의 발흥, 커피하우스의 사회사와 커피의 경제사, 수학과 마법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대, 종교 개혁의 전조, 16~17세기 가톨릭과 개신교 미술 비교
 - (계몽주의와 제국): 카트리나 2세, 다양한 자료에서 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동시대인이 본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유산, 국가 의인화
 - (산업화와 사회 변화): 산업화 이전 세계의 에너지, 화석 연료의 기원과 초기 사용, 철도와 연결성 / 철도와 연결망, 노동하는 사람들, 노동 현장의 여성 시각 재현 / 일하는 여성들의 시각적 재현, 19세기 말의 기술 혁신, 산업혁명의 발명품
 - (과학과 지식): 찰스 다윈- 생명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 지식, 문화유산
 - (전쟁과 기억):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제1차 세계대전 속 여성들, 제1차 세계대전의 엽서, 사진작가의 1차 세계대전 기록, 포스터 속 스페인 내전, 공산 중국의 포스터, 동독 포스터, 예술과 전쟁, 유럽의 전쟁 이후
 - (현대 유럽과 사회): 1950년대 유럽의 생활, 축구의 작은 역사, 유럽의 경험: 문화적 만남, 경제, 정체성, 차이를 가지고 사는 삶, 권력과 시민권, 회고록의 역사, 초상화의 역사, 예술적 이미지, 항공의 역사
- # 괄호 속 분류는 필자

4. 단위(units)

- 특정 역사적 주제나 사건, 기간 등을 중심으로 교실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모듈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 주제별로 여러 자료(텍스트, 시각 자료, 활동 등)를 체계적으로 묶어 제공하여, 학습 흐름에 따라 연속적이고 통합된 탐구가 가능하다. 이때 제공되는 자료들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려 받기가 가능할 수 있게 하거나, 도표가 움직일 수 있도록(가령, 시기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입체감 있게 설계하였다.
- 교사들의 효율적 수업 계획과 구성을 돕는다.
- 종류: 재판 없는 구금, 변화하는 유럽, 검열을 통한 시민의 침묵

5. 관점(Viewpoints)

-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예: 정치인, 시민, 언론, 피해자, 가해자 등)을 소개해, 사건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학습자들이 비판적 사고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관점들의 차이점과 맥락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역사적 ‘관점 갖기(perspective taking)’역량, 즉 타인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는 공감 능력과 역사적 맥락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한다.
- 종류 (7개 대분류)

- 문화유산: 세실 로즈의 상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거되어야 하는가?, 터키 카르스의 동상, 거리 이름 변경, 하기사 소피아
- 국경과 자결권: 북아일랜드의 사례, 크림반도의 사례, 카탈루냐의 사례, 코소보의 사례
- 이동하는 사람들: 이주민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사람들은 왜 이동하는가?, 블로라 화물선 사건
- 압력 속에서 살아남기: 그리스의 기근, 알제리 전쟁, 터키의 경험
- 정체성과 공동체: 차이를 가지고 사는 삶, 정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배제와 포용
- 권력과 갈등: 권력과 시민권, 국가 의인화, 저항과 참여
- 기억과 재현: 회고록의 역사, 초상화의 역사, 예술적 이미지

나) 교수-학습(Teaching & Learning)

(1)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학습 도구로써 학습 활동(learning activities)

배우고 가르치기의 하위 메뉴로써 학습 활동(Learning Activities)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메뉴는 교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습 자료로서 교사의 수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출처 분석, 비교, 맥락화 등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형식과 난이도로 제공되어 수업 목표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활동과 연계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결국 이는 전통적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아우르는 유연하고 탐구적인 교수-학습 도구라 할 수 있다.

(2) 학습 활동(learning activities)의 구성

특정 주제에 대한 교사 자료로써 ‘활동하기의 정보 및 학습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 자료로써 ‘워크시트 (사료+질문)’가 구성되어 있다.

The screenshot shows a digital learning activity pag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icons for 'HISTORICAL CONTENT', 'TEACHING & LEARNING', 'E-ACTIVITY BUILDER', 'MY HISTORIANA', and 'ABOUT'. The main title is 'Everyday inclusion and exclusion in Nazi society' with a subtitle 'How inclusion and exclusion was done by people in the Nazi society - and happens today?'. The author is 'Daniel Gaede and Leonie Wieser'. Below the title is a paragraph of text and a drawing of a woman. A 'Downloads' section lists 'Teacher material' (Information about the Learning Activity Word, Information about the Learning Activity, Lesson Plan Word, Lesson Plan) and 'Student material' (Student Worksheet, Student Worksheet Word).

다) E-activity builder (수업 도구)

(1) 디지털 학습 자료 생성을 위한 도구 제공

히스토리아나의 eActivity Builder는 교사 및 학습자가 도구를 활용해 직접 온라인 활동을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이미지, 질문, 비교, 발견 도구 등 다양한 블록을 조합해 수업 목표에 맞는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설계된 활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출처 분석, 맥락화, 비교, 근거 기반 추론 등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이미지, 외부 링크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합해 학습자의 몰입과 디지털 참여를 높인다. 교사들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난이도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학생과 실시간

상호작용과 피드백도 가능하다. 구성된 자료는 다른 교사와 공유하거나 가져와 맞춤형으로 수정할 수 있어 협업적인 자원 활용도 가능하다.

(2) E-activity builder의 활용 사례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atirical Map: Hark! Hark! the Dogs do Bark!' activity in an E-activity builder.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a red header with the title and a 'Add to my Historiana' button. Below the title, there is a descriptive text block about the map's history.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colorful satirical map of Europe from 1914, where countries are depicted as various animals and military figures. A red arrow points from the map area down to the 'Create your e-Learning Activity' panel at the bottom. This panel includes a toolbar with icons for text, questions, tables, images, multimedia, video/audio, comments, and sections, and a workspace for building the activity.

기존 사이트(위)에서 필요한 그림, 사진 등을 E-activity builder로 불러와 자신만의 디지털 학습 자료를 구성할 수 있음. 학습자료 생성 도구 안에는 ‘텍스트, 질문, 포함, 정렬, 강조, 비교, 발견’의 요소 등을 필요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라) 교사 연수 가이드(A Guide for Teacher Training)

(1) 디지털 시대 역사교육을 위한 실천적 교사 연수 가이드 제공
 히스토리아나는 자료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 가이드도 함께 제공한다. 해당 연수 가이드는

배경 정보와 기관 소개를 통해 유로크리올, Europeana, 히스토리아나의 교육 철학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양질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필수 요소와 기술 활용의 의미를 강조하여, 전통적 역사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방향을 제안한다. 연수 과정은 워크숍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 사고 설명, 교수 전략 공유, 예시 활동 제시 등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연대기 이해, 시각 자료 활용, 역사적 논증 구성 같은 다양한 교수 전략을 구체적 사례로 다루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돕는다. 또한 히스토리아나의 시연과 온라인 학습 활동 설계 단계는 교사들이 디지털 학습 도구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결과의 공유와 토론, 피드백 과정은 교사 간의 협력적 학습 공동체 형성을 장려하며, 지속적 성찰과 개선을 가능케 한다. 결국 이 가이드를 통해 역사교육을 비판적·참여적·디지털 친화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며 역사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 역량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교사 연수 가이드의 목차 및 주요 내용

- 목차 -

1. 배경 정보
2. 소개 - 유로크리올, Europeana, 히스토리아나
3. 우리의 견해 - 양질의 역사 교육을 위한 필수 요소 / 기술과 교육
4. 워크숍 계획하기
 - 1) 워크숍 소개
 - 2) 역사 교육에서의 기술 논의
 - 3) 역사적 사고 설명하기
 - 4) 특정 개념이나 기술에 대한 교수 전략 공유하기

(예시 활동)

- 연대기, 시간, 장소 이해하기
- 역사적 관점 취하기
- 시각적 리터러시 기술 적용하기
- 특정 자료 유형 사용하기(예: 만화, 지도, 신문)
- 역사적 논증 구성하기

- 5) 히스토리아나 시연하기
- 6) 역사 탐구 계획하기

1. 학습 성과 정의하기: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2. 학습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결정하기: 학생들이 기대한 내용을 실제로 배웠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3. 탐구 질문 개발하기: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을 구조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4. e러닝 활동에서 사용할 대화형 구성 요소 결정하기: 어떤 역사적 콘텐츠, 지식 개념, 역사적 개념이 탐구 활동에 포함될 것인가? 학생들이 개념을 학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화형 빌딩 블록은 무엇인가?
5. 활동 구성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가? 텍스트, 과제, 질문을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한다.
6. 온라인 학습 활동의 자료 선택하기: 잘 선택된 자료는 탐구 활동에 필수적이다. 히스토리아나의 엄선된 자료 세트를 활용하거나, Europeana의 디지털 컬렉션에서 검색하거나, 직접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다.
7. 내 히스토리아나에 저장하기: e러닝 활동을 만든 후에는 나의 히스토리아나에 저장하여 학생들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7) 결과 공유 및 토론하기.

8) 유럽사 및 히스토리아나에 피드백하기

유로클리오 선언문

추가 자료

교사 연수 가이드의 3장 ‘우리의 견해’ 부분은 히스토리아나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낸다.

[양질의 역사교육을 위한 필수 요소]

· 증거 기반 토론

역사 수업에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답이 똑같이 타당한 것은 아니다. 타당성을 가르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증거’이다. 교사와 학생은 과거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다양한 역사

오늘날 사람들이 성별, 출신지, 가계, 가족 전통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듯, 역사 수업 또한 다양한 과거를 반영해야 한다. 강력하고 지배적인 집단의 과거만 선택해서는 안 되며, 여러 집단과 개인의 경험과 관점을 함께 탐구해야 한다. 과거는 현재만큼이나 다양하다.

·역사와 과거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해

과거는 결코 완전히 재현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편적인 사료뿐이다. 이 사료를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이론, 즉 ‘역사적 해석’을 구성한다. 따라서 어떤 사료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먼 과거의 경우 남아 있는 기록은 대체로 지배 집단의 경험을 반영한다. 이런 왜곡을 보완하기 위해 고고학이나 구술사와 같은 다른 유형의 사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같은 사료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주제와 해석 방식은 현재의 문제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복원할 수 없는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을 받으며 복잡하게 인식된다.

·역사적 개념 (Disciplinary concepts)

역사는 고유한 용어와 개념적 접근 방식을 지닌 학문이다. 학생들은 전문 역사가가 어떻게 사고하고 연구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 증거를 활용해 해석을 발전시키기
- 변화와 연속성을 설명·평가하기
- 원인과 결과를 설명·평가하기
-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을 설명·발전시키기
- 학습 과정을 구조화하기 위해 역사적 탐구를 발전시키기
- 책임 있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 즉, 학생들은 역사가처럼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과서를 넘어선 지식

학교 교과서는 또 하나의 역사적 해석일 뿐이다. 학생들은 교과서가 과거에 대한 유일

한 지식이나 절대적인 해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를 포함해 다양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기술과 교육]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자동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역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다.
- 교육 자료의 선택 기준은 ‘디지털 여부’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 여부여야 한다.
- 디지털 자료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의미 있는 역사 학습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디지털 자료의 활용은 학습자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새로운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4) 총평

- 히스토리아나는 분명한 역사교육 목표를 제시한다.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시민을 양성하려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운다. 온라인 수업에서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과 자료 제공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전 세계 역사 교사 누구나 무료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유럽 차원의 교육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개방성에도 부합한다.
- 히스토리아나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풍부한 자료와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 무료 역사 콘텐츠, 학습 활동, 디지털 도구를 한곳에서 지원해 수업 설계의 가능성을 넓히며, 주제별 자료, 자료 컬렉션, 수업 활동 템플릿 등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히스토리아나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생성의 학습 도구를 마련한다. eActivity Builder를 통해 질문, 비교, 하이라이트, 정렬 등 다양한 빌딩 블록을 드래그하여 직접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나의 히스토리아나에서는 저장·복제·수정·공유가 가능해 협업과 재사용이 용이하다.
- 온라인 교사 가이드(Teacher Training Guide)는 교사들이 수업 설계 원리와 활용 절차를 단계 별로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가이드는 단순히 자료와 도구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실행-개선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 히스토리아나는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시민교육의 질은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음을 인식하고, 상시적인 연수와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히스토리아나는 단순한 플랫폼을 넘어 연수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며, 교사 학습공동체의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3. 시사점

가. 국내 사이트

1) 전문가 협력과 중장기 로드맵으로 신뢰성 있는 역사교육 자료 구축

역사교육자료센터는 신뢰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교육지원단(가칭)·역사교육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이 지원단과 위원회는 역사학자, 현장 역사 교사, 교육 행정가, 사료 전문가, 교육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집필, 감수, 교열, 등재로 이어지는 표준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메타데이터를 명문화하여 자료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민주화 운동 사전 사례처럼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단기적 성과보다 꾸준한 품질 관리와 체계적 확장을 중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시각을 반영해 교육자료가 신뢰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료 유형별 분석 기법 제시

사진·구술·영상 등 자료 유형마다 해석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유형별 분석 기법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교사·학습자가 사료 비판과 수업 적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체크 리스트와 예시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완성형 워크시트보다 사료·질문·활동 묶음 운영

완성형 워크시트보다는 ‘사료로 보는 민주화 운동’처럼 사료 제시와 학습 질문·활동 과제를 묶어 제공하는 자료센터 운영이 바람직하다. 질문은 사실 확인→해석·평가→논쟁적 질문까지 다양한 형태로 위계화할 수 있다.

4) 교육원칙의 확립과 적용

5·18 교육에서 5월 교육원칙과 같이 교육원칙을 상위 카테고리 제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5·18 기념재단의 5월 교육원칙 외에는 안내·권고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통 수업원칙을 체계화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5) 분류·탐색 체계의 일관성 강화

자료 분류·탐색과 필터 기능의 일관성이 떨어져 교사가 원하는 항목을 찾기 어렵다. 공통 해시태그 체계를 도입해 다중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탐색 효율이 높아진다.

6) 계기 교육·체험 학습 관련한 별도의 공간 구성

계기교육과 체험학습 자료는 일반 아카이브와 분리된 전용 공간에 모아두는 것이 현장 수업 준비에 효과적이다. 이 공간에서는 현장학습 동선, 신청 절차, 안전 가이드를 함께 제공하여 체험활동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활발하게 개발·활용 중인 지역사 교육자료³⁹⁾를 집적해 교사들이 쉽게 접근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Q&A 구성의 보완

쟁점·핵심을 빠르게 노출하는 Q&A 구성은 효율적이지만, 심화학습을 방해할 위험도 있다. 자료 기반 설계와 충분한 링크 제공을 결합해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8) 자료 기반형 학습 지원 확충

국내 자료센터 전반에 자료 기반형 학습 지원이 부족하다. 현장 역사교육이 자료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진행하기 위한 수업 설계 도구와 수업 방안 등을 제안해야 한다.

나. 해외 사이트

1) 자료 기반 학습 중심 설계

해외 사례는 자료에 직접 접근해 분석·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원문-맥락-과제를 한 경로로 잇는 구조가 역사 탐구의 가능성을 높인다.

2) 범교과 활용성

역사뿐 아니라 사회·윤리·시민교육 등 여러 교과에서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다(예: FHAO의 사회 정의 교육). 이 같은 경우, 교과 간 협력 수업에도 유리하다.

3) 원칙·가이드 동반 제공

자료·콘텐츠와 함께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수업 품질 기준을 뒷받침한다. 교사의 설계 일관성과 현장 적용성이 높아진다.

39) 장재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복 80주년 맞아 ‘별빛 역사 동행’ 한마당 연다」 《에듀프레스》 2025.8.26.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8>

4) 운영 주체의 다양성과 공공성

국제기구·민간이 주도하되 공공 지원이 결합되는 사례가 많다. 공공성의 투명성과 민간의 유연성을 균형 있게 조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5) 지속적 업데이트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수업 활용도를 높인다. 업데이트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높인다.

6) 정기적 피드백 구조

사용자·전문가 피드백을 정례화해 분류 체계·검색성·활동 구성을 주기적으로 개선한다. 평가-개선의 선순환을 제도화한다.

7) 연수·프로젝트의 내재화

기관이 자체 연수·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권고안과 가이드를 생산·보급한다. 교사 전문성 강화와 커뮤니티 확장에 기여한다.

8) 다언어 접근성

영어를 기반으로 하되 여러 언어로 제공해 접근성을 넓힌다. 지역 맥락에 맞는 번역·현지화로 실제 수업 적용을 돕는다.

다. 주요 시사점

1) 전략적 명확성

센터의 미션·비전·목표·역할·핵심 과제를 명료하게 정의해 내부 의사결정과 외부 협업의 기준점을 세운다.

2) 콘텐츠 큐레이션과 접근성

단순 수집을 넘어서 주제·난이도·형식에 따른 세심한 큐레이션과 다채로운 구성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다원성을 다루는 역사교육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다.

3) 복잡한 주제를 다루기 위한 교육적 지침 설정

역사에서 논쟁성과 다원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잘 고안된 교육학적 접근과 현장성에 기반

한 직관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실 현장에서 역사교사들이 ‘무엇을·어떻게’ 할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4) 이해관계자 설정과 소통

주요 사용자(교사·학생·시민)를 전제로 연구자-교사-학생 연계를 구조화하고, 국제 교류를 통해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 장기적으로 공공역사·공공역사교육 생태계의 거점이란 비전을 갖고 관계망을 키운다.

5) 시민 참여형 체계

서울시교육청 역사교육지원단(가칭)·역사교육위원회와 연동해 교사·학생·학부모·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숙의를 정례화해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6) 디지털·온라인·영문화(플랫폼) 전략

디지털 퍼블리싱과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예: 히스토리어나 유형)의 결합으로 국경을 넘는 도달 범위를 확보한다. 핵심 자료·활동·가이드를 영문으로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한다.

7) 온오프라인의 연동

온라인상에 역사교육센터가 작동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역사자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교사 연수 진행, 자료센터의 자료를 기반한 수업 사례발표회 등을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8)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단계별 장기 계획

준비·구축기 → 도입기 → 정착기 → 활성화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수립해(예: 진로 교육센터, 한국 교육 자치 연구원 사례 참조) 자원·인력·평가 지표를 단계별로 설계한다. 내외부적인 정치적 요구와 압박에서 비전·미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Ⅳ.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요구 분석

1. 참여자

<표 IV-1> FGI 참여자 구성

연번	급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중학교	원○진	강○중	교사	A
2		박○선	선○중	교사	B
3		주○석	잠○중	교사	C
4		윤○빈	상○중	교사	D
5	고등학교	권○식	효○고	교사	E
6		강○원	연○고	교사	F
7	초등학교	김○진	경기 덕○초	교사	G
8	고등학교(관리자)	김○옥	효○고	교감	H

2. 일시 및 장소

2025년 8월 21일(목) 오후 7시~9시. 온라인(Zoom)

3. 조사 설계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작업을 실시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초등의 의사도 수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도 섭외하였다. 연구진 내부 회의를 거쳐 작성한 <표 15>의 질문지를 사전에 배포하고 한 자리에 모여 집중 토론을 실시하였다.

<표 IV-2> FGI 참여자용 질문지

<p>가. 디지털 교육 자료에 기반한 주제 중심 역사교육</p> <p>Q1. 현재 역사 수업(수업 준비, 진행, 평가 등)에 디지털 교육 자료를 활용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p> <p>Q2. 자료에 기반한 주제 중심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사교육자료센터가 어떤 유형의 자료나 기능을 제공하면 좋을까요?</p> <p>나. 논쟁성을 구현하는 학습</p> <p>Q3. 5·18 민주화 운동, 친일 청산,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등 논쟁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수업에서 다룰 때, 교사에게 어떤 지원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

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배양

Q4. 일본군 ‘위안부’ 부정, 홀로코스트 부정 등과 같은 역사 왜곡이나 디지털 환경의 가짜 뉴스에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자료센터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디지털 리터러시 :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생성하고, 공유하는 능력

라. 역사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구성

Q5. 역사교육자료센터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면 좋겠습니까?

* 역사교육의 공공성: 교사, 학생,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역사교육의 성과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과 참여

4. FGI 조사 활동

가. 디지털 교육 자료에 기반한 주제 중심 역사교육

A: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참고를 하는 데 사실 인터넷에 자료들은 정말 많은데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고 수업에 제공하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료를 찾는 거는 쉽지가 않고, 품이 많이 들더라고요. 센터가 있으면 확실히 수업을 진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받았는데요. 여러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들과 구체적인 활동까지 제시해 주셔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수업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수업을 할 때 저는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어보고 스스로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요. 어떤 유형의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주셨을 때 그래도 텍스트나 사료 중심의 자료가 중심이 되면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다 생각했고요. 또 이것만 영상이나 이미지도 탑재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판사 홈페이지 같은 데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손이 잘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 눌러서 확인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터넷이나 SNS에 선생님들이 올리는 자료들 아니면 제가 품을 좀 들여서 원하는 자료들을 찾아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를 탑재하실 예정이라면 간단한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할 때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과 학생들한테 어떤 질문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탑재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B: 제가 역사 수업을 할 때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검증된 자료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게 일단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요즘 학생들이 집중력과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영상 같은 걸 보여줘도 긴 길이의 영상들은 활용하기 힘들고 글이 들어가 있는 사료나 아니면 가공이 되어 있는 사료 같은 것도 제가 꼭 한 번씩 더 말을 풀어서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공되는 플랫폼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료에 기반한 주제 중심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범주를 나눠 각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어려운 역사 용어를 해설해 주는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교사가 꺼내서 보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 학생들이 들어가서 쉽게 용어에 대한 해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디벗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거를 수업에서 활용하더라도 저는 처음에 쓸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인터넷도 잘 쓸 수 있는 환경이고 학생들이 검색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학생들이 검색을 하는 사이트나 플랫폼이 제한적이어서 이거 뜻 찾아봐라 해도 결국에는 유튜브나 구글만 검색하고 끝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짚어줘야 하니까 그럼 저는 수업도 나가야 하니까 부담이 있어서 학생들이 역사 용어에 대한 해설을 찾아볼 수 있는 전문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F: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만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이번에 5.18 사례 주신 거가 딱 그거를 구현한 것 같고 저는 5.18 수업할 때 예시로 주신 자료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만드는 거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구요.

한국사랑 세계사랑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다룰지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한국사에서 만약에 근현대사를 한다면 예시로든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이나 5.18이나 친일 청산 좋은데 이 주제들이 선정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거만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주제들도 더 실을 건지 조금 궁금했구요.

E: 교육 자료를 활용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수업 준비를 할 때 어떤 특정 사건이나 주제와 관련해서 활용 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서 자료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사실 그런 자료들이 많이 아카이빙이 돼 있으면 교사로서 수업 디자인의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은 수업 준비를 할 때 항상 네이버에 주제 수업 명칭을 검색해 보고 전국 역사 교사 모임 게시판에도 검색해 보고 가끔 연수도 듣지만, 파편화돼서 존재하는 수업 사례나 영상이나 사진들이 한군데 모여 있기만 해도 경력이 부족한 선생님들이 처음에 수업 준비를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료의 유형 자체는

원 사료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무엇이든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료가 묶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골랐을 때 묶여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선생님들 각자 나름대로 수업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C: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까 B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었었는데 자료는 정말 넘쳐나는데 검증된 자료, 내가 좀 믿고 쓸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사료나 텍스트로 된 자료들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해야지만 수업 시간에 좀 활용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영상 자료를 적절한 분량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 디지털 리터러시, 역사적 사고력 이제 논쟁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역사교육자료센터가 각각에 대한 수업자료를 제공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러한 사이트가 운영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육 자료센터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까 일단은 다양한 자료들 논쟁성이든 디지털 리터러시 하나의 주제를 놓고도 되게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생각했던 게 세계사 사료들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찾는 접근하는 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사용으로는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그러한 사료들을 쉬운 단계로 제공해서 사료들에 대한 해설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 정도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저는 <사료로 읽는 서양사>가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러티브만이 아니라 그 내러티브의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사를 위한 사료들을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교사 연수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걸 글로만 읽는다면 사실상 교사가 100% 수업에서 재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이 어떠한 의도로 설계가 되었고 이러한 질문이나 자료가 어떠한 의도에서 제시가 되었으면 어떠한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베트남전쟁이라든가 5.18 생존자는 살아계시잖아요. 구술사 자료도 교사가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기회를 교사가 직접 섭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자료센터에서 제공하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G: 저는 5년 차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초등이라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역사교육 관련해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역사 수업에 관심이 많은 초등교사입니다. 초등

에서도 역사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바람이 있고요. 초등에는 이미 교육 자료를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플랫폼이 발달 되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약간 시도만 이루어졌다가 예산만 많이 들이고 제대로 적용이 안 될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 러닝이라고 해서 AI 교과서 같은 AI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했고 선생님들께 많이 홍보하면서 적용을 많이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연수도 많이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활용하는 선생님들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역사교육자료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타겟팅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고 싶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도움이 되어야지 학술적 의미만 가져서는 절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는 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타겟팅을 명확하게 교사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 수업자료를 준비 할 때 이 자료를 수업에 적용해도 될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우리 역사넷이라는 사료 아카이브가 있어요. 국편에서 만든 자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국편의 가장 큰 고민은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만든 사이트인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재미있는 초등 역사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과도하게 인물과 문화유산 중심이고 또 중등 선생님 사료는 너무 학문 위주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어려운 사료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사료와 미디어 자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구분을 한다든지 혹은 역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혹은 초등, 중등의 학교 급별로 구분을 한다든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어야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활용하도록 직접 개발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초등에서 초등 선생님들끼리 직접 만든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인디스쿨)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활용하는데 요새 검정 교과서가 많잖아요. 그리고 검정 교과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료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모든 선생님이 매일 이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과목별로 수업자료가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역사 영역이 사회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들어가면 학년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학년이 들어가면요. 여기에서 또 출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수업마다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자료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역사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 퀴즈 80문항, 동기유발로 들어가면

이것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선생님들께서 직접 찾아서 올려주신다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그 자료에 대한 댓글을 달고 또 답글을 달고 또 '좋아요'를 누르고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문화유산과 관련된 미술 수업을 하고 싶다면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라서 혹은 내가 원하는 탐구 수업이든 토론 수업이든 수업 유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개발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보니 저희는 편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선생님들이 여기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게 문제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의 장점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 선생님들 여러 말씀 들었고요.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이트가 수업을 안내해야지 수업의 자료와 질문을 짜주는 거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사 자신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오는데 손쉽게 수업을 도와주는 것은 반대예요. 선생님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맡는 교사가 자기 교실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아이들의 수준과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 그 교사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좋은 역사 수업을 위해서 좋은 질문과 좋은 자료를 뿌린다고 하여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 선생님과 B 선생님의 학교에서 수업은 달라요. 달라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성해서 제공할 수 있는 건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 구성하는 힘을 길러주는 사이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1단계로는 무조건 교사가 대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아예 고려에 넣지 마세요. 나중에 좀 더 기반과 체계가 잡히고 나서 아이들까지 끌어모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지금은 무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학생들의 문해력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교사도 교육적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 내용, 자료, 질문을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지 그들에게 편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서비스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의 질문 얘기 많이 나왔는데 수업의 발문이야말로 교사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수업하는 교실에 적합한 발문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게 교사예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져서 수업하기가 어려워 용어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가 그걸 느꼈으면 수업에서 아이들이 한 문장을 쉽게 끊이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죠. 아이들이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걸 읽게 만드는 게 일단 1단계 목표가 돼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거기까지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저는 맞기에 그것까지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달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사례로 사이트를 새로 5·18 민주화운동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본 보고서 133~137

쪽 참고) 그것도 저는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5·18을 다룰 때 교사에게 5·18을 다룬다는 의미와 무엇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글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읽어봐야 하는 논문이나 주요 텍스트를 소개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18이라는 사건을 민주시민 교육적으로 아니면 논쟁성을 살려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가이드가 나와야 해요. 자료가 줄줄이 많이 달렸다고 좋은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길러주는 사이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능력을 키워주는 건 이런 사이트나 교육청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걸 정확히 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디스쿨도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교육청이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치에 뛰어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걸 교육청이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과 별도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는 많아요. 역사 교사 모임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교사들이 내가 개발한 자료를 그런 곳에서 공유하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이걸 이거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 있잖아요.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 때 구글 드라이브를 많이 쓰니까 그걸 대체하겠다고 센클라우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자체로 그냥 그것이 갖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죠.

그리고 계속 선별한 자료를 올려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어떤 자료가 올라오고, 어떤 질문들이 나오겠냐고요? 위험합니다. 교사가 어떤 걸 받아서 편하게 수업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는 역사교육을 국민윤리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수업은 교사의 것이어야 하고, 수업은 다양해야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걸 도와주는 사이트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싶고요.

나. 논쟁성을 구현하는 학습

A: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역사교육자료 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논쟁성에 초점을 두는 건지 아니면 역사 교사들이 수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건지 제 생각에는 결국 둘 다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계신지가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도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교사들이 활용하는 거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믿을 만한 자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지, 당연히 모든 게 다 되면 좋겠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 조금 더 명확하게 지향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B: 논쟁성을 구현하는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는 한데 제가 연차가 짧아서 좀 깊게 다

왔던 주제는 5.18뿐이긴 한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매년 다루면서 들었던 생각은 제가 어느 정도까지 다뤄도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누군가가 저에게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월 교육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그것도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좀 수업하신 자료들을 여러 개 보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자료센터가 구축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학생들에게 제시해 줬을 때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략적이라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떤 게 가장 초점을 두고 계시는 지가 헛갈려요. 논쟁성인지 민주시민인지 아니면 이게 공공성을 가지는 사이트인지가 헛갈리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이 초점이 라면 저는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하는 플랫폼이 유튜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에서 5.18 관련 영상을 각자 하나씩 골라서 시청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해보는 수업이 가능해질 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충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수업에서 제가 아무리 자료들을 다 검증한 상태로 알려줘도 집에 가서 유튜브를 찾아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어차피 이거를 출처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검증한 걸 제공해 주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결국 가짜뉴스에 얼마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라 이렇게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영상들을 학생들이 접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 분석하면 적어도 내가 가짜뉴스 하나 정도는 구별해 낼 수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뭐라 그래야 할까요? 절차? 수업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F: 센터의 위상이나 목표가 타겟팅한다면 일단 학생, 교사, 시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집단들을 다 충족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겟팅하는 게 구체적이면 좋겠다 생각했고 또 앞에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위자 관점 같은 걸 살려서 논쟁성이나 다원적 관점 같은 걸 볼 건지 아니면 정말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기를 건지 이게 뭐 다 되면 좋은데 물론 어느 정도 연결된 것도 있는데 초반에 자료를 쌓을 때는 뭔가 명확한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E: 논쟁성을 구현하는 학습과 관련해서 제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1학기에 교실에서 좀 극우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간혹 보여서 2학기 현대사 수업을 앞두고 5.18 같은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학부에서 경험이나 역사 교사로서 그동안 5.18 관련해서 제가 접했던 텍스트나 입장은 좀 다소 건조하게 서술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만 제가 접해왔지 역사 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 부정의 관점에서는 어떤 주

장과 논리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논쟁성을 다루는 수업을 교사가 준비한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물론 알고 있어야겠지만 흔히 역사 부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쪽에서는 어떤 논리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내세우는지를 교사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센터에 논쟁성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에 대한 자료가 모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식적인 사이트인데 역사 부정 쪽에 있는 의견을 함께 심는다는 게 그게 동일한 층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어서 제시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 논쟁성 관련해서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공감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에 비해서는 논쟁성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기 말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계기 교육 자료로 사용할 만한 거를 만들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배양 관련해서 교육감 공약 사항 중에 팩트 체크 교실 이런 워딩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름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는 자료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고요. 또 소통형으로 센터 운영하는 방안이랑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센터가 온라인으로 구축된 공간 안에 자율 게시판이나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걱정도 되더라고요.

D: 다른 선생님들께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이나 교원의 역사자료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가 목적이라 한다면 다양한 선생님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논쟁성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 민주시민, 역사적 사고력 등 다양한 역사교육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거를 꼭 하나만 포커싱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초기에는 어디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역사 선생님마다 지향하는 역사교육의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하나로만 한다면 학생들을 이 역사교육 자료센터에 참여시키려면 일단 교사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먼저 교사가 활용하면 수업 시간에 활용할 거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소개를 할 거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유입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역사 교사 대상으로 역사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목화해서 설문조사를 받아본다면 아마 다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죠. 센터를 운영할 때 다양한 자료, 주제를 제공해 역사 교사들의 활용성을 더 증대할 수 있을 근거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쟁성을 구현하는 학습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했을 때 저는 아직 교육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현대사로 넘어가면 수업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고 요새 특히나 더 민원이 만연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민원에 대한 방어책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G: 논쟁 관련된 수업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아까 나와 있던 그런 게시판의 분류 중에 아예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역사 수업자료가 올라오는 게시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올리기보다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조금 더 5.18 재단에서 만든 자료와 같이 정제된 전문성이 있는 자료가 업로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쟁성을 구현하는 학습은 민원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사건을 아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수업으로 다루어야 하나 혹은 교육과정에 없다는 이유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에 대한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에서는 민감한 주제 중에 5.18 무엇 이런 식으로 조금 고르고 또 중등에서는 어떤 주제를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이 수업자료를 구성하면 좋을지도 약간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 논쟁성을 다루자고 하잖아요. 지금 교육청이 논쟁성 얘기하는데 이거는 역사학자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일반 사람한테 이걸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싸우자는 얘기를 어떻게 역사교육적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도 중요해서 그런 얘기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아까 누군가 보호 장치가 있냐 말씀하셨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교사한테 수업하라 해놓고 교사가 저항에 맞닥뜨리면 아무도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사이트 자체가 논쟁성을 보장하는 모습으로 가야 해요.

아까 구술사나 인터뷰 모아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신 전략 과제 보시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보여요. 이거는 오랜 세월을 거쳐야 할 것 같고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재로서의 역사교육 자료 허브 구축, 그다음에 다원적 관점과 논쟁성에 기반한 교육자료 생산 및 공유 요 2번 그리고 6번 요 세 가지가 핵심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1단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이거는 이제 잘 모으고 잘 선별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다음 그리고 민주시민 역량을 현장 체험 계기 교육 이거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하고 선별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3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있잖아요. 논쟁성 다원적 관점은 5번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 창작하는 자료 그러니까 창조하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PDF 제가 공존형 역지사지 토론 수업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이런 컨셉으로 역사교육을 한다면 이렇게 할 거라는 컨셉으로 제가 팀장을 한 거였거든요. 저한테 역사에 관련된 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역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서를 만든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컨셉으로 만들어 본 건데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첫 번째는 왜 이게 필요한가가 들어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교육하는가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었고 그러면 이런 수업을 하려면 시작 전에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가 또 거기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어떤 논제를 뽑아낼 때 논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넣자고 해서 넣은 건데 아이들이 토론할 때 말머리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뒤를 뒤로 끝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예를 들어 반론을 하고 싶을 땐 이렇게 말하세요. 동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문장으로 막 적어줬거든요. 이거 토익 시험에 나오는 그거예요. 어떨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하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수업 특히 논쟁이 있는 수업은 이 공존형 토론이 굉장히 사회 현안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안전하지 않으면 교사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러면 교사나 관리자나 그다음에 학생들은 어떤 걸 지켜줘야 하는지 이런 그것도 제안했고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도 거기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다음 핵심은 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렇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주고 그다음에 교육적으로 집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라 이런 가정통신문 예시문까지 집어넣었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사에게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배양

E: 리터러시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자료를 읽고 문해력을 기르는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습관과 태도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봤을 때 달린 댓글만 보고 본인의 결론을 내리는 게 습관이 돼 있다면 그건 리터러시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다른 영상은 없는지 왜 이 두 영상 중에 좀 더 신뢰할 만한 건 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습관이 리터러시 역량이라 생각이 들어서 사이트에 혹시 그런 게 좀 구현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것들로 자료를 접할 테니까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은 자료를 이렇게 본다’라는 걸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화면을 화면 녹화를 해서 어떤 영상(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서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은 영상과 댓글을 보고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똑같은 주제를 검색해서

다른 관점의 영상을 찾아보고 둘 중에 무엇이 더 신뢰할 만한지 그래서 난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의 자료 탐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C: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지향점 중에서 가장 조금 관심이 가고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의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특히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학생들의 극우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며 읽었던 것 같고요.

G: 초등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역사 콘텐츠를 아이들과 함께 보고 비판해 보는 수업을 10차시로 구성해서 실행 연구를 한 논문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아까도 유튜브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학생들이 역사 부정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가 유튜브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수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공유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의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의 비판적 읽기 학습 단계를 가져와서 수업을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제 살수대첩 콘텐츠를 가지고 이 선생님이 직접 하신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수집한다면 시민성을 기르는 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나 학습 단계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 역사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구성

B: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한 사례들을 모아서 허브처럼 제공해 주면 그걸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센터에서 꼭 이 교육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혹은 이런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기준이 없어도 만약에 교사들이 여기를 좀 공공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F: 센터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역사 선생님들이 좀 보실까 이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센터 차원에서 여기 올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교사 연수 같은 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모인 교사 공동체에서 센터에 올릴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생산을 해서 뭔가 공공성도 지향하니까 역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근데 학생들이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여

기 센터에 올라와 있는 5.18 같은 자료들에 대해 학생들이 나름의 산출물을 만들고 저희 플랫폼에 이렇게 올리듯이 뭔가 학생 산출물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요. 우리 반을 넘어 다른 학교 애들은 아니면 다른 학교급 애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생각해 보게 하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너네 5.18이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와서 보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D: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교육의 목적이 다르니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계속 이 자료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사교육 자료 센터가 역사교육 목적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역사 선생님들끼리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육과정 및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만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발을 디디게 될 거고 그러면 그러한 영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의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다양한 논쟁의 장이 돼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초점을 맞추면 좋긴 하겠지만 먼저 교사에 대한 유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G: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타겟팅을 누구한테 하는지가 너무 열려 있는 것 보다는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서로 자신의 수업자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남길 수 있는 창고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야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올라오고 또 수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만든 역사 수업의 결과물들을 올릴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게시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연구자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디스쿨에서 수업자료를 올리는 건 다 올릴 수 있습니다. 1년 차도 올릴 수 있고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가입은 저희의 재직 증명서를 올리면 초등교사들은 다 가입이 됩니다. 요새 인디 유파의 문제점은 원래 교사들이 개인적인 의미를 두고서 만든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자료를 열심히 정말 선의를 가지고 올리셨던 선생님들께서 유명해지시다 보니까 검정 교과서 출판사에서 이 선생님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모두가 무료로 양질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였는데 이제 사기업이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데려가다 보니 인디스쿨 나름대로도 지금 뭔가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함께 학교나 하이 러닝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만든 사이트와 인디스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교사가 지정되어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네임드(이름이 알려진) 선생님들만 올릴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모두가 올릴 수 있는 곳이나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약간 네임드 선생님들만 올리게 되면 어쨌든 국가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명하신 선생님들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 자료의 유형을 한정시킨다는 느낌을 받았고 선생님들의 반발심을 유발한다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H: 활용도를 높이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구축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오프라인 연구 모임이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들이 논쟁성을 살린 자료 뭐가 필요해요라고 얘기했지만, 교사가 참여하고 연구자가 같이 붙어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그걸 또 피드백해서 만들어서 그걸 올려놓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과를 내고 공유하고 선생님들한테 피드백 받는 기회를 계속 갖게 되거든요. 그거는 원래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자기 업무 관련한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해요. 그 많이 하는 거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더 끌어온다거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걸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그들이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이슈화할 수 있거든요. 행사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계속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 기타

C: 저는 보고서 읽어보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인상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 선거 때로 기억을 되돌려보면 공약으로서 역사교육 강화를 말씀하실 때부터 역사 교사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공감이 되면서도 그런데 왜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이런 공약을 내놓으셔야 하고 이런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셔야 할까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감정도 좀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좋은 얘기 그리고 최근에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잘 정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면서도 이걸 왜 꼭 서울특별시라는 자치단체에서 이제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고 특히 지금 해외 사례나 좋은 사이트들 굉장히 보고서에서 이제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뭐 이런 일을 만약에 하더라도 너무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주도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례가 없다고 느꼈어요.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여러 도시에서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든가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역사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필요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많은 분이 또 공감하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유튜버 중에서도 역사 콘텐츠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자료 만들고 계신 분들 많이 있고 스토리 텔러로 활약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역사를 콘텐츠로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감상평을 나누다든가 추천 버튼 눌러서 좀 많이 추천을 받은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소개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본다든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이 센터가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물리적인 공간이 생긴다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5. 요약 및 제언

가. 공통적 요구 사항.

- FGI 참여자 공통적으로 역사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컸으며 역사교육자료센터의 방향성이 명료하였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거의 일치하였다.
-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역사교사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역할은 센터가 안착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축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타 기관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과 개발자들이 정성들여 구축했으나 이용이 떨어져 활용도가 지극히 낮은 경우들이 있다. 구축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작업과 함께 센터를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논쟁성이나 다원적 관점이 확보되는 역사 수업을 위해서는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처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면 한다.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상태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 역사교육자료센터가 온라인 공간에서 운영되지만,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면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자료센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보다 밀도 높은 운영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쟁점 사항

- 다양한 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집적하는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역사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료 집적이 오히려 교사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보다는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웹상에 구축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이 적절히 사용한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운영할 경우 공공성을 구현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따라 역사교육이 공식적으로 정치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해외의 역사교육자료센터 역할을 하는 사이트들은 민간 차원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V.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성 및 운영의 방향

1.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지향점

가. 미션(Mission)

역사교육자료센터의 미션은 교실과 사회를 잇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1)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탐구 문화를 확산하고, (2) 다양성과 포용을 핵심 원리로 삼아 소수자·비주류의 기억과 시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3) 교사·학생·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동 제작(co-creation) 체계를 구축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는 수용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해석자이며, 수업은 암기가 아니라 자료-질문-토론-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된다. 이때 센터는 교실 수업과 현장 체험, 지역사회 프로젝트, 온라인 토론 등 학습의 장을 유연하게 연결해, 역사 이해가 학습자의 현재적 삶과 시민적 실천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한다.

나. 비전 (Vision)

역사교육자료센터는 민주성·공공성·시민성을 체화한 역사교육의 디지털 허브(HUB) 다. 즉, 누구나 접근하고(공공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민주성), 학습이 시민적 역량으로 이어지도록(시민성) 설계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자료 아카이브를 넘어 수업 설계도, 토론 도구, 수업 결과 공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지역사회·박물관·기념관·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실 안팎의 배움이 상호 보완되고, 서울에서 축적된 성과가 전국과 해외로 발신·확산되는 구조를 갖춘다.

다. 핵심 가치 (Core Values)

1) 시민성 함양

역사교육자료센터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시민성 함양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공선을 존중하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학습자가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관점을 비교·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갈등 상황을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돕는다. 교실에서는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까지도 안전하고 존중적인 토론 규칙 아래 다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근거 기반의 토론 능력을 키운다. 나아가 이러한 배움은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

프로젝트, 시민 참여 활동, 공적 글쓰기와 같은 실천으로 확장되어 학습자의 삶과 연결된다. 따라서 시민성 함양은 역사교육을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2) 다원적 관점

다원적 관점(multiperspectivity)은 보도 폰 보리스(Bodo Von Borries)를 비롯한 독일의 일부 역사가들이 1970년대부터 사용한 개념이었다. E.P. 톰슨의 『영국노동계급의 형성』(1963)으로 대표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역사학 연구의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었고,⁴⁰⁾ 그동안 배제되었던 여성이나 소수자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사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다양한 주체들이 역사 서술에 등장한다는 것¹¹⁰⁾은 결국 다양한 시선으로 역사를 이해한다는 방법론적 혁신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오는 생태 환경사의 연구는 다양한 렌즈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역사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혀주었다.⁴¹⁾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주체들로 시선이 확대되어 역사학이 포용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넓다. 한편 헤이든 화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은 역사 서술이 문학적 성격을 지닌다 하여 일각에서는 역사학을 기저에서 흔드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 서술에 작용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그동안의 역사학을 성찰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힘을 제공함으로써 역사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역사 서술을 확장적으로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역사학 내적 구성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준 것이다. 결국 역사학 안팎으로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은 다원적 관점을 취하게 만드는 역사학적 토대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학교 역사교육에서 잘 쓰이지 않았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및 유럽 평의회 지원으로 1992년에 결성된 유럽역사교육자협의회(Euroclio)가 1990년대부터 각종 회의, 세미나, 연수에서 활용하면서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였다. 이 개념의 도입에는 전통적 역사교육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지식 전달, 정치사, 국가사 중심의 연대기 등을 강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다양한 자료에 기반을 둔 분석, 해석 및 종합 능력을 키우자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박물관 큐레이터, 영화 제작자, TV 프로듀서, 저널리스트 등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공공 역사학의 흐름, 즉 다양한 방식의 역사 재구성도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역사학의 연구 지평이 확대되면서 역사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을 포착하고, 역사교육이 받아 안은 것이다. 그리고 특정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주류 집단을 중심에 놓는 역사교육이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사회적 과제도 다원적 관점 수용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⁴²⁾

40) 사라 마자 저, 박원용 역, 『역사에 대해 생각하기』, 책과함께, 2019.

41) 박상민, 「인류세, 새로운 세계사를 위한 밑그림」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생태환경사 수업』, 2024, 휴머니스트.

역사를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다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 역사 자체가 논쟁적이고 해석적 성격을 갖기에 역사는 논쟁적으로, 즉 경합과 긴장을 동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또한 매우 복잡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상이한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접근법들이 존재하는 만큼 어떤 특정한 일면만으로는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편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법은 학문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측면도 있으나, 교실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계급적, 문화적 환경이 반영되는 측면도 있어 교실은 갈등이 표출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회를 닮은 공간이기도 하다.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교실 상황에서 자유롭게 드러내고 소통하도록 장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교과서 구성도 적극 고민되었으면 한다. 현실의 축소판인 교실에서 논쟁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역사교육에서의 논쟁성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논자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방지원은 그것을 아래의 표와 같이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⁴³⁾

<표 IV-3> 역사와 교육의 논쟁성을 살리는 학습 주제 설정의 범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료 비판을 위한 논쟁(사료의 가치 평가와 의미 찾기 등)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 과정의 논쟁(과거-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행위 이유, 인과 관계에 대한 학습자 간 논쟁 • 당대의 여러 입장에서 논쟁 • 역사적 사실이 당대와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쟁 등 3. 역사적 사실의 현재적 의미 및 전망과 관련된 논쟁(과거-현재-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에 제공하는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평가적 논쟁 • 오늘날의 문제 해결에 대해 역사가 제공하는 교훈에 대한 논쟁 • 역사 이해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 인식 및 설정에 관한 논쟁 • 역사 이해와 관련된 현재의 논쟁
--

3) 논쟁성

다원적 관점은 논쟁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⁴⁴⁾ 논쟁성을 부각한 사례로써 독일과 폴란드

42) Robert Stradling, *Multiperspectivity in history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Council of Europe, 2003의 내용 참조.

43) 방지원, 「학습내용구성 관점에서 본 최근 역사교육의 민주시민교육 논의: 대안적 구성 방향의 모색」 역사교육논집』69, 2018.

44) 강화정, 「논쟁성에 기반한 역사 수업과 역사교실의 변화」 『역사교육연구』37, 2020, p.318.

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역사 교과서를 들 수 있다.

시각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 혁명의 발발에는 여러 원인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중 어떤 요인이 결정적이었고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D14. 프랑스 역사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56년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혁명은 항상 나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우 자주, 가장 억압적인 법률을 불평 없이, 마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참아왔던 국민이 그 부담이 줄어들자마자 이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혁명으로 멸망하는 정부는 거의 항상 직전 정부보다 낮고, 경험에 따르면 나쁜 정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오직 위대한 천재만이 오랜 억압 끝에 신하들에게 안도감을 주려는 군주를 구할 수 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 『구 국가와 혁명』, 라인베크: 로볼트 1969, 153쪽, 저자 편집)

D15. 역사가 프랑수아 푸레와 드니 리세는 1968년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떻게 [...] 1789년이 올 수 있었는가? [...] 농민의 비참함, 임금 노동자의 빈곤화, 시민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 유사한 비탄을 통해 전통을 의문시한다. [...] 사람들은 혁명이 아닌 개혁을 요구한다. 개혁? 바로 여기에 드라마의 핵심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에 왕권 절대주의의 개혁적 힘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계획이 부족한 것은 전혀 아니다 [...]. 그러나 저항 세력이 운동 세력보다 더 강해졌다. [...] 그리하여 제국의 가장 중요한 내정 문제인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 경기 변동 [경제 발전]의 우연히 병행하는 대규모 경제 위기를 초래하여 소규모 농가의 수입을 감소시킨다. 모든 것은 1788년 하반기 불황으로 시작된다. [...]. 부족한 빵은 다시 비싼 빵이 된다. [...] [이] 경제 위기는 세기 전체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회적, 정치적 긴장을 극한으로 고조시킨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는 왕실, 특권층, 도시 시민들 사이의 대립에 새로운 세력인 민중을 가세시켰다.

(프랑수아 푸레와 데니스 리세, 『프랑스 혁명』, 울리히 프리드리히 뮐러 역,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피셔 1968, 16; 20-21; 25-26쪽, 저자 편집)

1. 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요약해 보세요. (Q12, Q13).
2. Q12와 Q13의 개별 비판 사항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약속하는 왕의 답변 서신을 작성하시오.
3. D14와 D15를 비교하시오. 진술이 유사하거나 다른 점을 표로 정리하시오.
4. 프랑스 혁명의 장기적 원인과 단기적 원인을 구분하시오(D15).

시각(Blickwinkel)이라는 코너를 마련해 논쟁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프랑스 혁명 부분을 보자.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왜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져왔으며 프랑스 혁명에는 많은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것이 결정적이며 어떤 것이 부차적이었는지는 논쟁 중이라며 두 개의 시각차가 있으면서도 관점이 다른 두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⁴⁵⁾ 하나의 견해는 1856년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주장이다. 정부에 의한 억압적 상황이 악화되어 가장 심각해졌을 때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지워졌던 짐이 감소하는 국면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1968년 프랑수아 푸레와 데니스 리세에 의한 수정주의적 해석이다. 혁명의 상황은 1788년 하반기의 흉작으로 인한 빵 값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정치 사회적 긴장도를 높여 왕실, 특권층, 시민 사이에 거대한 충돌을 일으켰으며, 개혁이 필요했던 시기에 왕실의 개혁 구상이 모자란 상황도 아니었으나 저항의 힘이 이를 능가해 혁명적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탐구 과제로서 두 개의 자료를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거나, 프랑스 혁명의 단기 원인과 장기 원인을 찾아보는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탐구 활동은 교과서처럼 자료를 바탕으로 전개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내용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탐구를 특별 코너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논쟁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역사 교과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Sami Adwan 등이 작업한 *Side by Side: Parallel Histories of Israel-Palestine*(The New Press, 2012)을 들 수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개된 역사를 기술하되, 페이지를 이등분해 팔레스타인의 입장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각각 써 내려간 방식(dual narrative)이다. 매우 신선한 시도로 인정받았고, 분쟁 중인 지역이나 분쟁을 경험했던 지역에서 어떠한 역사교육이 진행된다면 좋은지 좋은 영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시도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주 인용하였던 UN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보고관 파리다 샤희드(Farida Shaheed)가 작성한 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서에도 인용되어 있으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논쟁성을 논의하거나 교과서를 구성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논쟁성은 역사 부정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가령 5.18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나 이행기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격도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역사 부정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가 이뤄지기도 했다. 왜 역사 부정이 이뤄지는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진행되는 양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8의 진실을 알리는 수준에서 5.18의 학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이 형성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논쟁성은 기억 투쟁과도 관련될 수 있어 기억을 둘러싼 투쟁과도 상호연관성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45) *EUROPA-Unsere Geschichte, Band 2: Neuzeit bis 1815*, Eduversum GubH, 2017, p.197.

4) 디지털 리터러시

최근 몇 년 동안 등장한 기술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발전은 역사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와 교육 분야 전반에서 디지털 도구를 통한 새로운 교육 전략 개발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 플랫폼의 웹을 통해 개인 및 사회적 관계를 탐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과 소통에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중요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과거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도전과제를 수반한다. 디지털 미디어가 오늘날 사회에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역사의 대중적 활용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치열한 논의와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AI)이 역사교육에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Chat GPT와 같은 디지털 도구는 유용한 도구일 수는 있으나 역사 학습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기본적인 역사적 방법론인 자료 활용과 비판적 독해가 디지털 기술의 흥미로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시대는 교사만이 교실에서 역사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역사 교사에게는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이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AI와 가상현실을 교실에 도입하기 전에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윤리적 요구 사항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숙제가 안겨 주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학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역사교육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역사교육은 사실, 날짜, 장소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가의 연구 수행 방식과 역사 지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정치적 용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역사교육 연구는 역사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사료가 사용되는 방식에 관해 연구해 왔다.⁴⁶⁾ 디지털 맥락에서 역사적 사고의 활용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맥락과는 다른 역사적 자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캐나다의 연구자들은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모델을 개발하려는 접근법도 중요한 발전이었다.⁴⁷⁾ 이 프로그램(<https://historicalthinking.ca> 참조)은 6개의 역사적 2차 개념(secondary concept) 또는 메타 개념(meta concept)을 개발했다.

1. 과거가 사건, 트렌드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맥락에서 그 역사적 중요성 또는 역사적 의미를 확립한다.
2. 1차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고 역사적 해석을 통해 분석하며, 해당 자료가 누가 작성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설명하고, 작성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추론한다.

46) Sam Wineburg et al., *Reading like a historian: Teaching literacy i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classrooms*, Teachers college press, 2012 참조.

47) Peter Seixas, *The big six historical thinking concepts*, Nelson Education, 2013 참조.

3. 과거의 다양한 시점에서 연속성과 변화를 식별하며, 과거를 관련 없는 사건의 목록으로 간주하지 않고, 연속성 속에서 변화를, 변화 속에서 연속성을 인식한다.
4. 과거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역사적 현상에 대한 다원적 원인 설명(이데올로기, 제도,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인식하는 방법을 안다.
5.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현재와 과거의 큰 차이를 인식하며, 과거의 삶과 사건이 펼쳐진 사회적, 문화적, 지적, 감정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 과거에 대한 윤리적 관점을 갖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과거의 도덕적 및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 과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와 과거의 윤리적 문제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출처, 진위 여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 인지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본다.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정보와 자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정보를 맥락화하려는 노력은 더 높은 품질의 정보를 찾아내고 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든다. 역사자료는 스스로 무언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역사자료의 활용에 여러 주의가 필요하다. 문헌 사료의 활용에는 전제가 되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먼저 그 문헌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서식이나 절차 아래 기록되었는가. 문헌이 생성된 맥락이 묻히는 동시에, 어떤 맥락으로 남아있는지, 남겨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유럽 평의회의 경우 자료 기반의 학습을 중시하면서도 실제 수업에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만든 매뉴얼을 보면 육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Who(누가 그것을 기록하였는가? 기록자의 입장은?)
- What(그 기록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 When(그것은 언제 쓰였는가? 그것의 역사적 맥락은? 그것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특징이나 사상은 무엇인가?)
- Where(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어느 곳과 연관되어 있는가?)
- Why(그것이 쓰인 이유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 How(그것은 어떤 구성 혹은 조합을 취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자료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Why’ 단계에 이르러 문서가 의도하는 독자가 누구였는지 파악하고 사용하는 용어와 그 어조를 파악하면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내도록 하였다. ‘How’ 단계에서는 왜곡이나 과장, 편견 등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며 정확성과의 틈새가 있다면 그것의 의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사료 비판의 방법 외에도 질문과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활동을 활성화

화시키는 방법 등도 제시하고 있다.⁴⁸⁾

사이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수평적 읽기(lateral reading)라고 명명한 방법이다.⁴⁹⁾ 익숙하지 않은 사이트를 떠나 새로운 탭을 열어 초기 출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측면 읽기를 통해 사실 확인자들은 웹의 강점 중 하나인 상호 연결된 정보의 풍부함을 활용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한 사이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다른 웹사이트의 자원을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평적 읽기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활용한다. 이 중에는 학술자료,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 그리고 종종 비판받는 위키피디아도 포함된다. 수평적 읽기는 서로 다른 현대적 및 역사적 주제에 관련된 자료에 적용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료의 과잉 공급이 부족함보다 더 큰 문제인 상황에서, 주장을 검증하고 자료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해 주의력 보존은 필수적이다.

역사 수업은 학생들이 단순히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연습하여 역사 수업 밖의 맥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온라인 역사 연구의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도서관 사서보다 검색 엔진에 질문을 더 자주 하고,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이 아카이브 상자가 아닌 콘텐츠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역사적 추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코네티컷 대학교의 마이클 린치는 인터넷을 “세계 최고의 사실 확인 도구이자 동시에 세계 최고의 편향 확인 도구—종종 동시에”라고 묘사했다. 점점 더 많은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세계에 대해 배우고 있다. 온라인에서 역사적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자와 학생들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연구 기반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

5) 협력적 생태계

역사교육자료센터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 중 협력적 생태계는 교사, 학생, 연구자, 시민, 나아가 박물관·기념관·시민단체·국제 교육기관까지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의 장을 의미한다. 센터는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며 토론하는 지식 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와 공동 연구, 학생 참여 프로젝트, 시민 아카이브 활동이 상호작용하며, 성과물은 다시 센터 플랫폼에 축적되어 다른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기억 공간과 연계된 활동, 국제적 역사교육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로컬-글로벌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결국 협력적 생태계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는 열린 구조로서, 역사교육을 집단 지성의 산물로 발전시키고, 민주적 문화와 사회적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48) Carmel Gallagher, *History teaching and the promotion of democratic value and tolerance-A Handbook for teachers*, 1996, p.37, pp.41-48.

49) Teresa Elena Ortega, *Historical Thinking and Civic Online Reasoning, History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General Report Second annual Forum for History Education*, 2023, pp.23-26.

2. 전략 과제 (Strategic Projects)

가. 공공재로서의 역사교육 자료 허브(HUB) 구축

- 모든 자료·콘텐츠를 무상으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게 제공
- 주제·학년·교육과정 연계형 큐레이션: 사건, 인물, 사회변동, 기억 투쟁 등
-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연동(부마·5.18·Contested Histories, 유로클리오, UNESCO)
- 원문 사료, 이미지, 영상, 구술, 인포 그래픽 등 복합 자료 제공

나. 다원적 관점과 논쟁성을 기반한 교육자료 생산 및 공유

- 탐구 질문 중심 수업 모델: 사료 비판, 인과 분석, 관점 비교, 현재적 의미 찾기
- 다원적, 논쟁적 주제 수업 설계: 식민지 유산, 인권·평화, 기후 위기와 인류세 등
- 과거사 정리를 둘러싼 역사 부정·왜곡 대응 자료, 권고안, 가이드라인 제공

다. 디지털 기반 역사 교수·학습 지원

- 주제별 온라인 교수·학습안 및 활동지 제공: 학생용/ 교사용 → 공유·저장 가능
- 디지털 자료 읽기 가이드 및 출처 분석 훈련 모듈 탑재
-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에 대한 윤리 가이드 제시

라.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현장 체험, 계기교육 연계

- 역사 로드·답사 키트: 경로, 사료, 활동지, 해설 영상 포함
- 기념관·박물관 전시와 연계한 워크북·교안 제작
- 지역사 자료 발굴 프로젝트 제시

마.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사 공동체 지원

- 자료센터를 중심에 둔 교사 공동체 활동의 온·오프 활동 다각화
- 교사 연수·전문가 세미나 정례화
- 교사 공동체의 실천 사례 및 자료 개발 공모제 운영

바. 국제 협력과 발신

- 한국 역사교육 성과의 다국어 자료화·국제 발신
- UNESCO, 유로클리오 등과 공동 연구·워크숍

- 글로벌 이슈(인권, 식민주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는 공동 프로젝트

3. 실행 로드맵(Implementation Roadmap)

가. 1단계: 준비 및 구축기(2025-2026)

-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역할 논의
-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구축 방안 논의
- 조직·운영 구조 설계를 위한 전문가 FGI
- 역사교육자료센터 디자인 제안
-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운영 방안 제안

나. 2단계: 도입기(2027)

-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여 자료 센터 운영 및 피드백
-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장단점 분석 및 반영 작업
- 역사교육자료센터의 내용 구성을 위한 실무단 구성 및 운영
- 역사교육 권고안 마련 및 ‘안전한 교실’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자료 수집·분류, 디지털 플랫폼 개발, 교원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다. 3단계: 정착기(2028)

- 내용의 업그레이드 및 운영의 안착

<표 IV-4>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성 및 운영(안)

<p>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자료센터</p> <p>미션 (Mission)</p> <p>역사적 사실을 자료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역사교육 서울 역사 교사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삶과 연결된 살아있는 역사교육</p> <p>비전 (Vision)</p> <p>민주성, 공공성, 시민성을 실현하는 역사교육의 허브(HUB)</p>

핵심 가치 (Core Values)

- **시민성 함양:** 인권,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역사교육
- **다원적 관점:**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존중하고, 소수자와 비주류의 시선과 기억까지 포괄하는 포용적 역사 이해
- **논쟁성:** 역사적 사실과 해석의 경합을 인정하고, 민감·논쟁적 주제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토론 역량을 기르는 역사교육
-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환경에서 자료 검증·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글과 세상을 읽는 능력
- **협력적 생태계:** 학교·지역사회·박물관·기념관·국제기구가 함께 만드는 개방형 역사교육 환경

전략 과제 (Strategic Projects)

1. 다원적 관점과 논쟁성을 기반한 교육자료 생산 및 공유

- 탐구 질문 중심 수업 모델: 사료 비판, 인과 분석, 관점 비교, 현재적 의미 찾기
- 주제·학년·교육과정 연계형 큐레이션: 사건, 인물, 사회변동, 기억투쟁 등
- 다원적, 논쟁적 주제 수업 설계: 식민지 유산, 인권·평화, 기후위기와 인류세 등
- 과거사 정리를 둘러싼 역사 부정·왜곡 대응 자료, 권고안, 가이드라인 제공

2.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현장 체험, 계기교육 연계

- 역사 로드·답사 키트: 경로, 사료, 활동지, 해설 영상 포함
- 기념관·박물관 전시와 연계한 워크북·교안 제작
- 지역사 자료 발굴프로젝트 제시

3. 디지털 기반 역사 교수·학습 지원

- 주제별 온라인 교수학습안 및 활동지 제공: 학생용/교사용 → 공유·저장 가능
- 디지털 자료 읽기 가이드 및 출처 분석 훈련 모듈 탑재
- 디지털 학습 도구 활용에 대한 윤리 가이드 제시
- 모든 자료·콘텐츠를 무상으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게 제공
- 원문 사료, 이미지, 영상, 구술, 인포그래픽 등 복합 자료 제공

4.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사공동체 지원

- 자료 센터를 중심에 둔 교사공동체 활동의 온·오프 활동 다각화
- 교사 연수·전문가 세미나 정례화
- 교사 공동체의 실천 사례 및 자료 개발 공모제 운영

5. 국제 협력과 발전

- 한국 역사교육 성과의 다국어 자료화·국제 발전
- UNESCO, 유로클리오 등과 공동 연구·워크숍
- 글로벌 이슈(인권, 식민주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응하는 공동 프로젝트
-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연동(부마·5.18·Contested Histories, 유로클리오, UNESCO)

4. 역사교육자료센터 사이트 구성(안)

가. 역할

1) 웹상의 학습 플랫폼

학교 역사교육 관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상의 자료 플랫폼이다. 교육과정의 재구성, 성을 염두에 두고 교수요목을 구성하기에는 교사 개인에게 어려움이 따를 때가 적지 않다. 한편 역사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는 많은 역사 연구의 성과를 섭렵하기에도 시간적 부담이 적지 않다. 새로운 연구나 자료들이 역사교육자료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교사나 학생이 교실 상황에 맞게 구현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성 있는 교육과정 실현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도 하다.

2)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사 교과서의 분량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가 있다. 역사 교과서 제공할 수 있는 지면의 한계가 있다 보니 자료를 충실하게 지면에 실을 수 없다. 역사 이해의 다면성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역사 교과서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교과서의 분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존재한다. 웹 공간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책자 형태의 교과서보다 많은 자료를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과서의 지면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풍부하게 탑재할 수 있다.

3) 학교 역사 수업의 안내 공간

역사 수업과 관련하여 사료만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방법적 측면의 내용도 플랫폼 공간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학교의 역사 수업을 위한 방향성(자료 분석의 방법, 논쟁성을 살리는 수업, 교실 대화의 원칙 등)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수-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역사 교과를 넘어 범용성의 측면도 있다.

4) 사회적 쟁점을 고려한 자료의 제공

역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과 역사 인식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난 적도 있다. 고대사의 인식을 놓고 유사 역사학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근현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논쟁이 전개되기도 한다. 식민지 지배, 일본군 ‘위안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5.18 민주화운동 등을 놓고 정치 쟁점화하기도 했다. 역사 부정(denial)이나 왜곡(distortion)이 일어나는 지점을 파악하여 웹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차원의 역사교육을 고려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나.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1)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에 개발한 자료

서울시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자체 개발하거나 외국의 주요 자료를 번역하여 보급한 전례가 있다. 지나간 자료들도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교육 유산(heritage)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는 자료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연속선상에서 구현한다는 의미이다. 토론이나 논쟁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웹상에 집적한다.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2) 국가교육 과정 문서 및 해설 그리고 자료 연결

국가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고, 교과서는 이 교육과정을 구현한 하나의 형태이다.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앞서 보다 본원적인 것이므로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현장 역사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다. 교육과정 문서를 소개하면서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를 연결해 풍부한 자료 기반의 학습이 이뤄지도록 안내한다. 특히, 교육과정이 규범적 문서이기는 하나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의미를 교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교육과정에서 특히 성취 기준이 어떠한 맥락에서 구성되었고 이웃한 성취 기준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이해하고 교과를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이 필요하다.

3) 역사 학습의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5.18기념재단에서는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에서 제시한 홀로코스트 교육 지침 등을 참고하여 ‘5월 교육 원칙’을 개발하였다. 국제 사회는 역사교육이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분쟁과 갈등을 경험한 사회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역사교육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와 함께 각종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었다.(부록 참조)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들을 검토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한다.

4) 주제 학습이 가능한 메뉴 구성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연대기의 측면을 존중하면서도 보다 깊이 있는 역사 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제 학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1운동,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의 주요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설정할 수 있고, 민주주의, 인권, 폭력, 혐오, 생태환경 등을 주제로 삼아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인권, 폭력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 히스토리아나처럼 여러 갈래의 주제 접근이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가능하며, contested histories처럼 주제의 목록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소통 공간을 통한 역사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 쟁점, 현안 등 공유

역사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1차적 기능 외에도 소통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이트의 경우 블로그를 운영해 소통의 창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연구 성과, 신간 도서, 역사 영화나 미디어 비평, 역사교육 에세이, 역사 관련 현안(논쟁)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문제, 유사 역사학 등의 문제에 관해 전문가 기고를 실는 방법도 있다. 역사학자가 자료센테를 매개로 역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특집이나 연재의 형식으로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역사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현장과 현장을 연결할 수 있다.

다. 구성의 고려 사항

1) 역사자료센터의 내용을 담보할 자료 문제

역사 학습에 필요한 사진, 그림, 텍스트 등 다양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다. 유물이 없는 박물관이 기능을 못하듯이 자료가 없는 자료센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히스토리아나의 경우 기관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많은 자료를 끌어올 수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많은 박물관들이 오픈 소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협력 관계를 맺어 역사교육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역사교육 관련 외국 사이트와의 제휴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논쟁성 및 다원적 관점 반영

역사가 단선적이지 않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을 안내한다. 그러나 폭력이나 혐오를 조장하거나 합리화하는 방식의 역사 이해를 지양하도록 한다.

3) 비판적 사고 및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검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으로는 특정 사실의 은폐, 자료의 확대 해석, 일부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 등 역사 왜곡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의 이성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다양

한 사회·문화적 접촉으로 형성되는 학생들의 역사 인식이 역사 학습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접근한다.

4) 고교 학점제의 상황과 신생 교과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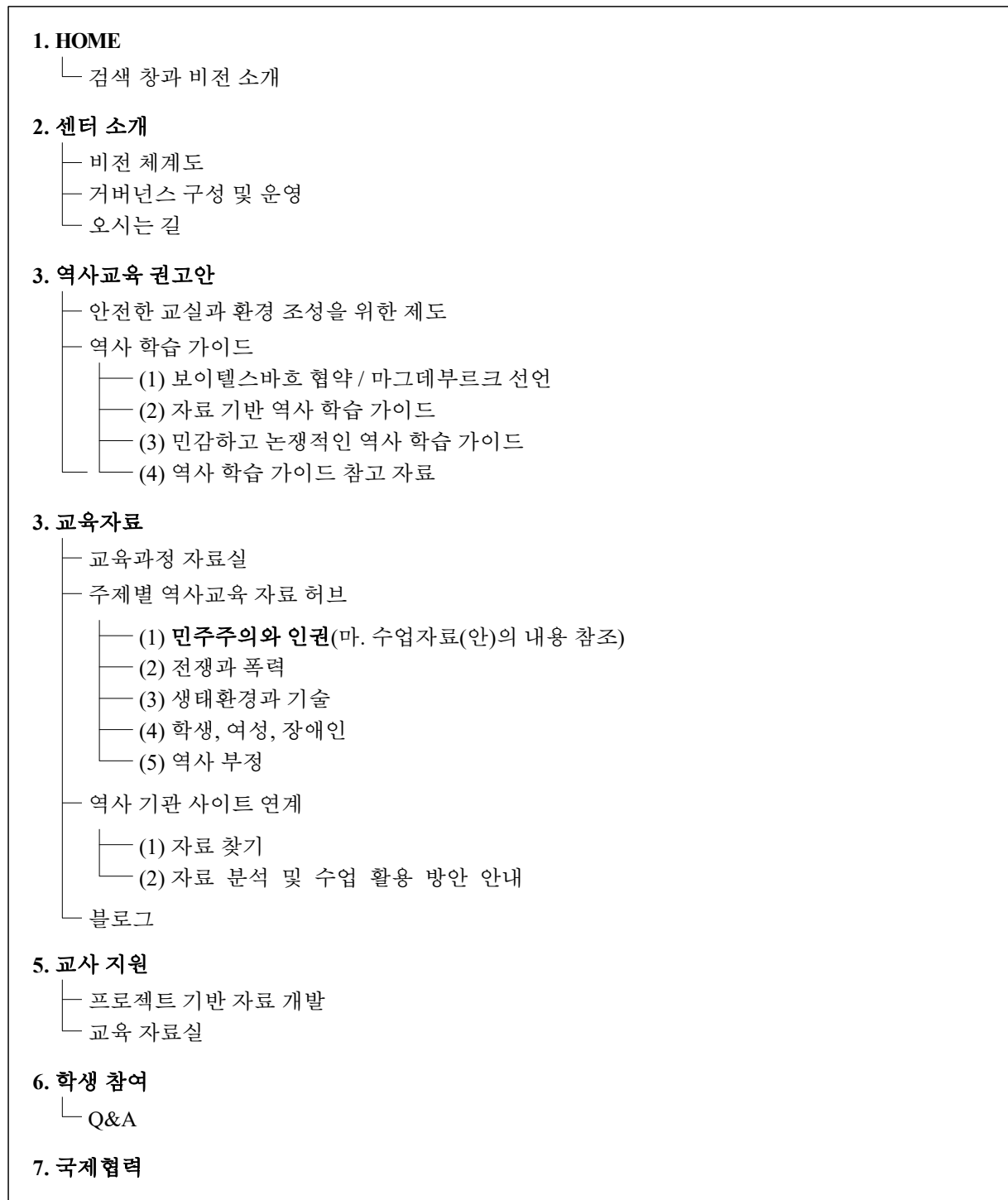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고교 학점제의 도입으로 오랫동안 한국 교육이 1년 단위를 기준으로 교과가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학사 운영 방식의 변화로 인해 현장 정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등장할 수 있다(cocktail effect).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안내 작업도 필요하다. 가령 기존에 운영되던 세계사 교과는 1년 동안 학습하던 것이 한 학기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지 않은 혼선이 예고된다. 또한 신생 교과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안내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역사교육자료센터가 교사 연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역사 학습의 곤란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안내 역할

현재 교육과정이 중학교 한국사는 대략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이 7:3, 고등학교 한국사는 대략 3:7의 구성이다. 중학교의 근현대와 고등학교의 전근대 부분이 압축적 구성임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효율적 역사 수업의 여러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의 근현대 영역이 소략하며 학기 말에 이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자료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사이트 맵 구성(안)

<표 IV -5> 역사교육자료센터 사이트 맵 구성(안)



1) HOME : 검색 창과 비전 소개

본 메뉴는 역사교육자료센터의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센터가 추구하는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그림 V-1] 역사교육자료센터 ‘HOME’ 화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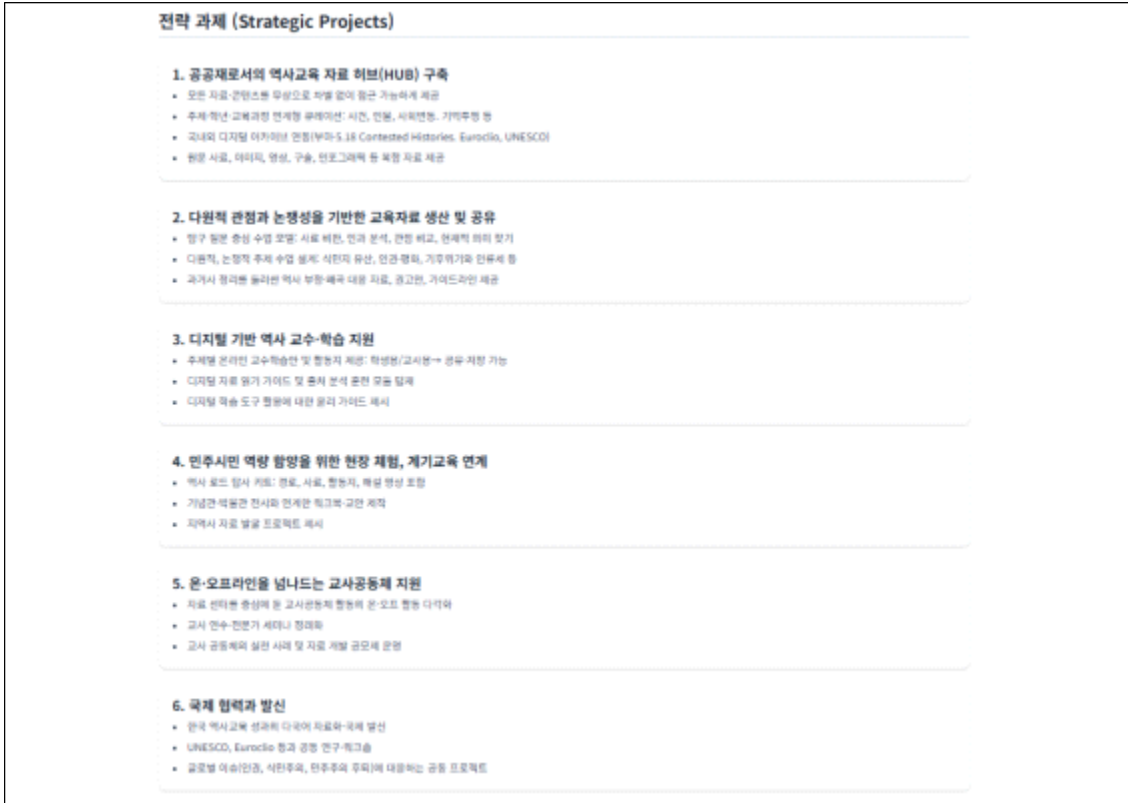
2) 센터 소개

가) 비전 체계도

본 센터는 ‘역사교육의 민주성, 공공성, 시민성을 실현하는 디지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료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미션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시민성 함양, 다원적 관점, 논쟁성, 디지털 리터러시, 협력적 생태계라는 5대 핵심 가치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전략 과제 및 실행 로드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림 V-2] 역사교육자료센터 ‘비전 체계도’ 화면(안)



[그림 V-3] 역사교육자료센터 ‘전략 과제’ 화면(안)



[그림 V-4] 역사교육자료센터 ‘실행 로드맵’ 화면(안)

나)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본 센터는 단순히 자료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민주성, 공공성, 시민성을 실현하는 협력적 생태계의 허브(HUB)’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센터의 거버넌스는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자료개발 실무 협의체’, ‘역사교육자료센터’, ‘역사교육 활성화 위원회’라는 세 가지 축으로 하는 ‘서울 역사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각 주체는 명확히 구분된 역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며 교육자료 개발, 생산, 검토 및 센터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그림 V-5] 역사교육자료센터 ‘서울 역사교육 거버넌스’ 화면(안)

(1) 역사교육자료개발 실무 협의체(1차 자료 접근 및 제공)

‘역사교육자료개발 실무 협의체’는 1차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제공을 담당하는 협력 기구이다. 역사교육은 신뢰도 높은 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대학, 박물관, 언론사 등 1차 자료에 접근과 제공이 용이한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질의 자료에 안정적으로 접근하고, 각 자료의 출처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장처가 분산된 자료들을 연결하고 홍보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2) 역사교육 활성화 위원회(자문 및 검토 기구)

본 센터가 생산하고 공유하는 교육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자료의 학술적 신뢰성과 교육적 적합성을 담보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되, 참여자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특정 관점에 치

우치지 않도록 정치적 안배 또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이를 통해 센터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 세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서울 역사교육권고안'과 같은 자체적인 권고안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3) 오시는 길

본 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나, 자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교사 연수, 수업 사례발표회 등 오프라인 활동의 중요성 또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오프라인 협력 활동을 위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역사교육 권고안

본 메뉴는 교수학습이 전개되는 교실 환경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실천을 성찰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규범적, 방법론적 자료를 제공한다. 안전한 교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서 구축해야 할 공적 규범들을 다룬다. 그리고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협약', '마그데부르크 선언' 등을 비롯해 자료의 비판적 분석 방법, 민감한 주제 수업을 위한 지침 등을 포함한다. 또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엔(UN) 등 국제기구에서 역사교육 관련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번역하고 해제를 덧붙여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가) 안전한 교실과 환경 조성을 위한 규범

본 메뉴는 교사들이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교사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서울 역사교육권고안'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나) 역사 학습 가이드

- (1) 보이텔스바흐 협약 / 마그데부르크 선언
- (2) 자료 기반 역사 학습 가이드
- (3) 민감하고 논쟁적인 역사 학습 가이드
- (4) 역사 학습 가이드 참고 자료

4) 교육자료

가) 교육과정 자료실

본 메뉴에는 현행 국가 교육과정 원문과 해설 자료 등을 함께 탑재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 자료

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교육과정, 역사자료 기반 역사 수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가 수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주제별 역사교육 자료 허브

주제별 역사교육 자료 허브	
주제	세부 내용
1. 민주주의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사건 • 4·19혁명 • 부마 민주항쟁 • 5·18광주민주화 운동 • 6월 항쟁
2. 전쟁과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대전 • 제2차 세계대전 • 홀로코스트 • 한국전쟁 • 베트남전쟁
3. 생태환경과 기술	
4. 학생, 여성, 장애인	
5. 역사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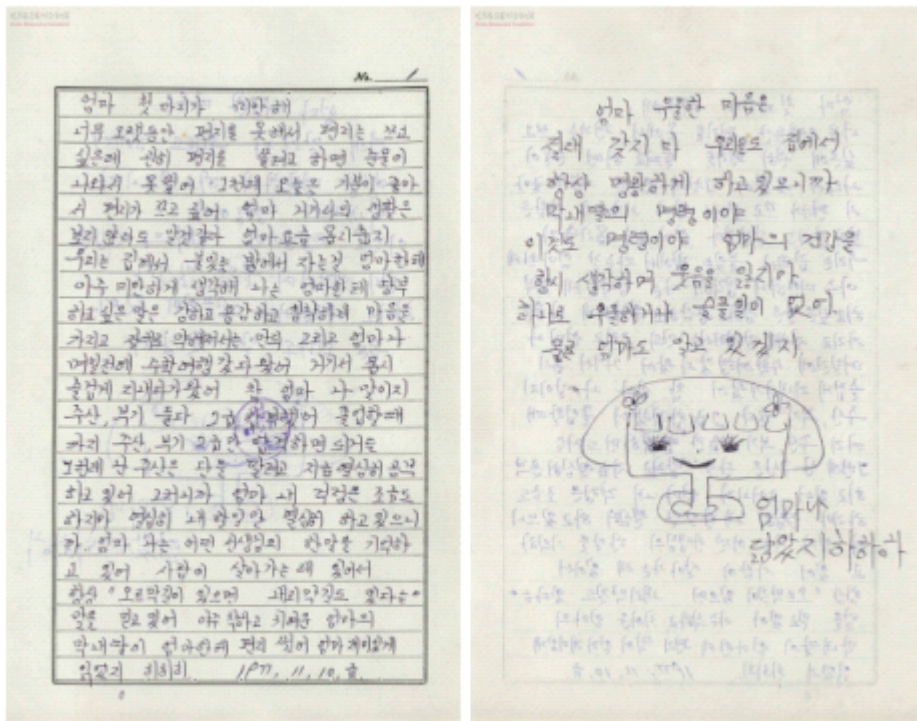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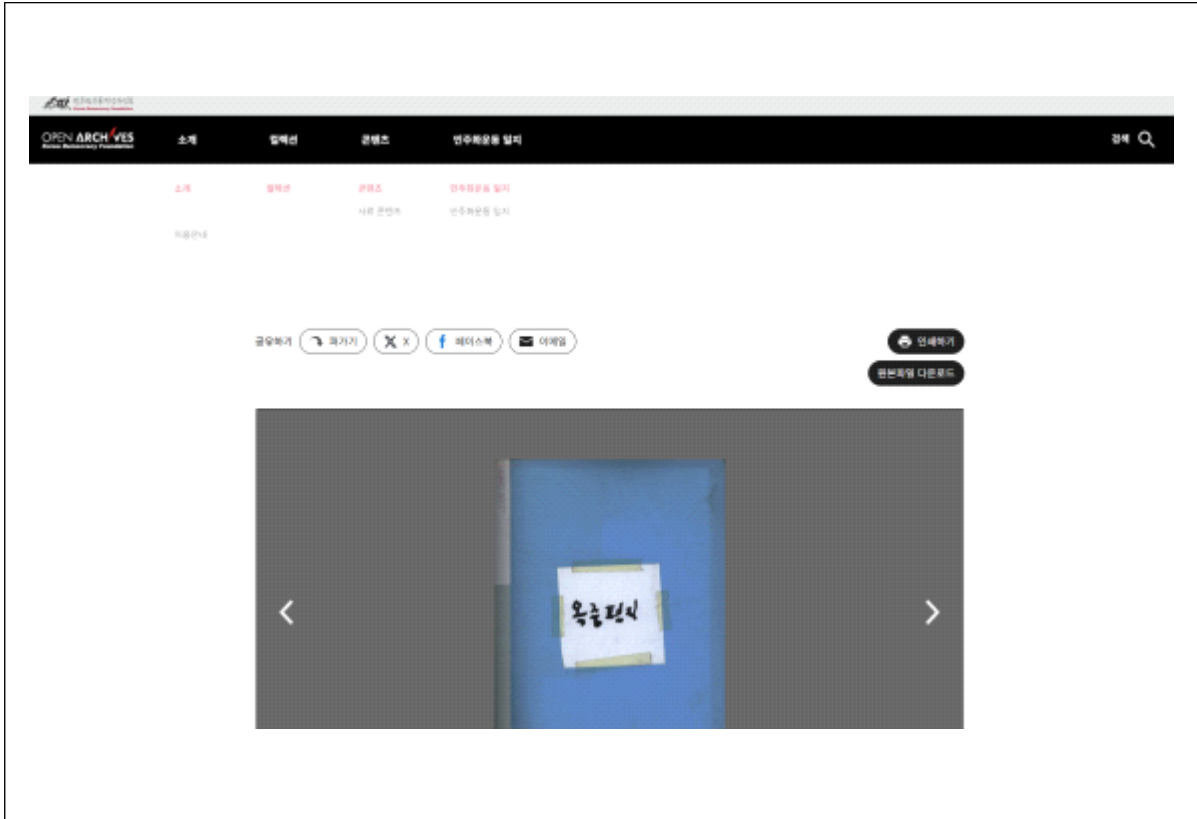
[그림 V-6] 역사교육자료센터 ‘주제별 역사교육 자료 허브’ 화면(안)

본 메뉴는 자료 기반 역사교육을 구현하는 핵심 공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전쟁과 폭력', '생태환경과 기술', '역사 부정' 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대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에 맞춰 사료, 이미지, 영상, 구술 자료, 활동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다.

다) 역사 기관 사이트 연계(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1) 자료 찾기⁵⁰⁾

50)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81746>



(감옥에 갇힌 어머니 이소선을 위해 딸 전순덕이 보낸 편지(1977.11.10.)

[그림 V-7] 감옥에 갇힌 이소선에게 딸 전순덕이 보낸 편지

(2) 자료 분석 및 수업 활용 방안 안내⁵¹⁾

(앞면)

엄마 첫 마디가 미안해.
너무 오랫동안 편지를 못해서. 편지를 쓰고 싶는데 괜히 편지를 쓸려고 하면 눈물이 나와서 못 썼어.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편지가 쓰고 싶어. 엄마 거기서의 생활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 엄마 요즘 몹시 춥지. 우리는 집에서 불 있는 방에서 자는 걸 엄마한테 아주 미안하게 생각해. 나는 엄마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강하고 용감하게 침착하게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돼. 그리고 엄마 나 며칠 전에 수학여행 갔다 왔어. 거기서 몹시 즐겁게 지내다가 왔어. 참 엄마 나 말이지. 주산. 부기 둘 다 2급 합격했어. 졸업할 때까지 주산. 부기 2급만 합격하면 되거든. 그런데 난 주산은 단을 띠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마. 열심히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엄마 나는 어떤 선생님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는 말을 믿고 있어. 아주 착하고 귀여운 엄마의 막내 딸이 엄마한테 편지 썼어. 엄마 재미있게 읽었지. 히히히 1977.11.10. 금.

(뒷면)

엄마 우울한 마음은 절대 갖지마. 우리들도 집에서 항상 명랑하게 하고 있으니까 막내 딸의 명령이야. 이것도 명령이야. 엄마의 건강을 항상 생각하며 웃음을 잃지마. 하나도 우울하거나 슬플 일이 없어. 물론 엄마도 알고 있겠지.
(그림) 엄마 나 닮았지. 하하하.

- 전태일의 사망 이후 아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활동을 조사해 봅시다.

■ 키워드로 찾아보기
#전태일 선생 #조영래 #이소선 #청계피복노동조합

[그림 V-8] 오픈 아카이브 연계 수업지도안

본 메뉴는 국내외 주요 역사 아카이브 및 데이터베이스(예: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5·18 기념재단, Contested Histories 등)를 연동하여 높은 자료 접근성을 기능한다. 단순 링크 제공을 넘어, 각 기관 자료의 특성과 수업 활용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교사의 효율적인 자료 탐색 및 활용을 지원한다.

라) 블로그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수업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동료 교사들과 피드백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살아있는 소통의 장(場)으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51) 윤세병 외, 『민주화운동 사료·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결과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2021.

5) 교사 지원

가) 프로젝트 기반 자료 개발

본 메뉴는 특정 주제에 대해 교사, 연구자, 전문가와 협력하여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온·오프라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실천적 지혜와 성과는 센터에 탑재되어 확산하도록 한다.

나) 교육 자료실

교육청이 이미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자료, 평화·통일교육 자료,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등을 비롯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지역 역사교육 자료, 역사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에 따른 성과와 결과물 등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축적해 나간다.

6) 학생 참여

가) Q&A

특정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역사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동료 학생, 교사, 전문가와 소통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Q&A 게시판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 학습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7) 국제협력

본 메뉴는 한국 역사교육의 성과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글로벌 차원의 역사교육 담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의 교육 자료, 프로젝트 성과 등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 민주주의 후퇴, 역사 부정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허브(HUB)로서 기능을 염두에 둔다.

마. 수업자료(안)-오월 일기 자료를 통한 5.18 민주화 운동의 행위 주체 이해⁵²⁾

역사교육자료센터가 사료 기반의 학습을 지향한다고 할 때,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업자료 모델을 개발해 보았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일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행위자들의 다양한 시선을 탐색하면서 인식의 차이, 역사적 맥락, 민주주의 및 인권 가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한 수업자료이다.⁵³⁾

52) 사이트맵의 5. 교육 자료 > 주제별 역사교육 자료 허브 > 민주주의와 인권 > 수업자료

53) <https://sites.google.com/dosun.hs.kr/senhistoryeducation>

sen역사교육자료센터
수업자료 > 참가 활동 > 다른 조직 자료

5.18의 여러 목소리

학생·시민·경찰의 일기를 읽다

교과목: (초)사회, (중)역사, (고)한국사 대상학년: 초6-고1 수업 시간: 40-50분, 1-2차시 선택 적용


연계 단원

초등학교(15개항) 사회6-1 1.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생략기준 [6사07-02] 민주화와 산업화로 인해 달라진 생활 문화를 사례를 들어 이해한다.
 중학교(22개항) 역사2 VI.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 -생략기준 [9역13-03]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탐구한다.
 고등학교(22개항) 한국사2 2.대한민국의 발전 -생략기준 [10한사2-02-03]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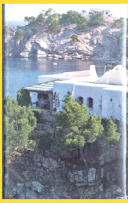
수업 개요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서로 다른 행위 주체들의 일기를 비교 분석하여, 관점 차이와 인식 변화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인권의 가치를 성찰한다.


수업 자료




국민추진본부 김현경(여) 일기



고등학교 장식(남) 일기




광주 시민 김송덕(여) 일기




전투경찰 유영욱(남) 일기

필수 질문 5.18 민주화 운동은 행위 주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었는가? 그 인식은 어떤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했는가?


학습 목표




1. 서로 탐구 능력
서로 다른 행위 주체(학생·시민·군·경찰)의 일기를 비교하여,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맥락적 이해 능력
일기 속 내용과 당시 사회·정치적 상황(연론 보도, 정부 발표, 현장 경험)을 연결해, 인식이 변화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다.



3. 비판적 역사 해석 능력
서로 상반된 기록을 근거로, 사료의 신뢰성과 한계를 평가한다.



4. 민주주의와 인권 성찰 능력
다양한 시각의 기록을 함께 읽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성찰하고 오늘날의 의미를 탐구한다.

[그림 V-9] 예시 수업자료 웹페이지 구성1
(제목-교과목-연계 단원-수업개요-수업자료-필수 질문-학습 목표)

1) 수업자료의 구성 요소

- 가) 대상 및 수업 시간: 초등 6학년 ~ 고등 1학년 대상, 수업 시간 40~50분으로 1~2차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 나) 교과 연계성(초등~고등학교) 과정 연결: 초등 사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정과의 단원 연계되었으며 성취 기준을 수록하였다.
- 다) 행위 주체별(국민 학생 김현경, 고등학생 장식, 광주 시민 김송덕, 전투경찰 유영욱) 일기가 사료로 제시되었다.

- 라) 필수 질문: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기록했는가, 인식 형성의 사회·역사적 맥락은 무엇인가 등을 제시하였다.
- 마) 학습 목표: 자료 탐구 능력, 맥락적 이해 능력, 비판적 역사 해석 능력, 민주주의·인권 성찰 능력 등 네 가지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림 V-10] 예시 수업자료 웹페이지 구성(수업을 위한 공식 지침-자료 활용에 관한 안내)

- 바) 공식 지침, 교육정책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오월 교육원칙 등 공식 문서가 자료 활용 지침으로 포함되었다.
- 사) 자료 활용 안내 및 유의 사항 - “오월 일기”의 특징 및 학습적 가치 설명
- 자료 공개 시기, 일기의 특징이 (당대 기록, 다양한 사회적 지위의 필자, 공식 서사 구조의 유무 등) 설명되었다.
 - 자료 비판 매뉴얼 (예: 유럽 평의회의 육하원칙)이 제시되었다.
 - 인공지능 활용 검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제시하여 단순한 답변 의존을 피하고, 검증·토론·자기비판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다.

2) 수업 활동

- 가) 수업 활동은 워크시트 형태의 완성 자료가 아니라,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방향과 인사이트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전체 구조는 행위자의 관점 이해 → 인식 형성 배경 분석 → 민주주의적 성찰로 이어지는 단계적 흐름을 따른다. 텍스트 자료와 함께 수업 흐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내가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현장 수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료(시민 일기, 구술 자료 등)와 연계 가능성을 열어 두어 확장 학습으로 발전시키기 적합하다.
- 나) 김현경(초등학생), 장식(고등학생), 김송덕(시민), 유영욱(전투경찰)의 일기를 활용하여 사건을 다층적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을 감정과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니라 원자료를 중심에 둬으로써 역사 수업에서 사료 활용의 의미를 체감하게 한다.
- 다) 수업 활동은 일기 내용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질문과 토의 방향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사건의 의미를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정보 환경과 행위자의 선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사료의 가치와 한계를 토론을 통해 검토한다.
- 라) 각 기록을 현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 기억과 책임의 문제까지 성찰하게 한다.

3) 위 수업자료의 특징 및 장점

- 가) 다양한 관점 제공: 여러 행위자(학생, 시민, 전투경찰)의 일기를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사건을 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일기를 통해 당시 상황의 생생한 정서를 접할 수 있어, 교과서식 설명보다 학생들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힘이 크다. 이는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건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한다.
- 나) 맥락 중심의 이해 강조: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언론·사회 분위기·정치적 상황 등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다) 비판적 사고와 사료 비판 능력 함양: 학생들이 자료의 신뢰성, 기록 시점·저자의 입장 등을 따져보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사료 비판 메뉴얼을 제공하였다. 단일 사료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일기·증언·문서 자료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로써 학생들은 사료 비판 능력과 다각적 시각을 기를 수 있으며, 교사는 질문 중심·토론 중심 수업을 구성하기에 적합하다.
- 라)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성찰적 접근: 단순히 사건의 기술이나 연대기적 흐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현경에게 편지 쓰기’ 같은 활동은 학생들의 자기 성찰과 시민적 소양을 강화하는

교육 효과로 이어진다.

- 마) 교육과정 및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공문서(교육청 조례, 교육원칙 등)를 인용하여 수업이 교육 제도 안에서 허용되고, 정당함을 확보했으며, 교사 및 학생이 자료의 공식성을 인식할 수 있다.

4) 고려 사항

- 가) 수업 주제에 관한 안내: 본 보고서 23~24쪽의 (3) 행위자에 주목하여 개발한 자료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여러 차시 수업의 일부이다. 5·18 민주화 운동을 수업할 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인식해야 할 의미와 주의사항을 제시하는 안내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업 자료는 안내 글이 없는 상황이다. 역사교육지원단(가칭)·역사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주제 선정 및 그에 해당하는 사료의 선별 기준 등을 세우고 이와 더불어 읽어야 할 핵심 논문과 주요 도서를 선별하여 소개하는 것이 좋다.
- 나) 자료의 균형성과 신뢰성 확보: 공식적 서사(영웅 중심 등)나 기존의 역사 기록과 대비할 때 일부 관점이 강조되거나 누락될 가능성 있다. 교사가 사료의 성격과 한계를 분명히 짚어 주고, 다른 사료와의 비교·보완을 통해 균형 잡힌 이해를 이끌어야 한다. 다양한 자료(신문, 정부 기록, 구술 증언 등)와 병행 사용하도록 구성하고 연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폭력적 과거와 연결될 경우 피해자의 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교실에서는 지역, 젠더, 이주 배경 등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해 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다) 학생들의 사전 지식 격차: 역사 지식은 교실의 역사 학습 이전에 사회적으로 습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감한 주제일수록 이해 방식에서 차이가 많을 수 있다. 언론 상황, 정치적 배경,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학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본 배경지식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 라) 학생 정서에 대한 배려: 일기 속에 ‘공포’, ‘무서움’ 같은 표현이 반복되므로 일부 학생들에게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수업 설계 시 감정적 몰입과 학습 효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사전·사후 성찰 활동을 통해 안정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마) 자료 해석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일기는 ‘자기 관점’이 강하고 기억 또는 정서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과 주관적 인식이 섞일 수 있다. 교사가 해제나 맥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왜 그러한 차이가 나는 건지 사고하는 것은 깊이 있는 역사 이해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일기 속 단편적 서술이 곧바로 역사적 사실로 오인되지 않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 다른 사회적 기록과의 연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료가 가진 부분적 시각이 전체 역사적 의미 속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5. 역사교육자료센터 운영(안)

가.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

역사교육자료센터는 단순히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 주체는 기획단과 운영단으로 이원화하여, 정책 방향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재정적 기반은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센터가 장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나. 소비형에서 참여형으로

센터는 단순히 자료를 공급하는 소비형 모델을 넘어, 교사·연구자·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자료를 단순히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수업 자료, 프로젝트 성과, 연구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식의 생산-공유-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 역사교육자료센터를 넘어 (민주)시민교육센터로

센터의 위상은 단순한 자료 저장소가 아니라, 역사교육 전문 허브로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센터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교사 연수, 프로젝트 진행, 연구 성과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료 공간과 소통 공간을 통합하여, 교육자·연구자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처럼 유로클리오가 홈페이지, 히스토리어나, Contested Histories를 따로 운영하는 분리형 모델과 달리, 통합형 플랫폼을 구상하면서 역사만이 아니라 범교과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센터를 구축했으면 한다.

라. 사회적 차원의 역사교육으로 확장

서울은 지역이자 동시에 중앙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으로, 전국적 파급력을 갖춘 역사교육 모델을 선도할 수 있다. 서울형 역사교육자료센터'를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형 역사교육 권고안을 만들고 한국 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역사교육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 협의체와 충분히 소통 협의한 결과로써 이를 발표할 수 있다.

마. 연구와 실천이 결합된 역사교육

역사교육자료센터는 단순한 아카이브가 아니라 역사교육 연구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교사, 연구자, 전문가가 일정 기간 공동 연구를 통해 주제를 탐구하고, 이를 교육 실천과 연결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역지사지 토론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주제별 역사 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별히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수업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전략적 명확성의 중요성

역사교육자료센터의 미션·비전·목표·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센터의 존재 이유와 장기적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에 맞는 전략적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장기 계획

역사교육자료센터는 단기적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준비기(구축기) → 시작기(도입기) → 정착기 → 활성화 등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치적 압력이나 일시적 유행(예: 교육감 선거, 단기적 활성화 사업)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미션과 비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교육센터나 한국교육자치연구원과 같은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3. 콘텐츠 제공과 관리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콘텐츠는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세심한 큐레이션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역사교육의 핵심 가치인 다원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관리와 제공은 센터의 신뢰도와 전문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4. 교육적 깊이를 담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논쟁적이고 다원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단단한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FHAO(Facing History and Ourselves) 등 검증된 교육 모델을 참고하고, 유럽평의회, 유네스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제시한 지침을 검토하여 역사학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서울교육에 맞는 형태의 지침을 도출해야 할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역사교육지원단(가칭), 역사교육위원회와 같은 공적 협의체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5.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역사교육자료센터는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교육 현장의 요구를 직접 반영하고, 민주적 참여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연구자-교사-학생 간의 연계와 국제적 교류를 강화하여 공공역사·공공역사교육 생태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6. 교사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 강화

역사교육자료센터를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 온·오프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사교사들의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하며, 교사-연구자 간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수 기능을 가짐으로써 논쟁적 주제와 다원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갖추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피드백의 기능도 갖추므로써 일방적 교육이 아닌 쌍방향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지원과 소통은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를 넘어서 역사교육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7. 온라인·디지털·영문화 전략

현대의 자료센터는 디지털 기반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넘는 확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영문화 작업이 필요하다. 유로클리오의 히스토리아나와 같은 큰 영향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국내 역사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8.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융합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확장 가능성

역사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센터를 유지하되 국어, 사회, 예술 등 타 교과와 연계한 융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판적 사고력과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교과적 융합적 활동, 시민 사회와의 협력 적 프로젝트 등도 역사교육자료센터의 기능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역사교육자료센터가 학생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VII. 참고 문헌

- 곤도 다카히로 저, 박경희 역, 『역사 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 김승렬·이용재, 『함께 쓰는 역사: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 교과서 개선 활동』, 동북아역사재단, 2008
- 방지원·윤세병 외, 『교육자치시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 서울특별시교육청,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서울형 토론 모형』, 201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기준과 함께 생각해 보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2019
- 서울특별시교육청, 『논쟁 문제 가르치기』, 2019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집』, 2019
-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사지형 공존형 토론 수업』, 2023
- 오토-에른스트 쉬데코프 저, 김승렬 역, 『미래를 건설하는 역사교육: 1945-1965 유럽 역사 교과서 개선활동』, 역사비평사, 2003
- 왕현중 외, 『한국사』, 두산동아, 2014
- 윤세병 외, 『민주화운동 사료·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결과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2021
- 이인석 외, 『한국사』, 삼화출판사, 2010
- 팔크 핑엘 저, 한운석 역, 『교과서 연구와 수정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2010
- 한철호 외,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7
- 강남진, 「역사 교사가 구성하는 5·18 교육과정: 교육자료 생산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49, 2024.
- 강화정, 「논쟁성에 기반한 역사 수업과 역사교실의 변화」, 『역사교육연구』 37, 2020
- 노명환, 「통합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5·18민주화운동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방지원, 「학습내용구성 관점에서 본 최근 역사교육의 민주시민교육 논의: 대안적 구성 방향의 모색」, 『역사교육논집』69, 2018.
- 신예진,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교육용 기록정보 콘텐츠의 효용성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 「서울시교육감,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TV서울》, 2025.1.7. <http://www.tvseoul.kr/mobile/article.html?no=65761>

이명선, 「초등 방과후 자격증 미끼로 ‘맷글 공작팀’ 모집」 《뉴스타파》 2025.5.30. <https://newstapa.org/article/AsqjB>

장재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복 80주년 맞아 ‘별빛 역사 동행’ 한마당 연다」 《에듀프레스》 2025.8.26.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8>

Adwan, S., et al., *Side by Side: Parallel Histories of Israel -Palestine*. The New Press, 2012.

Against bias and prejudice: The Council of Europe's work on history teaching and history textbook,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 1995

A Handbook for the Improvement of Textbooks and Teaching Materials as Aids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ESCO, 1949

Carmel Gallagher, *History teaching and the promotion of democratic value and tolerance-A Handbook for teachers*, 1996

Council of Europe, *Quality history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Principles and guidelines*, 2018

EUROPA -Unsere Geschichte (Bd. 2): Neuzeit bis 1815. Eduversum, 2017.

Peter Seixas, *The big six historical thinking concepts*, Nelson Education, 2013

Sam Wineburg et al., *Reading like a historian: Teaching literacy i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classrooms*, Teachers college press, 2012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Rec(2001)15 on history teaching in twenty-first-century Europe. Council of Europe, 2001, October 31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1283(1996) on history and the learning of history in Europe. Council of Europe, 1996, January 22

Council of Europe, Resolution 2584: Multiperspectivity in remembrance and history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Council of Europe, 2025.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underpinning the pillars of transitional justice (A/HRC/54/24),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23.

Teresa Elena Ortega, Historical Thinking and Civic Online Reasoning, *History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General Report Second annual Forum for History Education*, Council of Europe, 2023.

福井憲彦, 『歴史學入門 新版』, 岩波書店, 2019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https://www.kdemo.or.kr/>

5.18기념재단 <https://518.org/base/main/view>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http://buma1979.or.kr/?page_id=33637

Contested Histories <https://contestedhistories.org>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https://www.facinghistory.org/>

Historiana <https://historiana.eu/>

Holocaust Memorial Day Trust <https://hmd.org.uk/>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https://www.ushmm.org/hpto/eofy2025/index.html>

<부록>

역사교육 관련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을 위한 참고 자료

역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역사교육자료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이런 역사교육의 규범과 실천을 위한 오랜 노력이 갖는 의미를 살리는 일이다.

역사 교실에서 활용이 가능한 워크북이나 워크시트의 제공에 앞서 교수-학습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원칙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오랫동안 역사교육의 실천과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역사교육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고 확장하면서 재구성해나가기 위해 권고안으로 정리하고 갱신함으로써 축적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역사교육 권고안과 역사학습의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교육청 역사교육자료센터가 기존의 교수-학습센터와 차별성을 갖는 부분의 하나였으면 한다. 특히 역사 관련 정보가 넘쳐나는 탈진실 시대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사교육의 방향을 세우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1. 유럽의 역사와 역사교육(유럽평의회)
2. 21세기 유럽에서의 역사교육에 관한 권고안(유럽평의회)
3. 21세기 양질의 역사교육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유럽평의회)
4. 민주적 시민 의식을 위한 기억과 역사교육에서의 다원적 관점 결의안(유럽평의회)
5. 민감하고 논쟁적 주제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 가이드(유럽역사교육자협의회)
6. 안전한 학습 환경 만들기(서울 ○○고)
7. 홀로코스트 교육 지침(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
8.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위한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 지침(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데이 트러스트)
9. 인권 및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상황에서의 기억화 경로: 이행기 정의의 다섯 번째 기둥(UN 총회)

1. 유럽의 역사와 역사교육(1996)⁵⁴⁾

권고안 1283 (1996)

저자: 의회 총회

출처: 1996년 1월 22일 의회 총회 제1차 회의 (문서 7446, 문화 및 교육위원회 보고서, 보고서: 데 푸이그). 의회에서 1996년 1월 22일 (제1차 회의)에 채택된 텍스트.

1.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인할 권리도 있다. 역사는 이 과거를 되찾고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다. 또한 과거와 다른 문화의 경험과 풍요로움으로 통하는 문이다. 역사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식과 통제된 상상력의 발전을 다루는 학문이다.
2. 역사는 오늘날 유럽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유럽의 개인과 민족 사이의 이해, 관용,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분열, 폭력, 편협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3. 역사 인식은 중요한 시민 역량이다. 이를 결여한 개인은 정치적 및 기타 조작에 더 취약해진다.
4. 대부분의 젊은이에게 역사는 학교에서 시작된다. 역사 학습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역사적 사실의 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며,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민주적, 관용적, 책임감 있는 시민적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5. 학교는 역사 정보와 견해의 유일한 출처가 아니다. 다른 출처에는 대중 매체, 영화, 문학, 관광 등이 포함된다. 가족, 동료 집단, 지역 및 국가 사회, 종교적 및 정치적 단체들도 영향을 미친다.
6. 새로운 통신 기술(CD-I, CD-ROM, 인터넷, 가상현실 등)은 역사적 주제의 범위와 영향을 점차 확장시키고 있다.
7. 역사는 전통, 기억, 분석적 역사 등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각 형태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사실이 선택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역사 형태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54) Recommendation 1283 (1996) on History and the learning of history in Europe

8. 정치인들은 역사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조작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거의 모든 정치 체제는 역사를 자신의 목적에 이용했으며, 역사적 사실의 판본과 역사 속 선악의 인물에 대한 정의를 강요해 왔다.
9. 역사학자들은 객관성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는 지속적인 목표를 가질지라도, 역사의 본질적인 주관성과 그것이 재구성되고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10. 시민들은 조작되지 않은 역사를 배우는 권리가 있다. 국가가 이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편향 없이 모든 교육에서 적절한 과학적 접근을 장려해야 한다.
11. 교사들과 연구자들은 역사교육 내용의 갱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역사가 현재와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12. 학교 교실, 텔레비전 스튜디오, 대학 도서관 등 역사 관련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3. 최근까지 역사 조작(manipulation)을 겪어왔고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검열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중부 유럽 및 동유럽의 문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 총회는 장관위원회가 유럽에서의 역사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 사항을 고려하여 장려할 것을 권고한다.:
 - 14.1 역사 인식은 모든 젊은이의 교육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정보를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습득하며,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기타 편견에 기초한 고정관념과 왜곡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14.2 역사교육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측면(사회·문화사 및 정치사)을 포함해야 하며, 여성의 역할은 적절히 인정되어야 한다. 지역적·민족적(그러나 국가주의적이지 않은) 역사와 소수 집단의 역사도 교육되어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민감하며 비극적인 사건들은 긍정적인 상호 영향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4.3 유럽 전체의 역사, 주요 정치적 및 경제적 사건, 유럽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철학적 및 문화적 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14.4 학교는 동일한 주제가 다양한 국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인식해야 하며, 이는 학교 간 교류의 기반으로 발전될 수 있다;
- 14.5 게오르그 에커트 국제 교과서 연구소(Georg Ecke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을 지원해야 하며, 회원국의 교육부 및 교과서 출판사는 해당 연구소의 교과서 컬렉션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14.6 역사 학습의 다양한 형태(교과서 연구, 텔레비전, 프로젝트 작업, 박물관 방문 등)는 배타적인 선호 없이 결합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보 기술은 완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및 학술적) 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 14.7 청소년의 역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외의 요인 간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물관(특히 역사박물관), 문화 루트 및 답사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한다;
- 14.8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장려되어야 하며, 특히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직무 연수가 지속되어야 한다. 역사 교사들의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장려해야 한다. 역사는 문화 협력 위원회(Council for Cultural Co-operation)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내에서 조직된 유럽 교사 교육과정의 우선 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 14.9 교사들과 역사학자들 간의 협력을 장려해야 하며, 예를 들어 문화 협력 위원회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20세기 유럽 역사교육에 대한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교육위원회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 14.10 독립적인 국가별 역사 교사협회의 설립에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유럽역사교육자협의회인 유로클리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14.11 역사 교사들과 협력하여 역사교육 실천 지침을 수립하고, 정치적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럽 헌장을 마련해야 한다.
15. 총회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지지하면서도, 방송 분야와 유사한 전문적 책임을 기대한다. 따라서 총회는 장관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5.1 정부에 역사 연구 및 현대사 관련 다자간 및 양자 간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 15.2 역사학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고려하여 유럽에서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가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 15.3 역사학자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16. 역사 분야에서 유럽적 차원의 협력은 장려되어야 한다. 의회는 장관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고한다.:
- 16.1 유럽 각 민족의 역사적 요소 중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연구하여 모든

유럽 역사 교과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16.2 회원국에 역사 온라인 도서관 설립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

16.3 회원국이 독일 본의 ‘역사의 집’을 모델로 국가역사박물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할 것;

16.4 역사 및 역사교육 분야의 다자간 및 양자 간 프로젝트, 특히 인접 국가 간 지역 프로젝트를 촉진할 것.

2. 21세기 유럽에서의 역사교육에 관한 권고안(2001)55)

유럽 평의회 장관위원회 권고안 Rec(2001)15(2001년 10월 31일 제771차 장관 대리인 회의에서 장관위원회에서 채택함)

1. 21세기 역사교육의 목적

민주적 유럽에서의 역사교육은:

-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시민의 양성과 모든 종류의 차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원칙에 기반을 둔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민족들 간의 화해, 인정, 이해 및 상호 신뢰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및 민주주의와 같은 기본 가치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공통된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다양성, 심지어 갈등적이고 때로는 드라마틱한 측면까지 포함하여 풍부해진 유럽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반한 건설이 근본적 부분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젊은 세대의 발전과 진보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 일부가 되어야 하며, 이는 유럽 건설에의 적극적 참여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의 정신 속에서 인류 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적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대화, 역사적 증거의 탐구, 다원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
- 유럽 시민들이 지방적, 지역적, 국가적, 유럽적, 글로벌 차원에서 공유된 역사적 유산을 통해 자신의 개인적 및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예방의 수단이 된다.

2. 역사의 오용

역사교육은 이데올로기적 조작, 선전 도구로 사용되거나, 편협한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반유대주의적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연구와 역사는 유럽 평의회의 기본 가치와 규범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의도라도 호환될 수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역사 왜곡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 역사적 증거의 조작 또는 허위 증거의 창작, 조작된 통계, 위조된 이미지 등;

55) Recommendation Rec(2001)1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istory teaching in twenty-first-century Europe

- 한 사건에 집착하여 다른 사건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것;
- 선전을 위해 과거를 왜곡하는 것;
-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창출할 수 있는 과도한 민족주의적 과거 해석;
- 역사기록의 남용;
- 역사적 사실의 부인;
- 역사적 사실의 생략.

3. 유럽 차원의 역사교육

유럽의 건설은 유럽인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정과 역사적 현실의 표현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지역적, 지역적, 국가적, 유럽적 수준 간의 지속적인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
- 유럽 차원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시기나 발전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는 것, 특히 유럽 의식을 형성하는 역사적 또는 문화적 사건과 경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
- 학교 간 유럽 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협력 및 교류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 특히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것;
- 학생들이 다른 유럽 국가 역사에 관한 관심을 키우는 것;
- 유럽 건설 자체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거나 발전시키는 것.

확대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유럽에서 유럽 차원의 역사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절하다:

- 문화 협력 위원회가 진행한 “20세기 유럽 역사에 대한 학습과 교육”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용과 방법론적 접근 측면에서 반영한다;
- 민주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 활동 과정에서 유럽 평의회는 역사교육 개혁 및 새로운 교과서와 방법론적 지침서 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유럽 평의회는 유산 인식 제고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20세기 유럽 역사 학습 및 교육” 프로젝트에서 제작된 교육자료를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능한 한 널리 보급한다;
- 러시아 연방, 카프카스 국가, 동남유럽 및 흑해 지역에서 역사교육의 새로운 교육과정 및 기준 수립, 특히 새로운 교과서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유럽 평의회는 교육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유럽 맥락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견해와 경험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교육과정 내용

역사교육은 백과사전적 지식의 집적을 피해야 하지만,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교육과정 수립 시 유럽 차원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세계에 개방된 “유럽 의식”을 심어주는 것;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독립적 사고 능력, 객관성, 조작에 대한 저항력 육성;
- 유럽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과 순간을 지역적, 국가적, 유럽적, 글로벌 수준에서 연구하며, 특히 중요한 시기나 사건을 통해 접근;
- 유럽 역사의 모든 차원(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연구;
- 호기심과 탐구 정신의 육성, 특히 유산 연구에서 발견 방법을 통해 다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방식;
- 편견과 고정관념의 제거를 위해, 유럽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 종교, 사상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 영향을 역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
- 역사적 사실의 부인, 왜곡, 생략, 무지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으로의 재해석에서 비롯된 역사 왜곡의 비판적 연구;
- 다양한 사실, 의견, 관점을 고려하고 진실을 찾는 과정을 통해 논쟁적인 문제 연구.

5. 학습 방법

자료 활용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 비판적·분석적 접근을 통해 학습하게 하도록 가능한 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 일반에 공개된 아카이브, 특히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아카이브로, 이제까지 접근이 불가능했던 진정성 있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다큐멘터리 및 허구적 영화 및 오디오 비주얼 제품;
- 정보 기술로 전달되는 자료로, 개인적 및 집단적 학습을 통해 연구되어야 하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 유럽 전역에 설립된 20세기 박물관과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로, 학생들이 최근 사건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특히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를 체험하게 한다;
- 구술사로, 최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구술 증언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역사 기록”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 연구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개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이는 정보 수집에 대한 호기심과 주도성을 키우고 주요 사실을 추출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집단 연구

학생 그룹, 학급, 학교는 연구 프로젝트나 활동 중심 학습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이는 대화의 조건을 창출하고 개방적이고 관용적으로 의견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학제 간 접근법

역사 학습은 항상 학제 간 접근법의 교육적 잠재력을 활용해야 하며, 문학, 지리, 사회과학, 철학, 예술 및 과학 등 교육과정의 다른 과목들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야 한다.

국제적·국경을 초월한 접근법

상황에 따라 국제적·국경을 초월한 프로젝트의 실시를 장려해야 하며, 이는 공통 주제의 연구, 비교적 접근법, 또는 여러 국가의 학교들이 공동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학교 간 연결 및 교류의 설립을 활용해야 한다.

6. 교육과 기억

20세기 긍정적인 성과, 즉 과학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생활 조건 개선,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등을 강조하면서, 교육 분야에서는 이 세기를 어둡게 한 파괴적인 사건들—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 기타 반인도적 범죄, 인종 청소, 그리고 유럽 평의회가 특히 헌신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대규모 인권 침해의 재발이나 부인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학생들이 유럽과 세계 역사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들 - 그리고 그 원인 -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
- 이러한 사건으로 이어진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 유럽 문화 협력 협의회 회원국들의 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관련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발전 및 조정하는 것;
- 이 주제에 대한 기존 문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inter alia*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지원하고, 이 분야에서의 교육자료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 교육 장관들의 결정(크라쿠프, 2000)을 이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즉 각국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기념과 반인도적 범죄 예방을 위한 날을 지정;
- 유럽 평의회가 홀로코스트 교육, 기념 및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태스크포스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기여를 강화하는 것.

7. 신규 및 경력 역사교사 대상 교육

초임 및 재직 중 역사 교사 대상 전문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역사 교사들이 복잡하고 과정 중심적이며 성찰적인 역사교육 방법을 활용하고 장려하도록 지원하는 것;
- 미래의 역사 교사 및 현직 교사들에게 최신 제품, 도구 및 방법,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교사들이 사실적 정보를 넘어,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분석하며,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맥락 등 다양한 맥락에서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술을 활용하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 학생들이 기억한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지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예: 연구, 토론, 논쟁적 문제 분석 등)을 고려한 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동료 교사들과 협력하여 교실에서 교과 간 통합 학습을 설계하고 창출하는 것을 돕기.

정보 통신 기술이 역사 교사들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다:

- 교사들이 새로운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 상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교류의 기회를 창출한다;
-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직업적 어려움, 망설임, 의문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 그룹의 설립을 지원한다;
- 문서와 사이트의 가용성뿐 아니라 해당 문서와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의 신뢰성을 명시하는 자료 은행을 개발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역사 교사에게 특화된 프로필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절하다:

- 역사 교사 교육 기관에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역사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 이 권고안에 포함된 원칙에 기반해 역사교육자 교육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 초임 및 재직 중 역사 교사 교육의 목적, 구조, 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교환을 촉진하여 초임 및 재직 중 역사 교사 교육, 교사 연수 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역사 교사 교육에 관여하거나 관련된 모든 기관(특히 미디어) 간의 파트너십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그들의 특별한 사명과 특정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정보 통신 기술

법령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역사 왜곡 관련 자료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이 청소년의 학교 내외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맥락에서, 교육 방법과 기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역사교육에 필수적인 자원임;
- 자료의 다양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교사 및 학생이 원본 자료와 다양한 해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적 정보와 사실에 대한 접근을 획기적으로 확대함;
- 교류와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고 촉진한다.

또한, 교사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자료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보 출처와 정보의 신뢰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비판적 분석을 장려하고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며, 사실 해석에 문화 간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수업 절차를 도입하는 것;
- 학생들이 비판적 분석과 유추적 추론과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3. 21세기 양질의 역사교육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2018)⁵⁶⁾

1.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및 상호작용적 교수법 개발

“학생들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부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과 상호소통의 교수법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상충되는 역사적 서사를 전달할 수 있다. 강조점, 중요성, 판단 또는 최종 결론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서사는 사료의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지지하는 견해와 상반되는 불편한 증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진실에 대한 관심, 논증의 타당성, 증거에 대한 존중과 같은 지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1. 교사는 역사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바꿀 수 있는가? 교사의 유연성이 핵심이다.
 - 1.1. 교사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 견해, 편견, 고정관념 및 편향성을 인지하고 개방적으로 드러내며, 어려운 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교육과정은 포용성을 지향하며 소수 집단과 이주민의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2.1. 사회 내 지배 집단의 역사와 문화만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은 다수 집단 외부의 학생들이 이를 접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들은 지배 집단의 역사와 문화를 개인적으로 무의미하고 관련성이 없으며 때로는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 교육과정의 숨겨진 관행과 메시지를 다루어야 한다.
 - 2.2. 사회 내 지배 집단의 역사와 문화만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은 다수 집단이 타자에 대해 배우는 기회마저 박탈한다.
3. 포용성은 학습, 문화, 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고 교육 내·외부의 배제를 줄여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조응하는 과정이다. 이는 내용, 접근법, 구조, 전략의 변화와 수정을 수반한다.
 - 3.1. 학생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교사는 의식적으로 일관되게 학생과 그 가족의 직접적·역사적 경험, 감정, 신념을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연결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지역·국가·세계의 역사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4. 교사들은 문화적 지배, 고정관념 및 차별을 피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자료군에서 자료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4.1. 역사 교재에서 명백한 고정관념을 식별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작업이다. 반면 성별,

56) *Quality History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Principles and Guidelines*, Council of Europe, 2018

민족, 언어, 사회적 지위 또는 집단 내 신규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은밀한 고정관념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2. 민주주의의 복잡한 역사에 관한 교수와 학습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에는 개인이 이성적이고 정보에 기반한 판단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역사교육은 그 내용, 학문적 기술, 그리고 교수법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가이드라인

1.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는 지식 습득과 비판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1.1. 민주적 가치의 이해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역사 교육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역사적 투쟁, 또는 민주적 제도와 민주적 절차의 발전에 관한 가르침과 학습을 포함한다.
2.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통해 학습할 때는 학습의 정서적 차원을 촉진하는 체험적 학습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 2.1. 역사 교육과 학습은 학생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협력적 학습을 경험하며, 자신의 견해와 해석을 표현하고, 이성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상반된 견해를 경청하며, 정기적으로 교실 토론에 참여하는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 2.2. 따라서 학생들은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습득한다.
3.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비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민주적 교육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학습은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이다.
 - 3.1. 이러한 학습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문화 간 대화 및 사회 전반에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역량을 부여한다.

3. 평범한 개인과 집단의 활동이 사회의 역사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반영하기

“사회사는 역사교육에서 점점 더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사회사는 포용적이고 대표성을 지닌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시민들의 기록된 경험에 대한 이해가 적극적인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이드라인

1. 오직 역사만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동과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그들의 동기, 적응력, 그리고 인간이 선악을 막론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할 수 있다.
 - 1.1. 역사 연구는 과거 사람들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동이 어떻게 세상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역사적 흐름이나 권력자의 행동에 휘둘린 존재가 아니었다.
 - 1.2. 특정 집단과 그들의 경험을 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즉 자신들을 위해 행한 일은 거의 무시된 채 가해진 일의 관점에서 묘사할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노예제 폐지, 여성 해방, 참정권 확대와 관련된 사례들이 그러하다.
2. 학생들은 과거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 2.1. 노예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학살, 홀로코스트에 의한 수백만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 배우는 것과 노예로 살았던 한 개인, 이름이 알려진 한 병사 또는 한 유대인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추적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더 강력한 학습 경험이다.

4. 서로 다른 문화적·종교적·민족적 배경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회에 정착해 왔음을 인식하기

“유럽의 특징은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에 있다. 소수 집단의 존재는 현대의 영토 경계가 설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및 기타 측면에서 유럽 대부분의 역사는 다양한 집단 간의 오랜 상호작용의 역사이다. 포용적 접근은 사회 내 지배적 다수 집단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선다.”

가이드라인

1. 인류의 역사는 서로 다른 공동체가 접촉하며 문화들이 소통해 온 상호문화주의의 역사이다.
 - 1.1. 문화는 내부적으로 이질적이고 논쟁적이며,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개인들은 다양한 문화에 복잡한 소속감을 가진다.
 - 1.2. 문화 간 상황은 서로 다른 국가 출신 사람들, 서로 다른 지역적·언어적·민족적·종교적 집단 출신 사람들 또는 생활 방식, 성별, 연령 또는 세대, 사회 계층, 교육 수준, 직업, 종교적 신념 수준, 성적 지향성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2. 역사교육에서의 단일문화 교육과정은 차이를 위협하고 분열적이라고 보는 문화적 지배

모델의 일부였다.

- 2.1. 역사교육은 기존의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가장 크거나 지배적인 언어·문화 공동체의 역사와 일치하는 국가적 서사에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 2.2. 역사교육은 ‘모든 문화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순수하고 단일한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화는 혼합적이고 이질적이며, 극도로 차별화되어 있어 단일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포용적이어야 한다.
- 2.3. 소수자 및 원주민 문화의 역사를 포함하는 것은 해당 배경을 가진 학생이 있는 교실뿐만 아니라 모든 교실에서 중요하다. 모든 학생이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 출신 사람들이 과거에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5. ‘타자’와 우리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 존중

“역사교육은 집단 내부의 다양성과 집단 간의 다양성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문화적 정체성 및 기타 정체성은 정적이고 단일체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다면적이다. 이는 모든 전통이나 집단 정체성의 형태를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사와 집단의 역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지향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1. 타자화의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여 젊은이들이 다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 1.1. 타자화의 정당화는 흔히 인종적 순수성이나 국가적 고유성에 관한 신화와 전통을 동원하며, 그 타당성이 허위임과 무관하게 활용된다.
 - 1.2. 한 정체성이 지배적이 될 때 민족 간 차이는 극심해질 수 있다.
 - 1.3. 타자화는 고정관념의 한 형태로, 우리는 자신을 통합되고 차별화되지 않은 집단(우리)의 일부로 인식하는 반면, 집단 외부인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그들 또는 ‘타자’)로 인식한다. 이들은 열등하거나 약하며 심지어 위협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더 강하거나 우월하다고 여겨진다[예: 식민지 지배나 노예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타자화].
2.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관한 교육:
 - 2.1.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과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자기 묘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활용해 자신을 설명한다.
 - 2.2.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면서도 관리해야 하는 다양한 문화적 소속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복합적 정체성은 더 이상 특정 민

족이나 종교 집단과 관련된 집단적 정체성으로만 제한될 수 없다.

6. 역사적 자료 평가 및 조작적 선전 대응을 위한 도구 제공

“(…) 소문과 조작된 콘텐츠의 역사적 영향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으나, (…)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전 지구적 규모의 정보 오염; 이러한 ‘오염된’ 메시지를 생성·유포·소비하는 복잡한 동기 구조;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무수한 유형과 기법; 이 콘텐츠를 호스팅하고 재생산하는 무수한 플랫폼들; 그리고 신뢰하는 동료들 사이의 초고속 소통 속도 (…)
(…) 시각 자료는 다른 형태의 소통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지가 조작과 설득에 미치는 힘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우리가 시각 자료를 이해하는 방식은 텍스트를 생각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이드라인

1. 역사는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조작 메커니즘을 해체하는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 1.1. 디지털 시각 자료와 문헌 자료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학생들은 역사학자의 분석적·비판적 사고 능력을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학생들은 핵심 역사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며, 선별하고 활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1.2. 동기, 유용성, 신뢰성, 진실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역사적 자료와 해석에 접근할 때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조작을 방지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 1.3. 다양하고 상충되는 자료의 활용은 역사적 해석이 잠정적이며 재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편협한 극단적 국가주의, 외국인 혐오 또는 인종주의 사상을 조장하려는 서술을 너무 쉽게 수용하는 것을 막아, 역사의 오용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 1.4. 시각 자료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은 사진, 다큐멘터리 영화 또는 방송 영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자료가 제공하는 ‘의도적’ 증언과 ‘무의식적’ 증언(이미지가 묘사하는 내용과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 전자 매체의 잠재적 오용에 대한 인식 제고.
 - 2.1. 교육자들은 젊은 세대의 소셜 미디어 및 시각 자료 활용 방식이 자신들의 방식과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전자 매체의 이점과 잠재적 위험 모두에 경계심을 갖도록 보장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7. 민감하거나 논쟁적 주제 다루기

“특히 고통스럽거나 비극적, 굴욕적, 분열적이라고 인식되는 사건들을 다루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사건들을 언급하면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거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교실 안팎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국가의 역사에서 정복, 영광, 지배의 시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기들은 이웃 국가에 대한 태도를 규정함으로써 관용과 평화 증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적이거나 민감한 사건들을 생략할 경우 학생들이 과거에 대한 왜곡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접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공백은 역사 교실 밖의 출처에서 얻은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설명들로 채워질 수 있다.”

가이드라인

1. 논쟁적이거나 민감한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역사를 닫힌 실증주의 학문이 아니라 열린 서사로서 학습할 수 있게 한다.
 - 1.1. 다양하고 상충되는 자료의 활용은 지식의 구축이 지속적인 탐구 과정임을 보여주며,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1.2. 과거 사건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비판적·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대 사건과 문제에 동일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2.1. 학생들은 이질화(거리두기) 방법론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사안을 논쟁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민주적 토론과 문화 간 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된다.
 - 2.2. 학생들은 갈등의 본질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3. 교실 안팎에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쟁적 주제의 잠재력이 바로 이러한 주제를 가르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 3.1. 교사들은 학습의 정서적 요소를 다루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며, 신규 교사의 연수 과정이 인지적 측면에만 집중하기보다 학습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 3.2. 학습 환경은 학생 참여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히 어려운 대화나 감정적 교류 관리에 중요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 의견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이다.

8. 역사교육과 학습에서 인지적, 정서적, 윤리적 차원의 균형

“다양성, 포용성,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지식적 요소를 포함하며, 특히 어려운 역사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정서적 애착과 반응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교 역사교육을 자신들의 삶과 무관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여기게 될 수 있다. 학생과 역사적 과거 사이의 대화적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과거에 살았던 이들의 필요와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공감은 교육적 전략으로서, 역사가의 필수 도구로서,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민주적 사회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관련성을 갖추기 위해 역사교육은 학생들의 개인적 열망, 관심사 또는 문화적 경험에 직접 적용 가능한 학습 경험(개인적 관련성)이나 현실 세계의 문제, 쟁점, 맥락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학습 경험(삶의 관련성)을 허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1. 이성적 요소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소의 힘을 인식하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 부여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역사 학습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이다.
 - 1.1. 이는 특히 최근 과거를 연구하고 이를 현재 사건 및 관심사와 연결하는 맥락에서 중요하다.
 - 1.2. 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구축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다원적 접근법을 포함해야 한다.
2. 역사적 공감은 가르치기 복잡한 개념이다. 이는 역사적 사건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가능한 동기 및 원인 요소를 연결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 2.1. 이를 위해 학생들은 역사적 자료와 접하며 해당 시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 2.2. 역사적 공감은 특정 입장을 동일시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것이다. 역사적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3. 공감적 인식 교육의 진전은 반드시 선형적이거나 일정하거나 직선적이지 않다.
3. 가치관과 도덕규범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 3.1. 서로 다른 시대와 동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회의 사람들은 개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가치 체계와 고유한 도덕규범을 지니고 있었다.
 -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윤리적 한계를 넘어선 반인도적 범죄들이 존재해왔다. 과거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표현하는 데 잠재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일관되고 다층적인 해석 체계를 구축하며, 역사의 윤리적·도덕적 차원에 관한 교실 토론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민주적 시민 의식을 위한 기억과 역사교육에서의 다원적 관점 결의안 (2025)⁵⁷⁾

의회 토론 (2025년 1월 29일, 제5차 회의) (참조: 문서 16090, 문화, 과학, 교육 및 미디어 위원회 보고서, 보고자: 루즈 마르티네스 세이요). 의회에서 2025년 1월 29일 (제5차 회의)에 채택된 텍스트. 참고: 권고안 2290 (2025).

1.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1993년, 1997년, 2005년에 유럽평의회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 정상 회담에서 거듭 확인되었으며, 민주적 시민 의식과 안정성에 대한 그 중요성은 유럽 역사 교육 관측소의 모토인 “역사교육, 민주주의의 기반”에 잘 반영되어 있다. 잘 설계된 역사 교육은 과거를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현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사실, 기억, 해석, 관점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고, 왜곡과 선전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2. 역사적 서사가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점점 더 왜곡되는 시대에 - 특히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맥락에서 - 비판적이고 증거 기반의 역사교육이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 총회는 결의안 2558(2024) 과 권고안 2280(2024) “전쟁과 평화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지우기 반대”를 언급하며, 역사 정치화의 위험을 강조하고, 역사교육이 침략, 인권 침해, 영토 주장을 정당화하는 서사의 오용에 맞서 저항력을 키우는 데 역사교육의 힘을 강조한다.
3. 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주제를 포함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며 역사적 자료 분석을 통해 민주적 문화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 다원주의, 관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이끌어 역사적 장소와 기억의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경험은 이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총회는 역사교육이 인권 교육의 핵심 요소이며 젊은이들이 민주적 시민 의식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믿는다.
4. 그러나 과도한 교육과정, 전통적인 교육 방법, 그리고 많은 경우 중앙 집중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에서 질 높은 역사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역사 교사들은 다양한 관점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학생들과 함께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탐구할 시간이나 교육 및 재정적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많은 국가에서 초임 교사 교육평의회가 수립한 민주적 문화 역량 참조 프레임워크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 유럽평의회 교육 장관 상임 회의가 교육의 시민적 사명 재활성화

57) Resolution 2584 (2025) on Multiperspectivity in remembrance and history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를 위해 제공한 정치적 동력을 환영한다. 유럽평의회 교육 전략 2024-2030 “학습자 우선 - 오늘과 내일의 민주적 사회를 위한 교육”은 시민교육 분야의 유럽 공간을 구축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기존 유럽 평의회 도구와 수단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교육 시스템은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과정과 상호작용적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뿐 아니라, 유럽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주적 가치의 쇠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적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은 독립된 필수 주제로 제공되어야 하며, 역사교육 등 관련 과목에 포함되어 정규 교육의 모든 단계(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직업 교육과 비정규 교육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7. 이러한 모든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은 유럽 평의회의 “21세기 양질의 역사교육 - 원칙과 지침” 및 민주적 문화 역량 참조 프레임워크를 교육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이:

7.1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 7.1.1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 주제로 도입하고, 민주적 문화 역량을 역사교육 등 관련 과목에 모든 단계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한다;
- 7.1.2 역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교사들이 연대기적 및 지식 중심 교육과 병행하여 학습자 중심 및 역량 기반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 7.1.3 19세기 및 20세기 역사의 복잡성과 함의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여, 특히 민감한 역사와 기억과 관련하여 현재의 도전과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 7.1.4 역사 교육과정에 20세기 및 21세기 유럽을 황폐화시킨 다양한 형태의 전체주의 체제 및 기타 폭력적 이데올로기 운동을 포함하며, 이는 유럽인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여야 하며, 특히 왜곡된 역사 해석이 현재의 공격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중점을 두어야 한다;

7.2 방법론과 관련하여:

- 7.2.1 역사적 자료 평가와 정보에 기반한 판단 능력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촉진한다;
- 7.2.2 인권 기반의 역사적 사건 분석, 역사교육에서의 다원적 관점, 다양한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발전시킨다;
- 7.2.3 문화적 차이와 학습자 간의 다중 정체성을 인정하며, 소규모 그룹에서의 상호작용적 교육 방법과 협력적 학습을 장려한다;

7.3 교사 및 학습자를 위한 지원적이고 촉진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 7.3.1 교사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민주적 문화 역량을 포함하고, 교사들의 전문적 교류 및 발전 기회를 확대하며, 다양한 교육 자료와 지침(유럽 이사회 ‘21세기 양질의 역사 교육의’ 지침 원칙 포함)을 제공하고 이를 지역 언어로 번역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7.3.2 가상 학습 환경과 개방형 교육 자원에 대한 무료 접근을 보장한다;
- 7.3.3 협업 학습 프로젝트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전체주의 체제와 폭력적 이데올로기 운동의 생존자나 테러 단체의 피해자와 학생들 간의 연락을 촉진하거나, 민주적 문화 교육과 역사교육 분야에서 국가 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한다;
- 7.4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간의 융합 효과와 관련하여:
- 7.4.1 학교, 문화 기관 및 관련 이해관계자(예: 기념 장소, 박물관, 기록관, 시민사회, 예술가, 테러 단체 피해자 단체 등)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역사 수업 공동 개발을 지원한다. 이는 방문 및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과 재정적 자원, 교사들이 더 넓은 역사적 맥락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및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다;
- 7.4.2 박물관과 기념 장소에 자금 지원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한 학습 공간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며, 철저한 학술연구, 인권 기반 분석 및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문객에게 과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더 세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온 학교 차원의 접근법-민감하고 논쟁적 주제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 가이드(2023)⁵⁸⁾

교사는 학교의 일부이므로 교사가 느끼는 안전감은 학교에 대한 교사의 감정과 인식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학교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교사가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학교가 자신을 보호할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는 교실이 민감한 주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교사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분명히 저하시킨다. 교사들은 또한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학부모와의 긴장된 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전교적 접근법에 나열된 전략들은 종종 교사들의 책임 영역 밖이지만, 교사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조성하고/또는 지원하도록 장려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학교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세 가지 전략을 상세히 설명한다.

1. 학교 내 지원 체계 구축

협조적인 학교 문화와 협력을 만들라. 학부모 문제를 혼자 처리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소통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고립된 행위자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갈등 상황을 더 상세히 다루고 학교 내 교사 공동체의 정기 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해당 공동체에서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개입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논쟁적 주제를 가르칠 때 교사가 느끼는 지원 부족 (인터뷰 발췌)

“유고슬라비아 최근 분열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가르칠 때 불만을 제기하러 오는 학부모들과 대화하면, 공격적인 학부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를 찾아오는 학부모 중에는 그 전쟁에 참전했던 전직 군인들도 있는데, 때로는 이런 대화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다. 행정 당국은 말로는 지지하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다. 교사들은 학교, 교육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만 이런 어려운 주제를 더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다.”

-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구조적 보호 수단을 갖도록 보장하라. 또한 학부모와의

58) Mikhail Mogutov & Bjorn Wansink, *Dealing with parents when teaching sensitive and controversial issues*, Euroclio, 2023, pp.6-12.

갈등이 격화되고 공격적으로 전개될 경우를 대비한 교사 행동 지침을 마련하라. 이를 통해 교사들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부모와 자신 있게 소통하고 어려운 상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다. 교사들이 학교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 규정 및 안전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장려하라.

- 교사-학부모 간 소통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 내 중재 기회를 마련하고 제공하라. 교사나 학부모 모두 강한 감정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질적 참여는 긴장도를 낮추고 상황을 보다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가르치는 경험에 대해 교사들과 상담하라:
 - 교사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가르치는 데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나?
 - 어떤 우려 사항이 있나?
 -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2. 학부모 참여

학부모의 참여는 오해를 피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학교생활의 일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학교에 대해 간접적으로 대립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질적인 학부모 참여를 위해 고려할 몇 가지 단계를 제안한다.

-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라.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와의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를 신중히 검토하라. 무엇보다도 학부모가 학교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학부모와의 소통 및 접점에서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라. 이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뜻하게 받아주는’ 학부모는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교사 포함) 간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 참여를 증진하라. 예를 들어, 교사 및 학교 행정부가 학부모를 초청하여 역사 수업 커리큘럼을 포함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정기 정보 공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는 일부 사안은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다루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으므로,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일대일 면담이나 상담을 조직하여 역사 수업에 대한 그들의 의견, 우려 사항, 제안을 논의하라. 가능한 경우, 공유된 가치관과 목표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초대하라.
-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생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의하라. 실제 의사결정에 대한 학부모 참여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학부모 역할 부여 시 해당 지역의 전통과 관행을

고려하라. 동시에 학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입할 기회가 없는 영역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 과정에서의 학부모 권한은 항상 신중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교사는 해당 과목의 전문가로서 특정 주제 교육의 내용과 접근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학부모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학교의 가치관, 목표, 교육원칙 전달

학부모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원칙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역사교육 및 민감한 주제 가르침에 대한 학교의 관점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알리면 학부모의 반발을 예방할 수 있다.

- 학교가 준수하는 가치관과 교육원칙을 정의하고 학교 내외에 전달하라. 이러한 비전에 대한 공유된 이해는 교사가 학부모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들은 지지받는 느낌을 받고, 교육 실천에서 이러한 공동 합의된 가치관과 원칙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다.
- 교내외에 학교가 교직원/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우려 및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규칙과 합의를 전달하라. 이상적으로는 규칙을 제출하기 전에 학부모(예: 학부모 협의회)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 민감한 주제에 대한 교육에 관한 우려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가 주요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라.

추가 옵션 (이 조언들은 매우 상황에 따라 다름을 유의하라):

- 설명 가이드를 작성하라. 가이드에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다루는 목표와 이유(예시 1 참조)를 제시하며, 학교가 고품질의 역사 및 시민 교육(시민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설명할 수 있다.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는 접근 방식을 학부모에게 알리라. 이는 접근 방식의 기본 원칙(예시 2 참조)과 지침(예시 3 참조)을 요약한 성명서와 함께 가르치는 주요 논쟁적 사례를 포함할 수 있다.
- 자료 공유. 학기 중 뉴스레터와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수업 주제를 학부모에게 알리라. 교사들이 역사 수업 시 활용하는 자료, 자원, 링크를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여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홍보하라.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의 역사 수업 방식 및 논쟁적 주제 다루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예시 4 참조). 이러한 증언을

학교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여 회의적인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다.

예시 1. 학교에서 논쟁적 주제를 가르치는 근거

“학부모 여러분, 우리 학교의 역사교육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민감한 과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우려하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 논란을 가르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포용하는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래에 역사 속 논쟁적 주제를 가르치기로 한 주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논쟁적 주제의 교육은 학생들이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과 연대의 나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한 사건과 생각의 복잡한 연결망입니다. 논쟁적 주제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우리 사회와 주변 세계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둘째, 논쟁적 주제를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공감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과 관점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관점, 문화, 역사를 배우면서 학생들은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는 공감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타인에 대해 더 관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논쟁적인 역사적 주제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상충하는 해석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정보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평가하고 분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논쟁적 주제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와 사회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 사건들이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은 현재의 문제와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최대한의 세심함과 존중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의 목표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용적이고 존중받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추가 템플릿: 교장 및 학부모에게 알릴 시기

예시 2. 교수 원칙

학부모님께 교수 방식을 설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정된 원칙들입니다.

원칙 1. 본교는 과거에 대한 단일한 진리를 전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추구하며 확실한 사실과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에 최대한 근접하고자 합니

다. 역사 서사가 다층적이고 해석적이며, 이러한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의지를 고취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합니다.

원칙 2. 본교는 전통적인 '자부심과 고통의 거울'이라는 관점을 재고함으로써 역사적 신화와 고정관념을 해체합니다. 이 전통적 서사는 한편으로는 국가적 자부심을,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의 고통을 부각하는 데 기반을 둡니다. 이는 타자에게 가한 피해와 국가 서사에서 배제된 지역의 역사를 소홀히 합니다. 이를 맥락화함으로써 우리는 학생들 자신의 논리를 활용하고 문화적 관용구를 질문하도록 지원합니다.

원칙 3. 우리 학교에서는 개인의 사회적·세대적·성적 배경, 민족·언어·종교 공동체 소속, 그리고 사회 내 상이한 세계관에 따라 과거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을 인식시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건을 그들의 가치관과 시대적 맥락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수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원칙 4. 본교는 역사 속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책임감 있게 다루어, 과거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며 정치화된 시각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역사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며 적대적인 언어를 피하고 공정한 개념 사용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과거를 미화하는 문제적 역사 서사를 희석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를 반드시 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원칙들은 “양질의 역사, 유산 및 시민교육 선언문: 청소년 발달에 대한 역사의 독특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15가지 원칙”에서 차용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된 추가 원칙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uroclio.eu/manifesto/>

예시 3. 교수 지침

다음은 교사들이 논쟁적 주제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가르칠 것임을 학부모에게 보장하기 위한 교수 지침의 예시이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주제에 대한 최종 권위자가 되기보다 토론과 논쟁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사실적 증거로 학생들에게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제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Huddleston & Kerr (2017).

예시 4.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 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A) 학부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니깐요.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며, 문명화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B) 학생: “교과서나 편향된 기사만 읽는 것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며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아요. 진짜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이 가치관과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죠.”

(C) 학부모: “우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고 복잡하며 적대감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 존중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보호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가능성에 대해 무지해지고 타협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문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교육: 자료 안내서』

자기 성찰을 위한 질문들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측면을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성찰 질문들이다.

- 교사는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전함을 느끼는가?
- 교사가 학부모와의 긴장된 소통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 교사가 학부모와 소통할 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 학부모가 배려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학교의 가치관, 목표, 규칙을 학부모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 학교와 수업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학부모가 교육과정, 비전, 원칙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가능한 딜레마

교사가 학교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능한 딜레마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

해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학교 행정진과 동료들이 이에 관심이 없거나 우려하지 않아 종합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을까 두렵다.
- 학교 행정의 압박. 특히 학교 행정이 역사 수업에 다양한 관점과 서사를 포함하는 것을 현상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교사들이 비판적 시각과 다원적 관점 원칙에 따라 역사를 가르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때 발생한다.
- 교직원 간 내부 의견 불일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한 태도가 교직원 내에서 매우 다양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일 수 있어, 교사들이 그러한 주제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 학부모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은 초반부터 잠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에 학부모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 시간 부족과 과중한 업무 일정. 교사들은 이러한 접근법 실행을 우선시할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6. 안전한 학습 환경 만들기(서울 ○○고)

제45호 가정통신문 2024.4.8. (02-)

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4.2..개정)
2024학년도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알림(서울시교육청, 2024.4.1.)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2024.3.)

2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7조【교육 3주체의 책무 등】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③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교육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6. 흥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고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주세요

1 학교 출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2024년부터 리로스쿨을 이용한 결석계 및 체형 학습신청서를 사용합니다.
- 규정에 따라 기한에 맞춰 신청서 및 출결 증빙 자료를 학생과 보호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되지 않은 결석은 모두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미인정 결석'은 교과이수와 진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교원에게 연락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 교사에게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 문의, 상담, 협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간을 정하고 방문하세요.
- 학교 1층에서 방문자 인적사항을 작성, 안내에 따라 교사와 연락이 된 후 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 학교 전화번호(02-) 또는 교사별 학교 번호)로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업무시간(08시~16시) 외의 연락은 삼가주세요.
- 급한 일일 경우 간단히 문자를 남긴 후 교사의 답신을 기다려 주세요.

3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되고, 침해행위 발생시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35호〕)을 준수합니다.
- 법령상 침해 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일반인

<법령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교원지위법(시행 24.3.28)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23.3.23)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1. 다음 각 목 범죄 행위 가. 공무방해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 업무방해, 손괴 나. 성폭력 다. 불법정보 유통 라. 그 밖의 범죄 2. 교육활동 부당 간섭·제한 가.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 제기 나.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 지속 강요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1. 공무방해, 업무방해 2.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부당하게 간섭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원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서울시교육청북부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조치
(학생) ①학교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
(보호자) ①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② 특별교육, 심리치료

4 교육활동 방해시 학생 분리 규정(법령 및 생활규정 참조)

㉔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교 내 지정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 ·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	수업 참여, 필요시 과제 부여 가능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 선이 없는 경우	학교 내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 생생활지원부실 또는 교장실로 이동 ·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 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 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 소 시간(20분) 보장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 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 가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지정 장소 (60분 이내)	·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 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5 고등학교 민원 처리 절차

가. 교육활동 중심 민원

- 담임 및 업무 담당자의 상담과 안내

나. 교육활동 침해 민원

- (담임·업무담당자) '교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
- (담임·업무담당자) 교육활동 침해 민원의 경우 즉시 상담을 종료하고 교장실로 이관
- (학교장) 접수 민원 검토 및 대응팀 협의 → 민원인 통화, 면담 통해 안내·대응·종료

※ 교장실 이관 민원의 종류

- 반복적이고 불합리한 민원 ○ 조력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비교육적인 요구가 포함된 민원 ○ 법령과 원칙에 어긋나는 민원 등
-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교장실 이관 이후 민원은 교장과 교감이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며,
민원인과의 소통은 교장이 담당

7. 홀로코스트 교육 지침⁵⁹⁾

홀로코스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민감성과 주제 자체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 지침은 효과적인 교육에 적합한 접근 방식을 반영하며, 특히 홀로코스트 교육에 특히 관련이 있다.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를 정의하라.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적으로 정확하고 정확한 정의는 성공적인 수업이나 단원의 필수 요소이다. 단원 초반에 홀로코스트를 정의하는 것은 학생들이 역사와 그 지속적인 영향을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관련 인물과 지리적·시간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학생들이 “홀로코스트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할 때 탄탄한 기반을 제공한다.

홀로코스트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홀로코스트는 개인, 집단, 국가가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러한 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사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한다.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고 교과서나 영화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발생해야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을 피하라

홀로코스트의 역사는 인간 행동과 개인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 단순화를 경계하라. 대신 이 역사의 미묘한 측면을 전달하도록 하라. 학생들이 홀로코스트의 다양한 요인과 사건, 그리고 종종 결정 과정을 어렵고 불확실하게 만든 요인들을 고민하도록 허용하라.

언어의 정확성을 추구하라.

역사의 복잡성 때문에 일반화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유혹이 있다(예: “모든 강제 수용소는 학살 센터였다” 또는 “모든 독일인은 협력자였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시된 정보를 명확히 하도록 돕고, 예를 들어 편견과 차별, 무장 저항과 정신적 저항, 직접적 명령과 추정된 명령, 강제 수용소와 학살 센터, 죄책감과 책임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한다.

인간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는 종종 여러 의미를 가진다. 저항은 일반적으로 무장 반란의 물리적 행위를 의미한다. 홀로코스트 기간에는 파르티잔 활동; 메시지, 음식, 무기 밀반입; 파괴 행위; 실제 군사적 참여 등을 포함했다. 저항은 또한 규칙에 반해 종교적·문화적 전통을

59) <https://www.ushmm.org/hpto/eofy2025/index.html>

계속 실천하거나 게토와 강제 수용소에서 예술, 음악, 시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불복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극도의 잔혹함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저항의 행위였다.

편견에 기반한 묘사를 피하라. 나치에 의해 파괴의 대상으로 지목된 모든 유대인이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그룹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경험과 신념을 공유할 수 있지만,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용어(예: “때로는”, ‘보통은’, “많은 경우지만 모든 경우는 아님”) 없이 일반화하면 그룹의 행동을 고정 관념화하고 역사적 현실을 왜곡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라. 따라서 모든 독일인을 나치로 규정할 수 없으며, 어떤 민족도 단일하거나 일차원적인 묘사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홀로코스트 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라.

정보의 출처에 대해 신중하게 분별하라. 학생들에게 정보가 왜 작성되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대상 독자는 누구인지, 정보에 내재된 편향이 있는지,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누락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해당 정보가 다양한 사건을 해석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고려하도록 하라.

홀로코스트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가해자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반면, 생존자의 증언과 자료는 개인의 삶이 지닌 풍부함과 전체성을 통해 인간성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모든 자료의 출처와 저자를 신중하게 조사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라, 특히 인터넷에서 발견된 자료에 대해 더욱 주의하라.

고통의 비교를 피하라.

홀로코스트 연구는 나치 정권이 다양한 집단에 대해 시행한 정책의 차이를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해당 집단 간의 고통 수준을 비교하는 근거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나치에 의해 파괴된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의 공포가 다른 학살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보다 더 컸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되는 일반화를 피하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홀로코스트의 특정 측면과 다른 역사적 또는 현대적 사건 사이의 비교에 끌릴 수 있다. 역사적 사건, 정책, 인간 행동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신중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와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사실, 의견, 신념을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역사를 낭만화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도덕적 판단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묘사하라. 나치 탄압의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나선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강력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치 점령하에서 유대인을 구출한 비유대인은 극히 소수

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웅적 행동의 과도한 강조는 역사에 대한 부정확하고 편향된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 역사에서 드러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학생들에게 노출시킬 때, 학생들에게 회의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 사실의 정확성과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은 필수적이다.

역사를 맥락화하라.

홀로코스트의 사건, 특히 그 시기에 개인과 조직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역사적 맥락에 놓여야 한다. 홀로코스트는 유럽 역사 전체의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이 그에 기여했을 수 있는 선례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는 동시대적 맥락 속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특정 행동이나 사건을 촉진하거나 억제했을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항을 고려할 때, 행동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행동의 즉각적인 결과; 나치가 국가나 지역 인구에게 행사한 통제 수준; 특정 원주민 인구 집단이 역사적으로 피해 집단에 대해 가졌던 문화적 태도; 그리고 잠재적 은신처의 가용성과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이 홀로코스트 기간의 경험만으로 특정 집단을 분류하지 않도록 한다. 맥락화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피해자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2,000년 간의 유럽 유대인 생활의 문화적 기여와 성취를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들은 유대인을 피해자로만 보는 인식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역사에 가져온 트라우마적 파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통계를 사람으로 전환하라.

홀로코스트 연구에서 피해자의 엄청난 수는 이해를 어렵게 한다. 통계 뒤에 숨은 개인들—조부모, 부모, 자녀—을 보여주고, 더 큰 역사적 서사 속 개인 경험의 다양성을 강조하라. 개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묘사하고 단순히 피해자로만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인칭 증언과 회고록 문헌은 집단 경험에 개인의 목소리를 추가하고 학생들이 통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책임 있는 방법론적 선택을 하라.

홀로코스트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인간화되고 잔혹하게 살해된 역사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학습과 비판적 사고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실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픽 자료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학생들의 감정적 취약성을 악용하거나 피해자 자신에게 불경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각적 이미지가 그래픽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주제를 피하는 대신,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 해당 내

용을 다루어야 한다.

복잡한 인간 행동을 연구할 때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낮은 상황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시뮬레이션 연습에 의존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하더라도, 홀로코스트 경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 활동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그들은 종종 수업의 목적을 잊어버리며, 더 나쁘게는 홀로코스트를 겪거나 참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1차 자료에 의존하고 생존자 증언을 제공하며, 주제를 경시하는 시뮬레이션이나 게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나치 이미지를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 단어 섞기, 크로스워드 퍼즐, 물체 세기, 모델 제작, 그리고 기발한 연습문제는 비판적 분석을 장려하지 않고 대신 낮은 수준의 사고로 이어지며, 홀로코스트 교육과정의 경우 역사적 경시 현상을 초래한다. 특정 활동의 효과가 역사 학습의 목적과 상반된다면, 그 활동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위한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 지침⁶⁰⁾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 관하여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재단(HMDT)은 영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등록된 자선 단체로, 영국 내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HMD)을 홍보하고 지원합니다.

HMD는 매년 1월 27일, 나치 최대의 죽음의 수용소 단지인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해방 기념일에 열립니다. 이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학살된 6백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나치의 다른 집단 박해 아래 살해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캄보디아, 르완다, 보스니아,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최근의 제노사이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국제적인 날입니다. 이 날은 모두가 함께 모여 배우고, 기억하며, 성찰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증오, 차별, 인종주의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HMD는 매년 주제를 정합니다. 올해 주제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hmd.org.uk/theme를 방문하세요.

교육 자료

hmd.org.uk/schools

우리는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자들이 학생들과 함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자료에는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에 관한 역사적 정보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증오와 차별에 대해 배우고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의 현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자료는 제노사이드 교육의 중심에 생존자와 피해자를 두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통계 뒤에 숨겨진 실제 인물들에 대해 배우며, 가해자들이 비인간화하려 했던 이들의 정체성을 되찾아줍니다.

또한 제노사이드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을 젊은 세대가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제노사이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게 합니다.

본 교육 자료는 7세부터 1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SEND/ASN(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특수교육 요구와 장애/Additional Support Needs 추가 지원 필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료도 웹사이트(hmd.org.uk/SEND)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은 모두를 위한 날이므로, 학교의 추모 행사에 가

60) <https://hmd.org.uk/resource/guidelines-for-teachers-holocaust-and-genocide-education/>

능한 한 많은 학생들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의 지침

본 문서는 홀로코스트, 나치의 다른 집단 박해 그리고 캄보디아, 르완다, 보스니아,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최근의 제노사이드에 대해 가르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교사, 생존자,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1월 27일 전후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증오, 차별, 편견에 대해 배우고 성찰하며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은 교과 간 연계가 가능하며, 다양한 과목을 기반으로 할 수 있고 홀로코스트에 관한 역사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다양한 맥락에서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추가 지침 및 다양한 자료로 연결해 줍니다.

교육상의 어려움

많은 교사들이 홀로코스트, 나치의 다른 집단에 대한 박해, 그리고 최근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자신의 교과 지식 부족과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자료는 해당 주제 교육 경험 수준이 다양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상세한 수업 계획, 집회, 활동 및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흥미롭고 상호작용적인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정보 시트도 제공됩니다. 교육 및 청소년 담당 아웃리치 담당자가 질문에 답변하고 계획을 논의할 수 있으며, education@hmd.org.uk로 연락 가능합니다.

홀로코스트 교육 권고안은 다음 기관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제 홀로코스트 기억 동맹(The International Holocaust Remembrance Alliance)
- 야드 바셈-세계 홀로코스트 추모 센터(Yad Vashem-The World Holocaust Remembrance Center)
-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 홀로코스트 교육 트러스트(The Holocaust Educational Trust)

일반 지침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는 가르치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직원 회의를 열어 이 지침을 논의하고 이 어려운 주제를 가르치는 데 취할 접근 방식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자료 중 일부는 홀로코스트와 다른 제노사이드를 함께 탐구합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는 방식의 공통점을 식별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예방을 위한 경고 신호를 인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들을 나란히 살펴보도록 안내하되, 동등함을 비교하는 무익한 접근은 피하도록 주의합니다.

본 자료는 학습자료 및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제공합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므로,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고려해 주십시오:

- 본 주제가 해당 학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학급 내 차별 경험이 있거나, 소외된 배경 출신 혹은 난민이거나 그러한 경험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는 학생이 있나요? 있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계획된 추모 및 학습 활동에서 접하게 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요?
-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찰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학생들을 충격주기 위해 선정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정적 이미지는 일부 학생들에게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이미지를 보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을 차단하고 정보 흡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정적 이미지는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사용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학생들에게 피해자나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을 몰입 상황에 놓아 기차 선로를 따라 걷거나, 비좁은 기차 객차에 들어가거나, 숨을 공간에 몸을 구겨 넣는 상황을 상상하게 하는 활동은 홀로코스트를 가르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처했던 환경과 조건을 재현할 수 없으며, 학생들을 그런 환경에 놓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순간적인 장면만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이 제노사이드의 배경과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에 자신을 투영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순간에 피해자들이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고 성찰하도록 학생들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은 피하십시오.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가 인간 행동에 관한 어렵고 복잡한 질문들을 제기하며, 홀로코스트의 정의와 같은 사안조차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솔직히 밝히십시오. 그러나 홀로코스트 및 기타 제노사이드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미지 사용

저희 자료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미지가 포함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 모음도 제공합니다. 자체 자료를 제작하시는 경우, 사용할 이미지를 결정할 때 다음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사용 목적을 고려하십시오. 이미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고, 단순히 충격 효과를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시신이나 공개된 집단 무덤의 불필요하거나 반복적, 부적절한 이미지는 피하십시오.
-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의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나치를 미화하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나치 깃발, 군복, 경례 등 관련 이미지는 피하십시오. 모든 이미지는 나치 정책의 결과를 부각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 특히 홀로코스트 또는 제노사이드 생존자와 같은 연사가 있을 경우, 사용하려는 이미지에 대해 그들과 논의하십시오. 연사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피하도록 하십시오.
- 각 사진의 설명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 배경에 담긴 전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사진은 나치 당사자가 직접 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맥락을 공유하고 그들이 사진을 찍은 이유를 논의하십시오. 표적 집단이 촬영한 사진이나 나치 범죄를 기록하기 위해 비밀리에 찍은 사진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십시오.
- 제공된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자르지 마시고, 요청된 대로 저작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이미지가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활동에 적합한 지에 대한 추가 조언이 필요하시면 education@hmd.org.uk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언어 사용

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우려가 종종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용인되었던 일부 표현이 현재는 모욕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아래 조언은 일반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확신을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 표시된 각 집단학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사 정보 시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노사이드(Genocide):

1948년 12월 9일 비준된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법적 정의를 사용합니다. 이는 무엇이 제노사이드이며, 역사적 사건 중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홀로코스트:

-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를 나치와 그 협력자들이 유럽의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려 한 시도로 정의합니다.
- 일부 학생들은 독일인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독일 국민이 아니었음을 정확하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치와 그 협력자들, 다른 국가 출신 인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 폴란드에서는 최근 폴란드 강제 수용소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표현하면 폴란드 정부가 운영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수용소들은 나치 점령 하의 폴란드에서 나치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일부 현지 폴란드인과 다른 협력자 및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치의 다른 집단에 대한 박해

- 나치와 그 협력자들은 다른 여러 집단을 박해했습니다. 나치가 다른 집단들을 박해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마(Roma)와 신티(Sinti)는 현재 로마 학살이라 불리는 나치의 표적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집단들은 집시(Gypsies)로 불려왔습니다. 이 용어가 모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은 이 단어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로마와 신티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 나치가 박해한 또 다른 집단은 동성애자 남성들이었습니다.
- 오늘날 우리는 LGBTQI+ 공동체 내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지만, 나치 통치 당시에는 이러한 용어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와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나치와 협력자들은 동성애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캠페인을 벌였으며, 다른 LGBTQI+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은 나치의 T4 프로그램을 통해 살해되었으나, 학생들이 인식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집단이 박해받았을 수 있습니다. 1933년부터 간질과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유전적 질병을 이유로 강제 불임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르완다 투치족 제노사이드:

생존자 다수는 르완다 제노사이드라는 용어가 학살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되어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2014년 유엔은 르완다 정부의 제안으로 공식 명칭을 ‘1994년 르완다 투치족 제노사이드’로 채택했습니다. 투치족이 학살의 주요 표적이었으나, 후투 극단주의자들은 학살에 반대하는 후투족과 트와족도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르완다에서 투치족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1994년까지 이어진 반투치 폭력의 경로를 인정합니다.

보스니아의 제노사이드:

보스니아에서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스레브레니차에서 보스니아인 및 보스니아 무슬림을 대상으로 제노사이드가 자행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고슬라비아 해체를 초래한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에서는 강제 수용소 사용을 포함한 수많은 대규모 잔학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보스니아에는 보스니아인,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이라는 세 주요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 마지막 집단은 세르비아와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으며 보스니아 내 독립 세르비아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인접국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도 보스니아 전쟁에 개입했으며, 이들 국가 출신 사람들은 각각 세르비아인 및 크로아티아인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제를 논의할 때 세르비아 군대와 보스니아 세르비아 군대를 구분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학교의 시간과 자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대본과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제공된 그대로 진행하거나 학생들의 자체 작업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튜터 타임 활동은 20분 세션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각 활동은 독립적인 세션으로 진행하거나 시리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 계획은 일반적으로 한 수업 시간 내에 진행되지만, 일부는 두 시간 수업이나 장기 수업 계획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창의 활동 자료는 다양한 시간대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급한 자료에 익숙해지고,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어떻게 기념할지 결정하며, 학교 관리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과목, 학급 또는 학년의 교사들과 회의를 열어 일련의 학습 활동 진행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다루기

본 자료는 각 제노사이드에 대한 배경 정보지를 포함해 학교에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지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지만,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를 학생들과 탐구하다 보면 흥미롭고 놀라운 토론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에 대한 부정 및 왜곡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특히 온라인에서 이러한 견해에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부정은 반유대주의(유대인 혐오)의 한 형태입니다. 수업 시간 일부를 허위 정보 해체에 할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과 신뢰할 수 없는 정보원에 대해 논의하면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내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노사이드가 하나의 과정이며 부정은 항상 그 마지막 단계임을 강조하는 제노사이드의 10단계 포스터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⁶¹⁾ 교실에서 부정과 왜곡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자료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차별에 관한 수업 계획서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분쟁과 현대적 이슈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복잡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수업 시간 전체를 차지해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 초점을 당면 주제로 되돌리고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다른 질문들을 탐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경우, ‘솔루션스 노트

61) 10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분류-사람들 간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이루어지며, 이는 고정관념을 이용하거나 다르게 인식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다.
2. 상징화-증오의 시각적 표현이다. 나치 유럽의 유대인들은 ‘다름’을 표시하기 위해 노란 별을 착용하도록 강요받았다.
3. 차별-지배 집단이 특정 집단의 시민권 또는 시민 자격 자체를 부정한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은 유대인들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들이 많은 직업을 갖거나 독일인 비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4. 비인간화-‘다르다’고 인식된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인권이나 개인적 존엄성도 부여받지 못한 채 대우받는다. 르완다에서 투치족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 당시 투치족은 ‘바퀴벌레’로 불렸으며, 나치는 유대인을 ‘해충’이라 칭했다.
5. 조직화-제노사이드는 항상 계획된다. 증오 정권은 종종 특정 민족을 파괴할 실행자들을 훈련시킨다.
6. 양극화-증오 집단이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나치는 신문 <슈투르머>를 통해 유대인에 대한 증오 메시지를 확산하고 선동했다.
7. 준비-가해자들은 학살을 계획한다. 그들은 종종 나치의 ‘최종 해결책’과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를 감춘다. 그들은 피해 집단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고 군대와 무기를 구축한다.
8. 박해-피해자들은 민족이나 종교를 이유로 식별되고, 살해 명단이 작성된다. 사람들은 때로 게토로 격리되거나 추방되거나 굶주림에 내몰리며, 재산은 종종 몰수된다. 제노사이드가 시작된다.
9. 절멸-증오 집단은 식별된 피해자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폭력 캠페인으로 살해한다. 제노사이드를 통해 수백만 명의 생명이 파괴되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었다.
10. 부정(denial)-가해자나 후대 세대가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사이즈(Solutions Not Sides)' 자선단체가 중동 분쟁에 관한 수업 진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관련성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은 제노사이드로 정의되는 상황들을 추모하고 배우는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 차별, 증오, 분열, 부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의 논의는 전 세계의 다른 분쟁이나 학생들이 뉴스에서 접한 정체성 때문에 박해받는 집단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노사이드의 10단계를 탐구하는 것은 다른 잔혹 행위를 논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이 제노사이드 위협에 처해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나 국회의원에게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학습을 출발점으로 삼고, 현대적 문제를 관련시키거나 별개의 주제로 논의하여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주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학습 세션을 명확히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나치 독일과 연관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차별이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문제(전 세계 분쟁 포함)와 난민 관련 문제에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투기나 칼을 사용한 범죄 같은 문제는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많은 현대적 문제가 매우 정치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논의 중인 국가 출신 가족을 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제공하고, 편견을 성찰하도록 유도하여 토론의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십시오.

홀로코스트와 최근의 제노사이드를 논의하고 현대적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도전적이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과거에 대해 배운 내용의 관련성을 깨닫고 그 결과로 행동을 취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생애 이야기 활용

홀로코스트와 최근의 제노사이드에 대해 가르치는 데 있어, 홀로코스트와 제노사이드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경험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교육 자료에는 생존자, 살해된 희생자, 방관자, 구조자, 저항자, 목격자, 가해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록된 생애 이야기나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듣는 것은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피해자들과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md.org.uk/lifestories에서 생애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학생들이 생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맥락적 지식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배경 지식은 학생들이 증언을 이해하고 들은 내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접하는 개인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장려하는 한편, 홀로코스트나 제노사이드에 대한 학습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언에 대해 슬픔, 분노, 감동을 느끼는 것은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는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인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이어질 동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극단적 행동의) 방아쇠가 되거나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도록, 또는 개인의 고통을 자신에게 투영할 정도로 과도하게 공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보다는 개인이 겪은 경험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두려움과 혼란을 느꼈을 것 같아요'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생존자 증언은 다양한 형태로 공유됩니다. 학생들은 직접 방문하여 생존자의 구두 증언을 듣거나, 서면 텍스트를 읽거나, 영상이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출판된 텍스트와 영화는 종종 자체 의제를 가진 제3자에 의해 편집되며, 이는 경험의 어떤 부분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자 증언은 또한 기억에 의존하는데, 이는 트라우마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과 생존자의 기억 사이에는 차이점이나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인칭 자료의 특성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기 바랍니다.

개인의 증언은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에 대한 기억만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기억에는 더 넓은 맥락이나 가해자의 이념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제노사이드 내에서도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므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방식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 한 사람 이상의 증언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생애 기록 및 자료는 생존자, 희생자, 구조자, 저항자, 학대 목격자들의 증언에 중점을 둡니다. 가해자 증언은 별도로 제공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고려할 때 제노사이드 교육에 유용한 보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탐구하기로 선택하셨다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 증언의 배경과 동기를 논의하십시오. 법정 재판의 일부였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 가해자의 관점을 맥락화하세요. 그들의 증언에는 인종차별적, 폭력적 또는 차별적 견해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존자 강연을 직접 주관하지 않지만 웹사이트에서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생존자 강연을 원하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hmd.org.uk/speakers.

소설 활용

일부 교사들은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에 소설 기반 영화나 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교과 통합적 접근을 설계하고 역사, 영어, 지리, 개인·사회·건강·경제(PSHE) 교육 등 다양한 과목 학습을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에 허구를 활용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역사적 사건을 가르치는 데 허구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을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장점:

학생들은 등장인물과의 상상적 연결을 통해 제노사이드의 일부 측면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접함으로써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 속 개인의 경험에 대해 잠시 멈춰 성찰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일부 허구적 서사는 철저한 연구를 거쳐 역사적으로 상당히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에 맥락이 덜 엄밀하게 설정된 허구를 사용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역사적 사건은 이야기 전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 관점에서 일부 사건이나 사건의 구성 요소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상된 시나리오나 다른 내용의 일부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소설에서 무엇을 배우도록 요구할지 신중해야 합니다.

홀로코스트나 최근의 제노사이드를 가르칠 때 소설을 활용하기로 선택한다면, 다음을 권장합니다:

- 학생들이 사전에 관련 역사적 배경을 학습하여 이야기와 그 안에 담긴 역사와 허구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 학습 프로그램에 허구화에 대한 토론을 포함시킵니다. 작가는 무엇을 창작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허구화의 영향은 무엇인가?
추천 도서 목록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의적 교과

미술, 연극, 음악, 무용 교사들은 학생들이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창의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학생들이 역사적 정보와 증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이야기의 감정적 영향을 처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예술적 결과물은

전시회나 행사를 통해 부모, 다른 학생들, 더 넓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배운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은 생성적 학습을 지원하고 홀로코스트 및 최근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학습 여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유익하며 성찰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반응에는 역사적 지식에 대한 신중한 이해, 체계적인 과정 및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반응하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에 수업과 연구에 참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탐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한 개인의 증언이나 특정 사건 또는 제노사이드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보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피해야 합니다:

- 지나친 단순화
- 고정관념 사용
- 트라우마적 장면 묘사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학생들이 창작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학생들의 해석이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가?
- 생존자가 이 작품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홀로코스트 및 최근 제노사이드 교육의 창작 과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 특별한/일반 초상화
- 연극 수업
- 시 창작 수업
- 르완다 춤 튜토리얼
- 추모의 불꽃 활동
- 포용적인 공예 활동
- 노래 악보

학생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더 넓은 공동체와 공유하고자 한다면, 다른 교직원들과 다음 사항을 논의하십시오:

- 관객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 관객이 작품을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해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초등학생 대상 특별 참고사항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은 모두를 위한 날이지만, 어린 학생들은 어려운 주제에 대한 수용 준비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방법을 계획할 때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7~11세 학생을 위한 초등학생용 자료를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관련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는 모임, 수업 계획 및 활동이 포함됩니다. 해당 자료에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애 이야기의 쉬운 읽기 버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는 어린 학생들과 함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 ‘기억과 추모’ 초등 수업은 우리가 무엇을, 왜 기억하는지 탐구하며 종합 토론 시간에만 홀로코스트를 언급합니다. 이 수업은 어린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준비도에 따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초등 킨더트란스포트(Kindertransport)⁶² 수업 계획은 레니 이노우(Renie Inow)의 킨더트란스포트 경험을 통해 구출 이야기와 영국 도착 과정을 배웁니다.
- 초등 자료는 홀로코스트를 상세히 다루지 않고 간결하게 소개하며, 어린이들의 경험과 청소년이 쓴 시를 포함합니다.
- 창의적 활동 아이디어와 쉬운 읽기용 생애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제공합니다.

SEND/ASN 관련 참고사항

우리는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교육을 접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및 제노사이드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에는 주요 활동에 대한 차별화된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교사가 학생들의 강점에 맞춰 수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된 활동은 SEND/ASN 전용 환경이나 일반 교육 환경에서 SEND/ASN 학생이 일부 포함된 학급의 특정 그룹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적 경험과 포용적 예술 활동을 통해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도록 심층적 요구 사항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료도 제공합니다: hmd.org.uk/SEND.

62)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인 1938년 11월부터 1939년 9월까지 1만 명에 가까운 주로 유대인이었던 난민 아동들을 나치 점령 지역에서 영국으로 구출한 인도주의적 구출 프로그램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들처럼 타인의 필요와 관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혜택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삶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글쓰기 활동을 통해 반응하는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하기 전에 홀로코스트와 최근의 제노사이드를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거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면, 교육 및 청소년 담당 아웃리치 담당관(education@hmd.org.uk)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귀교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 활동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소셜 미디어 태그, 또는 저희 웹사이트(hmd.org.uk/letusknow)를 통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9. 인권 및 국제 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상황에서의 기억화 과정: 이행기 정의의 다섯 번째 기둥(2020)⁶³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장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보고서

요약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장 증진 특별 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Fabían Salvioli)는 중대한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 상황에서의 기념화 과정(memorialization processes)을 이행기 정의의 다섯 번째 기둥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본 보고서는 기억 과정(memory processes) 채택 및 후퇴 방지 의무에 관한 규제 체계를 다루고, 분쟁 및 이행기 상황에서의 이러한 과정에 수반되는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며, 소셜 네트워크상 기억의 무기화 문제를 다룬다. 보고서는 과거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이며 다차원적인 기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고서는 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UN에도 제시하는 권고사항으로 마무리된다.

서론

1. 본 보고서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장의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가 인권이사회 결의 36/7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수행한 주요 활동을 열거하고, 이행기 정의의 다섯 번째 기둥으로서 심각한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 상황에서의 기념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2. 2019년 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국가,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비정부기구(NGO)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협의를 조직했다. 귀중한 기여에 특별보고관은 감사드린다.

(중략)

II. 일반적 고려 사항

15. 중대한 인권 및 인도법 위반 맥락에서의 기억 과정에 관한 본 보고서는 특별보고관 및 문화적 권리 분야 특별보고관이 이미 시작한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다. 해당 작업은 역사 서술 및 교육, 분열된 사회에서의 기억 과정, 중대한 인권 침해 예방, 그리고 기록 보관소 분야

63) A/HRC/45/45: Memorialization processes in the context of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fifth pillar of transitional justice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2020.07.09.)

를 다루었다. 본 보고서는 현대 국제법의 규칙과 기준이 완전히 인정하는 이행기 정의의 맥락에서 기념화 과정이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과거 침해에 대한 작업은 종종 유해한 정치 문화와 연관된 배제, 차별, 주변화 및 권력 남용과 관련된 현대적 문제들을 식별하고 현재를 성찰하는 기반이 된다. 기억 영역에서의 긍정적 작업은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문화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16. 본 보고서는 기억 작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기억 작업이 역사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적 영향과 논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기억 과정은 인권 및/또는 인도법 위반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충분히 중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재희생자화(re-victimization)시켜서는 안 된다.

17. 본 보고서는 추모 과정의 모범 사례를 설명하며, 특히 세 가지 도전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분쟁 시기의 기억, 분쟁 후 상황에서의 기억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의 정치화와 연계된 기억의 무기화.

18. 다자주의와 인권 체제가 의문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포퓰리즘과 외국인 혐오 이데올로기가 고조되고 있는 세상에서 이 세 가지 도전 과제는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반무슬림 혐오, 기독교인 박해의 급증과 국가 간 관계의 갈등 지점 증가로 반영되고 있다.

19. 본 보고서는 세계가 겪고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강조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견해를 반영한다:

어느 한 국가나 조직도 오늘날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필요한 해결책을 단독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다자주의는 공격받고 있다. 세계는 지구 온난화의 위협뿐만 아니라 고조되는 글로벌 정치적 긴장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 부족이 심화되고, 악마화하고 분열시키는 민족주의적·포퓰리즘적 목소리의 호소력이 커지고 있다. 집단적 행동이 필수적인 시기에 이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III. 기념화 과정의 목적과 규정 체계

A. 목적

20. 이행기 정의의 근본 전제는 민주적이고 다원적이며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력 분쟁 기간 중 또는 억압적 정권에 의해 자행된 과거 범죄들이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범죄와 대규모 인권 침해의 인정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가 신뢰를 되찾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 기소 및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급

을 적절히 보완하는 화해 과정(수직적 화해: 시민과 국가 권력 간, 수평적 화해: 집단 간 갈등 사례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이다. 발생한 범죄와 침해를 인정하고 처벌하지 못하면 부정주의(denialism)로 이어져 폭력을 영속화하고 정당화한다.

21.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이행기 정의의 기둥에 기반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 없이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보장의 권리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심각한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과 관련된 기억 과정은 이행기 정의의 다섯 번째 기둥을 구성한다. 이는 독립적이면서도 횡단적인 기둥으로, 다른 네 기둥의 실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혐오와 갈등의 순환에서 벗어나 평화 문화 구축을 향한 확실한 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22. 과거 위반 행위를 다루는 이행기 정의 과정은 서로 다른 시간대와 연관된 여러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a)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기(사실 규명 및 가해자 형사 처벌을 통해);
- (b) 현재의 과제 해결(피해자 기억의 인정·추모·기념, 배상 제공, 증언 허용, 공개 사과, 부정주의 퇴치, 국가 및 공동체 간 신뢰 회복 및 안정 도모); 그리고
- (c) 미래 대비(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향후 폭력 예방, 평화 문화 구축). 기억 과정은 민주 사회에 대한 헌신을 촉진하고, 과거의 재현에 관한 논의를 장려하며, 현재의 문제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23. 2001년 더반에서 채택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대항하는 세계회의의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기억의 역할은 불의를 퇴치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도구로 이해된다:

과거의 범죄와 잘못을 기억하고, 인종주의적 비극을 단호히 규탄하며,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제적 화해와 정의, 평등,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24. 기념화(memorialization)는 노예무역과 같이 오래전 발생한 사건들부터 최근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 중 자행된 인권 침해까지를 다룬다.

B. 유엔 규제 체계 및 기준

25. 국가들은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침해 이후 공존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억이 수행하는 근본적 역할을 인정하는 다양한 수단을 채택해 왔다.

26. 먼저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집단 학살과 같은 중대한 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일반적 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은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모든 사람에 대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27. 면책에 맞서기 위한 행동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정된 원칙들은 그러한 인권 침해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진실에 대한 권리라고도 함)를 모든 피해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권리이자, “완전하고 효과적인 행사...가 침해의 재발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집단적 권리로 정립한다. 동일한 문서는 국가의 기억 보존 의무와 역사 전승 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집단 기억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수정주의자(revisionist)·부정주의자(negationist)의 주장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28. 권위주의 정권 아래 고통받거나 내전을 겪은 많은 사회에서 이 같은 국가의 근본적 의무는 너무나 자주 사문화되어 있다: 과거 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현재의 폭력은 여러 세대가 과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성장해온 사실과 관련이 있다.

29. 루이 주아네(Louis Joinet)와 그의 후임자인 다이앤 오렌틀리처(Diane Orentlicher)가 제정한, 면책에 맞서는 행동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정 원칙들은, 테오 반 보벤(Theo van Boven) 특별보고관이 제정한 원칙을 보완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의 기초가 되어 유엔 총회 결의 60/147호로 채택되었다.

30. 2005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결의에서 총회는 기억 과정 역시 배상 권리의 일부임을 상기시켰다. 결의는 만족(satisfaction)이 다음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사실 확인 및 진실의 완전하고 공개적인 공개; 피해자 및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의 존엄성, 명예 및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사실 인정 및 책임 수용을 포함한 공개 사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 및 경의 표명;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 교육 과정과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인권 침해에 관한 정확한 정보 포함.

31. 심각한 인권 침해나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겪은 사회에서는, 기억 과정과 관련된 인권 보호의 일반적 의무가 독특하고 특별한 차원을 띠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억 과정을 수행할 의무는 국제 인권법의 1차적(조약 및 협약) 및 2차적(원칙 및 지침) 근거에서 비롯된다. 또한 기억 과정은 완전한 배상의 모든 측면, 특히 만족과 재발 방지 보장 차원을 가로지르며, 저질러진 위반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무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IV. 기억이라는 전장

32. 추모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타자성에 대한 인식 증진, 모든 개인을 권리 보유자로 간주하는 태도 함양, 평화·정의·사회적 공존 축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다른 비전, 가치, 서사가 교차하는 광범위한 문화적 틀의 일부이기도 하다. 문화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이 우리를 인식하는 프리즘이다. 특정 음악을 찬양하고, 실제적이든 신화적이든 허구적이든 특정 사건이나 영웅을 미화하며, 다른 사건들을 부정하는 행위는 인식을 형성하고 관계 정립에 기여한다.

33. 반대로 배제, 부정적 고정관념, 비인간화, 부정주의의 논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역효과를 내도록 악용한다.

34. 이행기 정의의 법적·규제적 틀은 그 기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현재의 관점은 이행기 정의 과정이 국가의 인권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5. 국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이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기념화에 관한 포괄적 공공정책 채택을 권고하는 미주인권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견해에 동의한다.

36. 이행기 정의의 일환으로서 기억은 인권 접근법을 취하고 이에 부합해야 한다. 기억의 적절한 활용 목적은 “대화적 진실”을 확립하는 데 있다. 즉, 과거 범죄와 폭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직접적·간접적 책임 귀속 문제에 대한 사회 내 논의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완전히 분리되고 화해되지 않은 사건 설명들”을 넘어설 수 있으며, 따라서 “허용 가능한 거짓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37. 목표는 피해 집단이 잔혹한 과거를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가 과거 분열의 유산과 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험한 상대주의에 빠지거나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정립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폭력에 대한 다양한 서사와 해석은 민주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재건의 역동성에 기여한다.

38. 앞선 두 단락에서 언급한 과정은 결코 저질러진 인권 침해 행위를 부정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최소한의 침해 기록을 제공하는 진실위원회 및/또는 법적 절차의 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켜서도 안 된다. 실제 침해 건수는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기억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들이 강요하려 할 수 있는 왜곡을 피할 수 있다.

39. 부족 또는 민족 집단을 포함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특정 사례에서 기억 과정은 피해자들 간의 경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집단이 당국의 지지를 받는 반면 다른 집단은 의도적으로 또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공론장에 내세울 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부족하여 소외될 때 발생한다.

40. 무력 분쟁과 관련된 기억 과정은 역사 조작과 순교자 숭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게 하고 혐오를 심화시키며 새로운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한 2010년 매핑 작업 보고서는 복수적 기념화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마찬가지로,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방문 보고서에서 해당국 각지의 소수 집단이 추모 시설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국가 내 많은 논란과 불만을 야기했다고 결론지었다.

41. 기억 작업은 또한 전달되는 메시지가 과거 폭력을 명분으로 사람들을 피해자 상태에 갇히게 하여 새로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선동하려는 목적을 가질 때, 남용이나 심지어 소위 “기억의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등 상태에 있는 사회에서는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들이 종종 수세기 전에 당한 패배를 소재로 서사를 구성하여 동포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러한 굴욕의 기억을 바탕으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과거 사건을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며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과거의 조작과 폭력의 미화를 막는 최선의 해독제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면책이 없는 진정한 지속적 평화의 기반이 된다.

V. 분쟁 시기의 기념화

A. 시간성

42. 지난 30년간 수십 개의 진실위원회와 인권 및 국제 인도법 대규모 위반 사실 조사·확립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 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수많은 형사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 막대한 규모로 인해 인류가 “처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범죄들에 대해 비록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은 교육적 중요성과 모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 이들 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43. 기억의 문제는 이러한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억이라는 차원은 중장기적 과정의 일부를 형성하는데, 대규모 폭력 사태 이후 민주적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작업은 수십 년 또는 세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B. 이행기 정의의 한계

44. 앞서 언급한 바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범죄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배척해야 할 사례로 규명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진실위원회와 특별형사법원이 갈등이 진행 중인 시기에 설립되기도 하며, 국제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교전 집단들이 전쟁 선동적 선전을 계속 유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기억 작업이 극히 어렵다.

45. 최근 몇 년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시리아아랍공화국 등지에서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형사적·비형사적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이 수립되었다.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국가들은 자국 영토 전역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및/또는 국제 인도법 위반 행위의 가해자로서 스스로 책임이 있다.

46. 분쟁 중 진행된 조사와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와 증언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이후에 매우 가치 있다. 특히 위성 등 신기술은 특정 사건을 밝혀내어 스레브레니차(Srebrenica) 학살 이후 집단 매장지를 확인하고, 최근에는 미얀마, 시리아아랍공화국, 수단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47. 그러나 이러한 기록 과정은 복잡하고 위협하다. 세계 각지에서 인권 옹호자, 언론인 및 기타 위반 행위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공격당하고 살해되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향후 범죄 기록을 막으려는 가해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해를 자행하기도 했다.

48. 교육으로 예방과 재발 방지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분쟁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더 어렵지만, 무기를 내려놓은 후에는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C. 피해자 기대 관리

49. 국제 인도법 및 인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사례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명·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필수 작업은 국제사회가 그러한 위반 행위를 종식시키는 데 무력함을 부각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방치감과 무력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분쟁 중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은 피해자 대응에 있어 확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50. 분쟁 시기에는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이 자신들이 설립된 목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가 품은 충족되지 못한 기대를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최대한 잘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혁신적 사례로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서 자행된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자 수사 및 기소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공정·독립적 메커니즘(IIM)이 있다. 이 기구는 피해자의 요구에 여러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범죄 가해자를 기소하는 국가 사법기관과 협력하고, 피해자 대표에게 수사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대 사항과 이를 충족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증언하는 피해자가 사전 동의와 합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VI. 이행기 상황에서의 기억 작업

A. 주인의식(소유권)의 과제

51. 평화 및/또는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때, 기념화라는 교육적 목표가 항상 이행 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 기소 행위 자체가 기억 과정에 막대한 가치를 지니지만, 국제형사재판소나 혼합형 사재판소가 내린 판결문 자체만으로는 사회 내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불충분하다. 판결문은 종종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로 작성된다. 이러한 판결을 국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했다.

52. 예를 들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25년(1993~2017년) 동안 국가 원수, 장관, 장군 및 여러 정당의 저명한 정치 및 군사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인물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이 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 판소의 판례는 성폭력 및 기타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5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범죄재판소 및 기타 국가 법원의 처벌 조치로 보완된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부인할 수 없는 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에 구축된 선전 기계가 정립한 서사를 바꾸거나 부정주의와 혐오 발언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재생산되고 있다.

54. 재판소 운영에서 얻은 주요 교훈 중 하나는 “이행기 정의 기구의 권한, 절차 및 활동에 관한 기술적 정보로 대중을 단순히 포화시키는 것만으로도 … 대중적 지지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전한 환상”이었다. 재판소 설립 6년 후에야 대외협력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이 사무소가 구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지 상주 사무소를 마련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곳의 유독한 정치 문화는 여전히 변화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진실위원회와 법원은 사회와 의미 있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기구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5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민주화 과정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미래를 제시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 있었으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 범죄를 다루는 행위를 남아프리카 사회 내 인종 관계 변혁에 필수적인 단계로 만들었다. 위원회의 접근 방식은 기술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었으며, 이는 피해자 단체, 언론, 정치인, 학자, 노동조합원 등 다양한 지지층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게 하여 이 긍정적인 역동성이 모든 이의 관심을 끌고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연계된 구조적 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그 작업은 잔혹 범죄 가해자들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동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

56. 정의만으로는, 정의 부재와 마찬가지로, 기억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두 사례는 민주주의와 평화 문화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 참여자들이 모든 구성 요소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포괄적인 이행기 정의 과정의 일부로 기념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행기 정의 과정을 주도하는 이들은 폭력, 대립, 배제를 조장하는 유해한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기억 작업의 주체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이행기 정의 과정은 순수한 기술 관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의 유대를 구축해야 한다.

57.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일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1960년대 이후 독일 법원에서 추가로 진행된 재판과 이후 출판된 수천 권의 서적, 강제 수용소를 방문한 수천 명의 학생들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제작된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와 텔레비전 드라마 시리즈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치 범죄를 인정하고 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혁하는 과제에 필수적이었다.

B. 모범 사례

58. 기념화는 다른 이행기 정의 도구들이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정이다. 그 성공은 공적 부분을 담당하는 당국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시민 사회와의 효과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억 정책을 채택·이행하는지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다. 시민 사회의 활동은 집단적 참여를 이끌고, 다양한 계획과 논의를 시작하며, 대중의 주인의식을 촉진한다.

59. 기념화에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은 대규모 폭력에 항상 선행하는 억압과 비인간화 메커니즘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폭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다른 미래를 구축할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이다. 사회는 인권 및/또는 국제 인도법의 대규모 침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맥락을 명확히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60. 아래 제시된 사례들은 포괄적이지 않다. 문학, 예술, 학계, 박물관 및 기타 포럼을 포함하며 물리적 또는 온라인 확산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념화 분야의 모든 긍정적 경험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실위원회의 촉매적 역할, 실종자 추모의 날 제정, 학교 교과서 등도 다른 사례들이다.

61.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인디언 기숙학교 유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한 후, 사회 내 과거에 대한 성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하나는 배상 형태를 검토하고 신전통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기억의 풍경(memoryscape)'을 출범시키는 것이었다. 시에라리온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다학제적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을 촉발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진실위원회(강제실종국가위원회)의 활동과 형사 기소가 군사 독재정권 하의 국가 테러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62.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의 역사와 실종 또는 사망 경위를 묘사한 작품들은 정치적 폭

력으로 희생된 생명들을 대중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북아일랜드 사망자 명부(*The Northern Ireland Book of the Dead*)』와 같은 서적은 아일랜드의 가톨릭 및 개신교 교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두 사회가 고통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63. 집단적 역사 서술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도 대응하므로, 역사책은 새로운 세대에게 중요하다. 국가 간 갈등을 다룰 때, 대립하는 국가의 역사가들은 경우에 따라 단일 서사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 독자는 다양한 정보 출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후 사실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발전시켜야 한다. 2006/07 학년도 초, 양국 저자들이 집필한 프랑스-독일 역사 교과서가 *Histoire/Geschichte*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또 다른 참고서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동 작업인 『상대의 역사』(*Histoire de l'autre*)가 있는데, 중동평화연구소에서 제작한 이 책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팔레스타인 관점을 한편에, 이스라엘 관점을 다른 한편에 나란히 배치했으며 중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서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마련했다. 세 번째 사례는 1990년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전쟁을 지역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논쟁적 역사 사건에 관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교과서이다.

64. 시민사회는 공공 기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 레바논에서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국가를 분열시킨 분쟁과 관련하여 공공 영역에서 대화, 토론 및 기억의 재정립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그린 라인(*green line*) 경로를 따라 걷는 투어, 내전 사진 전시회, 영화 상영 및 수많은 토론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전통적인 공동체 분열을 초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65. 모든 형태의 문화는 억압, 대립 및 폭력의 메커니즘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목표는 폭력과 차별의 유산이 수십 년간 지속되는 해롭고 부정적인 정치 문화를 대체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시민사회와 당국이 예술, 미디어, 공공 공간에서 수많은 활동을 수행하여 후속 세대가 폭력적인 과거에 대한 비판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여했다.

66. 이러한 모든 과정은 상기 16항에서 설명된 기억 실천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C. 진상 규명 기구의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책임 소재

67. 진실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 국가에 의해 이행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 이는 사회가 효과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방해하며, 피해자의 고통과 평화로운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 행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과거 서사의 여지를 남긴다.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은 순전히 형식적인 이유나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의무 이행과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이라는 개혁을 회피하는 방패막이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68. 엘살바도르 방문 당시 특별보고관은 30년 이상 지속된 면책 정책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진실위원회는 무력 분쟁 기간 중 저질러진 가장 심각한 범죄의 가해자들을 기소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높였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러한 면책 메커니즘은 과거의 위반 행위를 부정하고 잊어버리도록 하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한 체계와 동반되었으며, 이는 엘살바도르 국민의 사회적 구조와 집단적 서사에 깊은 균열을 내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끔찍한 범죄 피해자들은 잊혀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

69.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D. 기록물 접근 권리

70. 기억 보존은 기록물 접근 가능성과 연결된다. 가장 명백한 위험은 일부 전쟁 당사자 집단이 인권 및 국제 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불리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은폐 욕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1세기 이상 전,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국왕은 콩고 자유국에서 자신의 통치 하에 자행된 끔찍한 폭력을 기록한 기록물의 파괴를 명령했다. 그 이후로 많은 정부들이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말소하려 시도해왔다. 특별보고관은 기록물 보호가 사회가 진실을 배우고 자신의 역사를 되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71. 기록물 보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안보 체제와 연계된 국가 기관들이 이행기 정의 기구와의 온전한 협력을 거부하거나 기록물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너무도 흔하다. 모로코의 경우 공정과 화해 위원회가 안보 기관 소유의 특정 기록물에 접근하는 것이 거부된 바 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범죄 발생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해당 기록물을 보유한 당국의 비협조로 군사 기록물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슈타지(구 동독 국가보안부) 기록물을 공개한 독일 당국의 모범적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

72. 신기술의 발전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했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 메커니즘만 해도 전쟁법 위반과 관련된 영상 및 증언을 포함해 2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수집했으며, 이는 41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정보량이다. 이처럼 방대한 정보량을 관리하려면 충분한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대량의 기록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 유엔의 역할

73. 유엔은 기억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설립 이래 유엔 기관 및 기구들은 활동한 국가들에서 방대하고 가치 있는 기록물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문서들은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하고 각국의 역사 기록에 기여할 수 있다.

74. 유엔 기관 내부에서도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임무 담당자를 포함한 다른 행위자들이 항상 이러한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론상 극비로 분류된 문서를 제외한 모든 기록물은 20년 후 공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술·예산의 이유와 문서 처리 및 디지털화 작업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항상 그렇지 않다.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특정 사안의 경우, 관련 문서에 언급된 취약계층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상황이 허용한다면 과거 사건을 밝히는 중요성이 기한보다 우선할 수 있다.

75. 감비아의 야야 자메(Yahya Jammeh) 독재 정권 하에서 발생한 가나인 및 이주민 50명의 사망 사건에 관한 유엔과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의 보고서는 공개된 바 없다. 이는 다섯 명의 유엔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가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의 공개가 양국 사회에 지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76. 심각한 분쟁이나 인권 및/또는 국제 인도법이 침해된 억압의 시기를 극복하려는 사회에 있어 기억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엔은 자체 기록물 접근을 허용하는 유용한 방법론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의 진실을 알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본 기구는 스스로 규정한 원칙과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국가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VII.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기억의 무기화

A. 정보 접근 권리와 혐오 선동 금지 사이의 균형

77. 역사적으로 정보와 기억은 중대한 정치적 쟁점이었다. 미디어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스페인 내전 당시 게르니카에 네 명의 기자가 상주함으로써 최초의 도시 공중 폭격 및 파괴 사건을 보도할 수 있었고, 프랑코 정권의 선전 기계가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 폭파범을 비난하는 동안 독일 및 이탈리아 공군의 공격에 대한 진실을 확립할 수 있었다. 1992년 7월 뉴욕 뉴스데이(*New York Newsday*)에 게재된 로이 거트먼의 기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렸다. 1994년 언론은 르완다 대학살도 실시간으로 기록했다. 최근에는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이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를 보도한 혐의로 500일 이상 수감되기도 했다.

78. 특별보고관은 인권 훼손, 특정 공동체에 대한 낙인찍기, 폭력 행위 및 집단 폭력까지 부추기는 혐오 발언을 목적으로 정보와 기억이 위협하게 조작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79. 차별, 인종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혐오에 찬 발언이 전 세계에 만연해 있다. 폭력 선동

역시 소셜 네트워크에서 확산되며, 폭력 행위를 포함한 사회적 행동의 양극화와 급진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80.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 선동을 금지하는 라바트 행동 계획(The Rabat Plan of Action)은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혐오 발언 또는 차별, 적대감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모든 표현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 이행에 귀중한 지침을 제공한다. 라바트 행동 계획은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 즉 금지되어야 할 범죄를 정의하기 위한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a) 인과관계나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맥락;
- (b) 발언자의 위치;
- (c) 발언 행위의 대상과 주체, 그리고 청중 사이의 삼각 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목적 또는 의도;
- (d) 발언 행위의 내용;
- (e) 발언 행위의 범위(공개성 여부, 유포 매체 등);
- (f) 혐오 발언과 특정 폭력 행위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가능성(즉각성 포함).

81. 특별보고관은 정보 권리 또는 기타 어떠한 인권도 혐오 선동을 용인하는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B. 이념가 및 선동가의 형사 책임

82. 이념가 및 선동가의 책임은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소에서 이미 명확히 확립되었으며, 해당 재판소는 반유대주의 신문 《슈투르머》의 창립자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를 유죄로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한 상황에서 살해당하던 시기에 슈트라이허가 살인과 학살을 선동한 행위가 현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쟁 범죄와 관련된 정치적·인종적 박해를 명백히 구성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83.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역시 혐오 미디어가 집단학살 선동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근거로, 라디오-텔레비전 리브르 데 밀 콜린(Radio-Télévision Libre des Mille Collines)의 두 간부와 해당 방송국 소속 진행자들에게 집단학살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선동한 혐의 및 반인도적 범죄로서의 박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혐오 미디어와 수십만 투치족 학살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했다.

84. 이념가들과 혐오 및 차별적 발언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면책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허위 기억의 구축을 용이하게 하며, 이는 폭력을 조장하고 부추긴다.

C. 미디어의 책임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

85. 국가 및 국제법은 정보 기술 발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는 소셜 미디어는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한다. 기술 기업들은 혐오 발언이 발생하는 장소나 민간인들이 그 폭력적 결과를 겪는 지역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86. 미얀마에 관한 독립적인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는 소셜 네트워크 및 기타 전자매체를 통한 혐오 선동이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혐오 발언이 현실 세계의 차별 및 폭력 행위와 단순한 정황적 연관성을 넘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다. 특정 지역에서 혐오 발언 설교와 수사가 발생한 후 폭력이 발생했다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 사태 발생 시점에 온라인 혐오 발언이 급증한다는 징후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패턴과 징후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87. 특별보고관은 기술 기업들이 범죄 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더라도,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에게 가해질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도구를 제공한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믿는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과실로 행동한 것이 확인되고,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혐오 발언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거나 허용함으로써 국제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를 선동한 경우,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D. 가짜 뉴스

88.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것은 사람들이 급진화될 위협에 처하게 하여 공존을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의 대량 확산이다.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 과정의 예외나 일시적 장애가 아니다. 이는 가치관의 붕괴와 사회 해체를 드러내고 악화시킨다. 따라서 공공 영역에서의 허위 정보 출현은 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역사가 보여주듯, 이는 과거 비극과 유혈 사태, 학살의 전조였기 때문이다.

89. 취약 국가에서는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제도가 종종 취약하고 정치인들이 민족 집단, 종교, 공동체 또는 씨족에 대한 소속감을 기반으로 한 종파적 담론과 가짜 뉴스를 이용해 정체성을 조작함으로써 감정을 선동하고 폭력적 갈등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이처럼 기억과 정보는 쉽게 무기화될 수 있다.

90. 신뢰할 만한 언론사들은 자체 콘텐츠에 대해 정보의 출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창간 이래 *뉴욕커(The New Yorker)*는 사실 확인 담당자들의 엄격함과 규율로 유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질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근 몇 년간 미디어 신뢰도 하락, 24시간 뉴스 채널 등장, 인터넷 확산, 그리고 루머와 음모론이 만연한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해 이 문제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

다. 이 모든 요인은 정보 검증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현존하는 사실 확인 작업은 가짜 뉴스를 소비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91. 일부 국가들은 특히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억제하기 위해 인터넷을 규제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제정하려 해왔다. 2018년 독일에서는 혐오 발언을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소셜 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법(NetzDG)이 시행되었다. 독일 정부는 2020년 말 이 법의 영향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2018년 말 프랑스에서는 정보 조작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 미디어 교육

92. 학교에서의 미디어 및 정보 교육은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와 혼란을 막고, 신뢰성 위기에 직면한 미디어 기관(더 엄격해져야 함)을 다루며, 정보 규제에 있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와 이미지를 해독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능력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몽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전 유럽집행위원회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행동 강령 채택이었다.

F. 시대의 도덕적 풍토

93.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의 확산은 다자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격, 그리고 민족주의적 이기심에 기반한 배타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이념의 부상이 특징인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이다. 1942년 슈테판 츠바이크는 『어제의 세계(The World of Yesterday)』 집필을 마쳤는데, 그는 이 책에서 당시 도덕적 풍토를 “이성의 가장 끔찍한 패배”로 인한 유럽의 자살이라고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한 시대의 도덕적 풍토가 해로운 경우, 민주주의와 인간 윤리에 용납될 수 없어 지금까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던 사상과 행동이 표출될 수 있다.

94. 유엔 혐오발언 전략 및 실행 계획 서문에서 사무총장은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불관용, 반유대주의, 이슬람 공포증, 기독교인 박해의 확산을 규탄하는 동시에 우려스러운 시선을 제시한다:

소셜 미디어 및 기타 통신 수단이 편협함의 플랫폼으로 악용되고 있다. 신나치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운동이 확산 중이다. 소수자, 이주민, 난민 및 이른바 '타자'를 낙인찍고 비인간화하는 선동적 수사로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공 담론이 무기화되고 있다. 이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며 사회 변방 소수의 목소리도 아니다. 혐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막론하고 주류로 진입 중이다. 그리고 규범이 훼손될 때마다 우리 공동의 인간성 기둥은 허약해진다.

95. 분쟁이 계속되는 지역, 특히 시리아아랍공화국과 예멘에서는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 기타 인도주의 및 인권 단체, 독립 언론사, 심지어 개인들도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많은 병원, 학교 및 기타 보호 대상 시설을 폭격한 사례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 행위에 대한 보고와 항의는 교전 집단들의 행동을 바꾸지도 못했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적절한 개입도 이끌지도 못했다.

VIII. 기억의 진전과 후퇴 금지

96. 진보성은 개인적 관점에서 국제 인권법을 형성하는 원칙이다. 기념화 과정 역시 진보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 및 국제 인도법 위반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과 기억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인권 의무이자 평화 문화로 나아가 미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점에서 공식 및 비공식 교육의 모든 수준에서 프로그램의 수립을 요구한다. 또한 젠더 관점과 같은 현대적 인권 시각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억 과정을 장려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억 과정을 재검토하여 적절히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7. 후퇴나 역행은 용납될 수 없다: 홀로코스트, 과거 자행된 집단학살 및 기타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절멸 정책의 부정, 그리고 이를 실행한 정권의 미화나 찬양은 완전히 배격되고 용납될 수 없음이 선언되어야 한다. 정부 및 기타 공공 기관은 비윤리적이고 피해자를 재차 고통스럽게 하며, 국제 사회를 모욕하고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생각을 대변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브라질 대통령이 자국을 황폐화시킨 군사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진실위원회의 보고서를 의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98. 이와 관련하여 설계 및 시행되는 모든 기념 정책은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합법적 기구(진실위원회) 및/또는 해당 사건의 책임자들을 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모든 재판소의 결론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IX. 결론 및 권고

99.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중대한 국제 인도법 위반을 겪은 사회에서 기념화 절차를 채택할 의무는 국제 인권법의 1차적 및 2차적 근거에서 비롯되므로, 정부는 예산, 정치적 또는 구조적 논거나 이행기 정의의 다른 영역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회피할 수 없다.

100. 이행기 정의 체계는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권이 저지른 과거 범죄나 무력 분쟁 상황에서 자행된 범죄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 인권 접근법에 기반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기억 정책을 필요로 한다. 기억 없이는 진실, 정의, 완전한 배상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재발 방지 보장도 불가능하다.

101. 중대한 인권 침해 및 국제 인도법 위반과 관련된 기억 과정은 이행기 정의의 다섯 번째 기둥을 구성한다.

102. 기억 과정은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지만 대체하지는 않는다. 기억 메커니즘은 결코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제 인도법을 위반한 가해자에게 법적 또는 사실상의 면책을 부여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03. 진보성은 개인적 관점에서 국제인권법을 안내하는 원칙이다. 기념화 과정 역시 진실 규명과 과거 위반 행위에 관한 효과적인 기억 정책 수립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피해자 집단을 고려하고 젠더 관점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억 과정과 관련된 후퇴 금지 원칙은 과거 위반 행위의 범위와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를 부정하려는 부정주의 또는 수정주의 이론에 제한을 가한다.

104. 기념화는 국가가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장기적 과정이다. 기억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당국은 해당 정책이 피해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시민사회, 특히 인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립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05. 기억에 관한 공공 정책은 다차원적이어야 하며, 공공 공간(기념비, 공원, 광장 등), 예술적 표현(박물관, 연극, 콘서트, 그림 전시 등), 미디어 활동, 국가가 후원하는 중요한 날짜에 개최되는 공공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정책 하에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평화 문화 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6. 기억 과정은 완전한 배상의 모든 측면, 특히 만족과 재발 방지 보장 차원을 가로지르며, 이는 국가가 저지른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의무이다.

107. 인권 및 국제 인도법 위반으로 정의된 과거의 기념화는 현재를 성찰하고 배제, 차별, 주변화, 권력 남용과 관련된 현대적 문제들을 식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유해한 정치 문화와 연결된다. 기념화는 민주주의 문화와 인권 존중의 발전을 촉진한다.

108. 기억의 적절한 활용 목적은 “대화적 진실”을 확립하는 데 있다. 즉, 과거 범죄와 폭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직접적·간접적 책임 소재에 관한 사회 내 논의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억 과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위원회 및/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된 위반 행위와 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억의 기만적 이용은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 인권 의무에 반한다.

109.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기억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또한 가해자들과 폭력을 재점화하려는 정치 집단 또는 이익 집단에 의한 부정주의, 수

정주의 및 조작 시도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 기관은 침해를 미화하고 피해자를 재희생자화하는 부정주의 발언을 삼가야 한다.

110. 분쟁 후 상황에서의 기억 과정의 목적은 피해 집단이 잔혹한 과거를 이해하고, 복수심을 피하며, 과거의 분열을 극복하고, 저질러진 범죄를 규탄하며, 정의 실현 기구를 지지하고, 얻은 교훈을 통해 현존하는 긴장을 완화하여 사회가 앞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11. 기념화, 특히 분쟁 시기의 범죄 및 인권 침해 기록은 필수적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며, 폭력이 지속되는 동안 가능한 한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어야 한다.

112. 이행기적 맥락에서 기념화 과정은 민주주의와 평화 문화 정착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추구할 때만 효과적일 수 있다. 이행기 정의 메커니즘을 지지하는 이들은 다양한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연대를 형성하고, 정치적 폭력, 대립, 배제의 해로운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113. 기념화 과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 특히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기록 보관소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록 보관소는 확립된 기준에 따라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정부는 그러한 접근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114. 유엔은 많은 사회의 과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체 기록물 공유 절차를 마련하여 진실을 알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특히 사회가 자신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목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

115. 국가 법률은 기술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폭력으로 이어지는 혐오 발언은 소셜 네트워크가 그러한 발언을 유포하는 주체라는 구실로 용인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혐오를 선동하는 범죄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차별, 적대 또는 폭력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국제 기준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학교,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교육 과정에는 학생들이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며 정보에 기반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사교육자료센터 구축에 대한 연구

인쇄일: 2025년 9월 30일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